

集成堂誌

黃義千 吳顯主 編

 大川文化院

集成堂誌

黃義千 吳顯圭 編



大川文化院

발 간 사



전통문화는 오랜 세월 동안 조상의 지혜가 축적되어 이루어진 소중한 문화유산인 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창조적 발전의 원동력을 영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어서, 오늘날 급격히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가치관으로 재정립하고, 생활 속에서 현대적으로 되살려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문화를 아끼고 알아야 하고 보존·계승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천문화원에서는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방법이 담긴 전통문화를 발굴·보존해서 계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集成堂誌]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집성당은 우리 보령지역 사람들조차도 생소하게 들리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급변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전통문화가 단절되고 잊혀져 가는 단면 중의 하나라 생각됩니다.

집성당은 1898년 三希堂 尹錫鳳 선생이 웅천읍 대천리에 세운 주자와 송시열의 영정을 모신 사우로, 한말 일제시기에 인근 지역의 항일 유림들과 함께 일제 침략으로 무너져가는 文風을 진작시키고, 항일위정척사의 정신으로 민족의 자존을 지키려 노력했던 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가 오늘날 잊혀져 가는 아쉬움이 있어 본 문화원에서는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여, 그 역사적 사실을 알고 보존·계승하기 위해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모든 내용을 번역해야 하나 본 원의 사정으로 집성당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번역해서 증보판을 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향토문화발전에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준희 시장님, 박영진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여러 해 동안 동분서주하며 자료를 모아 편집하여 본 책자 발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황의천, 오현규 선생님을 비롯, 바쁜 중에도 번역을 해주신 노승석 선생님께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보령지역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7년 12월 일

대천문화원장 임 기 석

축 간 사



집성당지는 한말 화서학파의 의리를 강연하면서 위정척사 운동 정신을 고양해온 집성당 유림들의 글을 엮은 글로 이번에 대천문화원의 향토민속 발굴사업의 일환으로 집성당지를 번역·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집성당은 1899년 보령, 홍성, 청양, 서천, 부여 지역의 유림들이 힘을 모아 건립한 사우으로써 인근의 선비들이 모여 학문을 닦던 곳이며, 항일 위정척사 운동을 펼치기도 했던 우리의 민족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매년 유림들이 웅천에 위치한 집성당에 모여 주자와 송시열의 영정을 모시고 향사를 행했으며, 지금은 위패를 모시고 향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집성당지 발간으로 집성당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향토자료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뿌리가 없는 민족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상님들의 찬란했던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 계승하는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집성당지 번역과 발간에 애쓰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천문화원이 시민들과 함께 우리지역 문화발전을 이끄는 기관으로 크게 발전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12. 5

보령시장 신 준 희

축 간 사

-집성당지 번역 발간을 축하하며-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3년여의 긴 시간을 바쳐
오늘 드디어 빛을 보게된 집성당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사료 수집과 집필에 애써주신 대천문화원 임기석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향토자료를 발굴하고 잘 보존하여 자손만대에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당연한 역사적 소명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접하고 더 많이 알게 될 수록 내 고향 우리 땅에 대한
애정은 더욱 두터워지고, 선조들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은 더욱 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인륜 도덕의 문란을 바로잡는 유교의 전당으로
또한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는 구국활동의 본산으로 그 역할을 다한 집
성당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 그리고 그 곳에서 활동했던 우리
지역 유림들의 지혜와 슬기 그리고 뿌리깊은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워
주게될 집성당지는 매우 값진 한 권의 책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좀 더 좋은 기록과 훌륭한 책의 편찬을 위하여 심혈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성당지가 조상의 숨결을 느끼는
귀중한 사료로 또한 바른 정신을 일깨우는 지침서로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2007년 12월 일

보령시의회의장 박 영 진

제 1 부

1. 집성당(集成堂)

집성당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산 14번지에 있으며, 보령시 향토유적 제2호(1991. 12.10지정)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집성당은 1898년 3월 삼희당(三希堂) 윤석봉(尹錫鳳)의 주도 아래 보령지역과 인근 서천 홍성 청양 부여 지역 유림들의 도움을 받아 세워진 사우이다. 윤석봉과 함께 집성당을 창건하는데 앞장선 인물은 울농(栗農) 신섭(申櫟)과 돈간재(敦艮齋) 조진학(趙鎭鶴) 이었는데, 울농



< 집성당 >

신섭은 일찍이 경기도 지역의 유생 대표로 항일 위정 척사의 상소문을 고종에게 올렸다가 전남 지도(智島)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후, 충청도 비인에 낙향하고 있던 항일의 선비이며, 돈간재 조진학은 숙재 조병덕의 제자로 보령 주산에서 많은 제자를 길러낸 낙론계(洛論系)의 뛰어난 학자였다.

이렇게 세워진 집성당은 일제 침략의 어려움에 처한 한말에 주자(朱子)와 송시열(宋時烈)의 영정을 모시고 향사(享祀)를 음력 2월과 8월에 행하면서 인근의 선비들이 강학(講學)하였으며, 인륜도덕의 문란을 바로 잡고, 항일 위정 척사(抗日衛正斥邪)의 정신을 지켜 나갔던 곳이다.

이곳의 유림들은 항일 위정 척사의 사상을 강론하였으며, 1906년 민종식의 홍주의병이나 1919년 파리장서운동 등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여기에서 활동하거나 관련을 가진 유림들 중 항일운동가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 많으니, 우선 삼희당 윤석봉 선생은 우리나라에서 조선말기 가장 실천적 항일의병운동을 하였던 화서학파의 인물이며, 그가 교유한 인물이 면암 최익현 의암 유인석 경암 서상렬 등 당대 최고의 의병장들이었다. 그 또한 1906년 민종식의 홍주의병에 가담하였다가 2개월 간의 옥고를 겪었다.

그리고 홍성의 향일 운동가 지산 김복한 북암 이설 위관 김상덕이 있으며, 윤석봉 선생의 제자로서 홍주의병에 가담하였다가 대마도에 유배된 소위 대마도9의사 중 보령의 우록 유준근 비인의 운초 문석환 공주의 택당 이식이 있고, 보령 5열사 중 백관형이 있으며, 그 외 김지정 유호근 조구원 윤용원 등 향일 유림들이 이곳 집성당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집성당은 단순한 사우가 아니고 향일의 사상을 가진 보령 서천 홍성 청양 등 인근의 선비들이 모여 활동하던 의미 있는 장소이다.

그동안 6.25사변 등 어려움 속에서 훼손되기도 하였으나 유림들의 노력으로 몇 번의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주송(朱宋) 양부자(兩夫子) 영정(影幀)은 없어져서 위패로 대신하고, 강학하던 장소는 터만 남아있다. 현재는 지방 유림들이 관리하며 해마다 음력 2월에 향사를 올리고 있다.

2. 윤석봉 선생의 생애

집성당을 창건한 윤석봉 선생은 1842년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에서 태어났다. 자는 운서(雲瑞)이고 호는 삼희당(三希堂)이며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시조는 고려 태사(太師) 신달(莘達)이며, 5세인 관(罐)은 고려 숙종 때 여진족을 정벌하고 문하시중을 지냈고,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19세인 희인(希仁)은 사마양시(司馬兩試)와 문과(文科)에 합격하고 이조참판을 역임하였으며, 22세인 중삼(重三)은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문하에 나갔으며, 사마양시와 문과에 합격하고 호조 참판을 역임하였다. 29세인 염(淹)은 윤석봉의 고조부로 생원이며, 정조 때는 염의 아들들인 인식(仁植) 의식(義植) 효식(孝植) 3형제가 동시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함으로써 정조임금이 이를 칭찬하고 잔치를 특사(特賜)하여 가문을 현양 하였다.

일찍이 윤석봉의 12대조인 22세 중삼(重三)이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문하에 나간 이래로 율곡 이이와 우암 송시열로 이어지는 서인 기호학파의 학문을 정훈(庭訓)으로 삼아 대대로 계승해왔다. 仁植 義植 孝植 이후에는 과거에는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해왔다.

윤석봉은 1842년 아버지 윤희오(尹羲五)와 어머니 능성구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7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조모와 계모(繼母)손에서 자랐다. 그 후 동당(洞堂) 서응순(徐應淳)과 진암(鎭菴) 박홍수(朴洪壽)문하에 나아가 수학을 하였고, 이어

서 37세에는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문인인 중암(重菴) 김평묵(金平默)이 가릉(嘉陵)에서 강학(講學)한다는 말을 듣고 김평묵에게 나아가 수학하였고, 이어서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 문하에 나가서 수학하였다.

그리하여 윤석봉은 공자 주자 송시열을 정맥으로 하는 화서학파의 의리를 체득하였으며, 최익현 유인석 등의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동문으로 교유하였다. 화서학파는 조선 말기 가장 실천적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하여 그 문하에 유인석 최익현과 같은 의병장이 출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윤석봉은 서원철폐, 강화도조약 등 일련의 사건 속에서 화양동 등의 유적지를 유람하며 의리 정신을 더욱 심화시켜 나갔지만 일제의 침략은 더욱 심해져서 조선 사회에서 유교적 가치관이 계속 흔들려갔다. 윤석봉은 이를 개탄하여 1888년 경기도 양주에서 충청도 비인으로 재종숙 윤건오(尹建五)와 함께 가족을 거느리고 낙향하였다.

거기서 석곡서사(石谷書社)를 세우고 지역 유림들과 교유하며 후학들을 지도하다가, 2년 뒤인 1890년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화정에 이주하여 후학을 가르치면서 1895년의 홍주의병장인 김복한(金福漢) 이설(李僎) 등 호서 지역의 남당학과 학자들과 도의로서 교유하면서 지역에서 화서학파의 의리를 전파하였다.

유인석이 을미의병을 일으켰을 때는 조구원(趙龜元) 유호근(柳浩根) 등 보령 여러 유림들과 연명으로 글을 보내어 격려하였으며, 유인석 의병이 만주로 갈 때는 따라가고자 하였으나 집안 사정으로 따라가지 못함을 한탄하며 자정(自靖)의 생활을 하였다.

1899년에는 지역 선비들과 함께 문풍(文風)을 진작시키기 위해 웅천 대천리에 주송(朱宋) 양부자(兩夫子) 영당(影堂)인 집성당(集成堂)을 세우니 주변의 많은 선비들이 찾아왔다. 여기서 화서학파의 의리를 강론하면서 항일 위정척사의 정신을 실천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윤석봉은 조약 폐기 상소문을 올리기 위해 서울에 올라갔으나 일제의 방해로 실패하고, 1906년 민중식이 의병을 일으키자 65세의 노구를 이끌고 참여하였다가 홍주성이 무너지면서 체포되어 홍주에서 왜병의 심문을 받은 후, 핵심 주동자로 인정되어 경성 일본군사령부로 압송되어 혹독한 심문을 받는 등 45일간의 힘든 옥고 후 풀려났다. 풀려난 후 이때 겪은 내용을 《홍경일기(洪京日記)》로 기록하여 현재 홍주의병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1907년에

는 지역에서 의병을 선동하고 민심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청라에 은거하고 있던 김복한과 함께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다. 이때 김복한은 공주감옥으로 끌려갔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나라가 없어진 것을 분개하여 제자 백관형(白觀亨)을 시켜 집성당 주송(朱宋) 양부자(兩夫子)에게 고유문(告由文)을 올리고, 집안 사람을 시켜 사당에 고유문(告由文)을 올렸다. 그러나 65세라는 고령으로 홍주의병에 참여하였다가 투옥 생활로 얻은 지병 악화와, 한일합방에 대한 분노가 겹쳐 얼마 후인 1910년 12월 6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 후에도 그는 집성당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유생들의 활동에 있어서 정신적 지주로 존재하였다.

윤석봉은 그의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낙향해서도 이 지역 유림사회에서 좌장(座長)역할을 하였으며, 보령지역 화서학파의 종장(宗丈)역할을 하였다. 그의 묘소는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화락산에 있다가 손자에 의해서 1951년에 고향 경기도 양주에 이장되었는데, 최근 개발 과정에서 유실되어 없어졌다.

3. 현재의 집성당

집성당은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웅천초등학교 앞의 하천을 따라 500여 m정도 남쪽으로 내려 온 곳의 화락산 동향 사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6.25전까지는 주자와 송시열의 영정을 모시고 향사(享祀)를 행해 왔지만 6.25때 영정을 도난당한 후부터는 위패를 모시고 지역 유림들이 매년 향사를 행해 왔고, 건물은 계속 중수(重修)해 왔다. 그러다가 1990년에 보령시의 도움으로 새롭게 개수(改修)하였는데, 정면 2칸 측면 3칸의 건물로 정면의 각 칸에는 4분합문(分閤門)이 설치되었고, 왼쪽의 문 위에는 집성당(集成堂)이라는 현액이 걸려있다. 현액의 좌우에는 작은 글씨로 된 집성당 중수기 현판 4개가 걸려있다. 홀처마에 맞배지붕 양식을 한 이 건물의 양 옆 박공 아래에는 방풍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납도리식 건물이다.



집성당의 건물은 2단의 기단 위에 놓여져 있으며, 원형 초석 위에 원주(圓柱)를 세우고 있다. 집성당의 주위는 담장이 둘러져 있으며, 맞배지붕의 소슬문 이 있다.

그림 2 집성당인 (창건당시부터 사용되던 인장)



〈주자 영정〉



〈송시열 영정〉

◎朱子(1130~1200)

본명은 주희, 중국 남송(南宋) 사상가. 자는 원회(元晦)·중회(中晦), 호는 회암(晦庵). 복건성 우계(尤溪) 출신. 주자학(성리학)을 구축하였으며, 주자(朱子)는 그의 존칭이다. 시호는 문공(文公).

◎宋時烈 (1607~1689)

조선 중기 문신·학자. 자는 영보(英甫), 호는 우암(尤庵). 본관은 은진(恩津). 충청북도 옥천(沃川) 출생. 김장생(金長生)·김집(金集)의 문인으로 성리학과 예학을 배웠고, 조선후기 노론 기호학파의 宗丈으로 활동
 편저자 소개

제 2 부

- 1 주송양부자영당창건통문(朱宋兩夫子影堂創建通文) 【譯】 / 11
삼희당 윤석봉, 돈간재 조진학, 율농 신섭 명의로 된 집성당 창건통문
(1897년 8월)
- 2 영당개기고토신문(影堂開基告土神文) 【譯】 / 18
집성당의 터를 만들면서 토지신에게 고한 축문(윤석봉)
- 3 상량문(上樑文) 【譯】 / 22
집성당 완성시의 상량문(윤석봉)
- 4 고유축(告由祝) 【譯】 / 30
신헌(申挾)가에 봉안된 유상(遺像)을 장차 옮겨 봉안하겠다고 고하는 축
(윤석봉, 1898년 2월)
- 5 회암주부자유상봉안문(晦菴朱夫子遺像奉安文)(윤석봉, 1898년 3월) 【譯】 / 32
- 6 우암송부자유상봉안문(尤菴宋夫子遺像奉安文)(윤석봉, 1898년 3월) 【譯】 / 38
- 7 집성당기(集成堂記)(윤석봉, 1898년) 【譯】 / 43
- 8 춘추향사의절(春秋享祀儀節) 【譯】 / 50
집성당 춘추향사시 의례 절차
- 9 춘추향사축문(春秋享祀祝文)(윤석봉) 【譯】 / 55
- 10 영정봉안후서고동참제공(影幀奉安後書告同參諸公)
(윤석봉, 1898년 3월) 【譯】 / 57
주자와 송시열의 영정을 집성당에 봉안한 후 동참해준 유림들에게 그 취지를 알
리고 지속적 관심을 부탁한 내용
- 11 집성당상량문(集成堂上樑文)(신응선) 【譯】 / 65
- 12 상량문(上樑文)(신섭) 【譯】 / 73
- 13 춘추제향정식축문(春秋祭享定式祝文)(유호근) 【譯】 / 80
- 14 화상찬(畫像贊) 【譯】 / 82

- 15 영건유사현판기(營建有司懸板記)(윤석봉) 【譯】 / 84
 집성당을 만드는데 유사로 활동하면서 창건에 기여한 이헌세(李憲世) 백관진(白觀鎭) 황진(黃楨) 유세리(柳世利) 이종익(李鍾益)의 사실을 기록한 글
- 16 한화당기(寒華堂記)(조구원) 【譯】 / 88
 주자와 송시열을 제향하면서 유교문풍을 강학하는 집성당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 글
- 17 기해춘이본시고유문(己亥春移本時告由文)(1899년) 【譯】 / 96
- 18 고신본문(告新本文) 【譯】 / 98
- 18-2 의한화당기(擬寒華堂記)(심영택) / 100
- 19 희당윤선생행장(三希堂尹先生行狀)(이승옥, 1925년) / 104
- 20 화정복거설(華汀卜居說)(윤석봉, 1893년) / 130
 윤석봉이 비인에서 웅천 대천리에 이거한 후, 이 지역에 정착하게 된 감회를 적은 글
- 21 삼희당자호기(三希堂自號記)(윤석봉) / 132
- 22 율농신선생사실기(栗農申先生事實記)(윤석기) / 134
 율농 신섭(申櫟)의 일생과 위정척사운동의 사실을 기록
- 23 제재종질삼희당문(祭再從姪三希堂文)(윤건오, 1910) 【譯】 / 139
 7세 연상인 윤석봉의 재종숙 윤건오(尹建五)는 어려서부터 윤석봉과 학문을 함께하였고, 함께 가족을 거느리고 낙향하여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인물이었다.
- 24 제삼종형희당선생문(祭三從兄希堂先生文, 庚戌十一月)(윤석기, 1910.11) / 151
 윤건오의 아들로로서, 윤석봉의 제자인 윤석기(尹錫祺)의 제문
- 25 제희당윤공석봉문(祭希堂尹公錫鳳文)(유호근) / 156
- 26 제윤희당선생문(祭尹希堂先生文)(李敎憲) / 158
- 27 제희당윤공석봉문(祭希堂尹公錫鳳文)(김복한) / 162
- 28 제희당윤공문(祭希堂尹公文)(최영조) / 163
- 29 고삼희당윤선생묘문(告三希堂尹先生墓文, 辛未九月)(이응복) / 165
- 30 입갈시채고문(立碣時再告文, 癸酉九月)(이응복) / 166
- 31 제희당선생문(祭希堂先生文)(김관제) / 167
- 32 所志(集成堂 掌議 沈右澤 등이 남포군수에게 올리는 소지)(1904년 12월) 【譯】 / 171
 집성당에서 남포군수에게 집성당 창건 취지를 알리고 재정적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

33 집성당완문단자(集成堂完文丹子)(1905년 8월) 【譯】 / 180

남포군수 이석재(李奭宰)가 집성당 창건 취지를 이해하고 재정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내용

34 집성당보호계서(集成堂保護稷書)(윤석기, 1898년) / 185

35 장후재의 집성당 구재(鳩財)활동(장후재의 『順菴事蹟』 중에서, 1904년) / 187

36 집성당중수기(集成堂重修記)(송병제, 1905년) / 188

37 집성당중수기(集成堂重修記)(이교헌, 1929년) / 191

38 집성당중수기(集成堂重修記)(임성순, 1957년) / 192

39 집성당중수기(集成堂重修記)(오재섭, 1984년) / 196

40 집성당중건기(集成堂重建記)(오재섭, 1993년) / 197

41 통문(通文)((이응복 등, 1932년) / 198

이응복(李應復) 등 집성당 유사들이 관내유림들에게 집성당을 창건한 윤석봉을 길이 추모하고, 후세에 알리며, 성심(誠心)으로 추모사(追慕事)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42 답현원당통문(答賢遠堂通文)(이응복 등, 1936년) / 201

홍성 구항면에 장후재(張厚載)가 세운 현원당에서 윤석봉 추모사업을 하려는 데에 대한 집성당 유림들의 부정적 입장을 전달하는 글.

43 여취원식서(與崔元植書)(윤석희 등, 1936년) / 204

장후재가 최익현과 윤석봉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자 집성당 임원들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는 글을 최익현의 손자인 최원식에게 보내는 글

44 서간(書簡) (윤석희 등, 1938년) / 207

훼손된 송시열 영정을 다시 모사(模寫)하기 위해 집성당에서 송시열의 후손인 송증헌(宋曾憲)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

45 윤고보령사우문(輪告保寧士友文)(유호근) / 210

집성당 창건 취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보령 유림들에게 요청하는 글

46 여조청농(與趙靑農, 戊戌八月十日)(윤석봉, 1898년 8월 10일) / 212

윤석봉이 보령 유림인 청농(靑農) 조구원(趙龜元)에게 집성당 향사(享祀)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편지

47 상연재송쇄주(上淵齋宋祭酒)(윤석봉) / 214

윤석봉이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에게 집성당의 창건 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는 편지

48 상송연재(上宋淵齋)(윤석봉) / 219

윤석봉이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에게 집성당의 창건 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는 편지

49 여이남포석재(與李藍浦奭齋)(윤석봉) / 225

윤석봉이 남포군수 이석재에게 집성당 창건 취지를 알리고 재정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

50 여위관김직각상덕(與韋觀金直閣商惠)(윤석봉) / 226

윤석봉이 위관(韋觀) 김상덕(金商惠)에게 집성당에 한번 왕림해 주기를 청하는 편지

51 여김위관(與金韋觀)(윤석봉) / 228

윤석봉이 위관(韋觀) 김상덕(金商惠)에게 집성당 8월 향사에 왕림해 주기를 청하는 편지

52 여집성당제인(與集成堂諸人, 庚午)(이교헌, 1930년) / 231

관온재(寬溫齋) 이교헌(李敎憲)이 집성당 사우들에게 준 글

53 집성당 통문(集成堂通文)(윤돈학 등, 1899년) / 232

백관형(白觀亨)의 선조인 백형(白珩)과 백완(白玩)의 정묘·병자호란시의 충절을 인근 유림들에게 알리는 내용

54 주송양부자영정봉안운(朱宋兩夫子影幀奉安韻)(윤석봉) / 237

55 집성당추향후야음(集成堂秋享後夜吟)(윤석봉) / 237

56 집성당강후감회이작이시구화어동강제사우(集成堂講後感懷而作二詩求和於同講諸士友)(윤석봉) / 238

57 九月十五日卽晦翁夫子晬辰也行聯拜之禮因講而夜吟(윤석봉) / 239

58 九月望日卽朱宋夫子生辰也集成堂講罷夜吟(신태진) / 239

59 집성당봉안운(集成堂奉安韻)(이교헌) / 240

60 집성당봉안주송이선생영정(集成堂奉安朱宋二先生影幀)(유호근) / 240

61 집성당운(集成堂韻)(임흥준) / 241

62 근술집성당운(謹述集成堂韻)(조익순) / 241

63 화정주송양부자영정봉안운(華汀朱宋兩夫子影幀奉安韻, 戊戌)
(윤건오, 1898년) / 242

64 집성당강회운(集成堂講會韻, 乙巳五月)(윤건오, 1905년 5월) / 242

65 주송양부자영정봉안전고유문(朱宋兩夫子影幀奉安前告由文)

(윤석봉, 1898년 2월) / 243

66 화집성당강회운(和集成堂講會韻)(이사육) / 244

67 『지산연보(志山年譜)』 중에서(김복한, 1898년 3월) / 244

68 집성당춘추향정식축문(集成堂春秋享定式祝文)(윤석봉) / 245

69 경술합방후고집성당문(庚戌合邦後告集成堂文)(윤석봉) / 246

70 한화정서(寒華亭序)(신태진) / 248

주자의 고향 명칭 한천(寒泉)과 웅천 대천리의 한천(寒川)이 일치하고, 이 지역이 화정(華汀)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집성당을 한화정(寒華亭)이라고 의미 있는 뜻으로 부를 만 하다는 글

71 홀기(笏記), (永曆二百五十二年戊戌三月抄出)(1898년 3월) / 252

72 화정강규서(華汀講規序)(윤석봉, 1898년) / 260

윤석봉이 비인에서 웅천으로 이거한 후 조구원 등 보령 유생들의 협조로 집성당 강학과, 그 규약을 정한 취지를 적은 글

73 석곡서사강규(石谷書社講規)(윤석봉, 1892년) / 265

윤석봉이 처음 호서의 비인 석곡(石谷)으로 낙향하여 이곳에서 석곡서사를 열고 지역 유림들과 함께 강학하는 내용

①

朱宋兩夫子影堂創建通文

附各項文字

尹錫鳳等謹齋沐裁書奉獻于境內近邑縉
紳章甫僉執事座下嗚呼 皇明運否姚江之
訖塞路而朱子之道被屈東韓氣衰黑水之禍
滔天而宋子之學分裂噫天之生大賢於前後最
不尋常而何其身不容於當時而道不行於後世
鄰其害滋蔓神州陸沉于今二百餘年我國網
頽亦自三十餘載而夫子俎豆之所在鞠草以故
其教乃至歐教肆行舉天下海外百種之夷引類
呼明衝砥柱折呂梁而來打成一片毀破國俗五

百年禮義羊存之愛無時可見三千里江山牛
後之恥無地可雪若此不已則兩夫子之道不但
容於世而已必滅乃已然則雖有人類從何以得聞
其道而學其術乎鄙等終夜憂歎繼晷思量忽
得補線扶脉之一術蓋射者無的四方八面浩
二向何而發矢行者無家千蹊萬運綿之趨之
何而歸宿近日學者之無趨向如射者之無的行
者之無家故鄙等與一二士友謀取以創立數間
茅屋奉安兩夫子真像春秋會同謹行一遵一
豆之禮亦於每月朔望焚香展拜因為講誦兩

天子之書則不但為小仲後學之私情庶幾回幹
斯文之運此無乃強此艱彼之術耶然而不誠無
物無財不成鄧鄉向義者不過幾人亦皆瘠土雖
有金聲經始之謀恐無玉振理終之功伏想遠近
僉君子若非立論異塗之家則羹牆江漢尊慕
之誠宜無異同而且今人歟大判路子分明向此則為
人入彼則為歟凡尊攘所係講明此設區宜靡不
用極各出誠力同謀竣事則此所謂射者有的行
者有家皆得趨向之路矣如此然後朱宋兩夫子
之道庶幾不墜於地而後學之責拜維其萬一也

上
字
抱此微誠通告同志伏願僉尊默會而齊力則不
勝幸甚

永曆二百五十二年丁酉八月日幼學尹錫鳳

監役趙鎮鶴

庇仁幼學申 檀等

再拜

주자(朱子) · 송자(宋子) 양부자(兩夫子) 영당창건통문(影堂創建通文)

- 각항(各項)의 문자를 첨부함. -

노승석(盧承奭) 역(譯)

윤석봉(尹錫鳳) 등은 삼가 재계하고 목욕한 다음 글을 지어, 경내 인근 고을의 여러 진신(縉紳, 벼슬아치) 사대부(章甫) 여러분께 올립니다.

아아! 명나라의 국운이 비색하여 요강(姚江)¹⁾의 학설이 거리에 가득하고 주자(朱子)의 도가 꺾였으며, 조선의 기운이 쇠퇴하여 흑수(黑水)²⁾의 화가 하늘에까지 뻗치고 송자(宋子)의 학문이 분열되었습니다. 아! 슬프도다. 하늘이 앞뒤로 대현(大賢)을 내심이 정말로 심상치 않은 것인데 어찌하여 그 몸은 당대에 용납되지 않고 도는 후세에 행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 해악이 흘러 넘쳐 신주(神州)³⁾가 침몰하여 명나라가 망한 지 지금 2백여 년이고, 우리나라의 기강이 무너진 것 또한 벌써 30여년입니다. 두 부자(夫子)의 조두(俎豆, 제기)가 있는 곳에 풀이 우거졌으니, 그 까닭에 그 효과가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까.

기독교가 횡행하며 온 천하 해외의 온갖 오랑캐들이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서로 무리를 지어 지주(砥柱)⁴⁾를 무너뜨리고 여량(呂梁)⁵⁾을 부러뜨린 이래 한 덩어리가 되어 나라의 풍속을 파괴하였으니, 오백년 예의에서 양존(羊存)의 아낌⁶⁾을 볼 수 있는 때가 없고 삼천리 강산에서

- 1) 요강(姚江) : 명대(明代)의 학자 왕수인(王守仁)의 학파를 말한다. 왕수인은 여요(餘姚) 사람으로, 진사(進士)를 거쳐 정덕(正德) 때에 순무(巡撫)로 대모산(大帽山)의 제적(諸賊)을 평정하였다. 그의 학문은 양지(良知)·양능(良能)을 위주로 하여 요강파(姚江派)라 일컫는다. 일찍이 양명동(陽明洞) 안에 집을 짓고 살았으므로 세상에서 양명 선생이라 칭한다. □□명유학안(明儒學案)□□
- 2) 흑수(黑水) : 윤휴(尹鑄)를 가리킨다. 윤휴가 살았던 경기 여주(驪州)의 ‘여(驪)’ 자가 ‘검은 말 여’자로 검다는 뜻이 있고 거기에 여강(驪江)이 있으므로 윤휴를 배척하는 측에서 그의 별칭으로 사용하였다.
- 3) 신주(神州) : 중국 사람이 그들의 나라를 일컫는 칭호. 『사기(史記)』 맹자전(孟子傳)에 “추연(鄒衍)이 중국을 적현신주(赤縣神州)라 했다.”고 하였다.
- 4) 지주(砥柱) : 황하(黃河)가 물이 맹진(孟津)이라는 곳에서 급류로 흐르는데, 그곳 강 한복판에 돌기둥이 서 있는 것이 지주이다. 급류에도 아랑곳 않고 서 있어 흔히 무너진 세도를 다시 일으킨 인물에 비유되곤 한다. 여기서는 우암을 상징한 것이다.
- 5) 여량(呂梁) : 중국 사수(泗水)에 있는 험난한 여울이다. 어떤 사람이 윤휴를 비호하자, 우암이 편지를 보내어 그 “윤휴가 이미 ‘임금을 낮추고 종통(宗統)을 이종(貳宗)으로 여겼다.[卑主貳宗]’ 이 4자를 좋은 제목으로 삼았고 보면 다시 여지가 없으므로, 오늘날의 화는 자연 지주(砥柱)를 무너뜨리고 여량(呂梁)을 부러뜨려 바다에 이르는 것과 같은데, 어찌 유생의 소가 격동하는 것을 기다리겠는가.[其人既以此四字爲好題目, 則更無餘地矣, 其有今日之禍, 自然如衝砥柱折呂梁而到海矣, 顧何待於儒疏之激之乎]” 한 것을 빌려 쓴 표현이다.
- 6) 양존(羊存)의 아낌 : 예의의 근거가 되는 제도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일을 말한다. 노 문공(魯文公)이 종묘에 삭일(朔日)을 고유(告由)하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자공(子貢)이 그 제사에 소용되는 양(羊)마저 없애려 하니, 공자가 “사(賜)야, 너는 그 양을 아끼느냐? 나는 그 예를 아끼노라.[爾愛其羊我愛其禮].” 하였다. 제물에 바치는 양이라도 있으면 그런 예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우후(牛後)의 부끄러움⁷⁾을 씻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이렇게 된다면 두 부자의 도가 세상에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소멸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한 즉 아무리 인류가 존속한다한들 어디에서 그 분들의 도를 듣고 어디에서 그 분들의 학술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밤낮으로 근심하고 생각하다가 홀연 사도(斯道, 유학의 도)의 맥을 보전할 한 가지 방도를 얻었습니다. 대개 활을 쏘는 자가 표적이 없다면 사방팔방 마구 쏘아야 할 것이니 어디를 향해 쏘겠습니까. 다니는 자가 집이 없다면 천 길 만 길 아득히 이어질 것이니 어디로 가서 머무르겠습니까. 근래 학자들이 지향할 곳 없는 형편이 마치 활을 쏘는 자가 표적이 없고 다니는 자가 집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두 사우(士友)와 함께 몇 칸짜리 모옥(茅屋, 사당)을 창립하여 두 부자(夫子)의 영정(影幀)을 봉안(奉安)한 다음 봄가을로 모여 삼가 제향의 예를 행하며, 또한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焚香)하고 전배(展拜, 문안배례)할 것을 모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부자의 글을 강송한다면 한갓 후학의 사사로운 마음을 조금 펴는 것일 뿐 아니라 장차 사문의 운수를 되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문을 강하게 하고 오랑캐의 학술을 배척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정성이 아니면 사물이 있을 수 없고 재물이 없으면 사업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고을에서 의리를 추구하는 분들이 몇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다, 또한 모두 척박한 토지를 소유한 형편이니, 비록 훌륭한 사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끝내 잘 계승하여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원근의 여러 군자들께서 만약 다른 의리를 추종하는 분이 아니라면 강한(江漢)⁸⁾과 갱장(羹牆)⁹⁾처럼 존송하고 사모하는 정성이 의당 저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과 짐승이 판연하게 구분되고 길이 분명하게 갈라졌으니, 사문을 향하면 사람이 되고 오랑캐를 추종하면 짐승이 됩니다.

양마저 없애면 그 예는 드디어 없어지게 되는 까닭이다. □□논어(論語)□□「팔일(八佾)」

7) 우후(牛後)의 부끄러움 : 왜구인 일본을 추종하는 부끄러움을 말한다. 중국 전국 시대의 유세가인 소진(蘇秦)이 한(韓)나라 선혜왕(宣惠王)에게 진(秦)나라에 신복(臣服)하지 말도록 설득하면서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말라. [寧爲鷄口 無爲牛後]”는 속담을 인용한 것에서 나온 말이다. □□사기(史記)□□「소진열전(蘇秦列傳)」

8) 강한(江漢) : 돌아가신 선생의 숭고한 덕을 비유한 말이다. 공자 사후에 증자(曾子)가 그 덕을 기려 “강한으로 씻고 추양으로 적었으니 밝디 밝아 더할 수 없도다.[江漢以濯之 秋陽以暴之 皜皜乎不可尚已]”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맹자(孟子)□□「동문공 상(滕文公 上)」

9) 갱장(羹牆) : 돌아가신 성인이나 현철을 사모한다는 말이다. 옛날 요(堯)임금이 별세하자 순(舜)임금이 요임금을 그리워하여 국그릇을 대하여도 국에 요임금의 모습이 어른거리고 담장을 대하여도 담벼락에 요임금의 모습이 어른거린 일을 가리키는바, 곧 선현인 주자와 송자를 사모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무릇 중화(中華)를 숭상하고 오랑캐를 배척함이 관계된 바인지라 이번 설립을 강명하는 데
에 정히 지극함을 다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각각 성력(誠力)을 출연하고 함께 도모하여 사업
을 마친다면 이것이 이른바 활을 쏘는 자에게 표적이 있고 다니는 자에게 집이 있어 모두 지
향할 바른 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뒤에 주자와 송자 두 부자의 도가 땅에 떨어지
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후학의 책임이 만에 하나 만이라도 메워질 것입니다.
이런 작은 정성을 품고 동지 여러분께 두루 고하노니, 삼가 바라건대 여러 군자들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힘을 모아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영력(永曆) 251년 丁酉(1897) 8월 일 유학(幼學) 윤석봉(尹錫鳳)

감역(監役) 조진학(趙鎭鶴)

비인(庇仁) 유학(幼學) 신섭(申櫻) 등은 재배(再拜)합니다.

② 影堂開基告土神文

維年月日華汀處士尹錫鳳敢昭告于土地之神曰
地之有神如國之有君家之有主入其國者不知
其君可乎入其家者不問其主可乎然則人與神其
理一也若有事於堂屋而開其地則宜告其神乎
嗚乎衆人之將營宮室者不可無此禮况乎聖
賢廟宇之營建乎孔聖天地也尚矣自孔子以
不博約兩至巧力俱全為集羣賢而大成者非朱
文公歟自朱子以來道東宗祖莘夏嫡統為集
羣儒而大成者又非我宋文正歟朱子亞聖也宋

子大賢也語其德則天地定位日月貞明論其功
則華夷定分人獸判位四海九州之內百千萬萬之後
凡有血氣者孰不尊親崇其德而報其功乎何幸
茲土武夷山下寒泉溪上且錦南宋文正講道之
邦也凡我朱宋之徒者猶愛山水之同而益慕道
德之齊創立數間茅棟謹奉兩夫子遺像做行禮
豆之禮而下云茲吉故除地建廟伏惟山靈顧歆
茲觴永奠此堂尚饗

영당(影堂)의 터를 닦고 토지신(土地神)에게 고하는 글

해의 차례는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 화정처사(華汀處士) 윤석봉(尹錫鳳)은 감히 토지의 신령께 밝게 아뢰옵니다.

땅에 신령이 있음은 국가에 군주가 있고 가정에 주인이 있는 것과 같으니,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그 나라의 임금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는 자가 그 집의 주인에게 여쭙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람과 신령이 이치는 한 가지인 것이니, 만약 영당(影堂)을 건립하는 사업이 있어 터를 닦을 경우 마땅히 그 토지의 신령께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 못 사람들이 장차 집을 지을 때도 이러한 예절이 없을 수 없는 법이거늘, 하물며 성현을 모시는 사당을 건립하는 데에 있어서야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유교의 세상이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공자 이래로 박학(博學)과 약례(約禮)¹⁰⁾가 양면으로 지극하고 지교(智巧)와 성력(聖力)¹¹⁾이 모두 온전하였는데, 이를 위해 여러 현철들의 학설을 모아 집대성한 분은 주문공(朱文公)이 아니겠습니까. 주자(朱子) 이래 유학의 도가 우리 동방의 조종(祖宗)으로 이어져 화하(華夏, 중국)의 적통이 되었으니, 이를 위해 여러 유자(儒者)들의 학설을 모아 집대성한 분은 또 우리 송문정(宋文正)이 아니겠습니까. 주자(朱子)는 아성(亞聖)이고 송자(宋子)는 대현(大賢)입니다.

그분들의 덕을 말해보자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잡고 해와 달이 찬란히 밝은 것이며 그분들의 공을 논해보자면 중화와 오랑캐가 구별되고 사람과 짐승이 판별된 것이니, 사해(四海) 구주(九州)의 세상 안에 백년 천년 만년 뒤라 할지라도 무릇 혈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존숭하고 친애하여 그분들의 덕을 숭상하고 그분들의 공에 보답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이 곳은 무이산(武夷山)¹²⁾의 아래이고 한천계(寒泉溪) 위이며, 또한 금남(錦南, 금강 남쪽)의 송문정(宋文正)이 도(道)를 강론(講論)하던 고장입니다. 무릇 우리 주자와 송자의 무리들이 산천의 이름이 같음을 오히려 사랑하고¹³⁾ 도덕의 경지가 나란함을 더욱

10) 박학(博學)과 약례(約禮) : 유교의 정신을 표상하는 양대 골간이다. 공자께서 “군자가 글을 널리 배우고 예로서 요약한다면, 또한 도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子曰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不至於失矣]”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논어(論語)□□「옹야(雍也)」

11) 지교(智巧)와 성력(聖力) : 유교의 발전과 전승을 말한다. 맹자가 말하기를, “시조리(始條理)는 지(智)의 일이고, 종조리(終條理)는 성(聖)의 일이다. 지(智)는 교(巧)에 비유할 수 있고, 성(聖)은 힘[力]에 비할 수 있으니, 백 보(步) 밖에서 쏘는 데 화살이 도착하는 것은 힘이요, 바로 맞히는 것은 교(巧)이며 힘이 아니라.” 한 데서 온 말이다. □□맹자(孟子)□□「만장 하(萬章下)」

12) 무이산(武夷山)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양기리 곡동 동쪽에 있는 산.

13) 주자가 살던 곳에도 무이산(武夷山)과 한천(寒泉)이 있고, 지금 영당을 건립하는 곳인 남포(藍浦)에도 무이산과 한천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존모하여, 몇 칸의 초당을 창립하여 삼가 두 부자의 유상(遺像, 초상)을 봉안하고 제사의 예에 따라 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땅을 점치매 이곳이 길하기에 터를 소제(掃除)하고 사당을 세웁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산의 영령께서는 이 술잔을 받으시고 길이 이 사당을 지켜주소서. 부디 흠향하소서.

③上標文

生百代而等百世前後合乎規模集羣賢而成羣
儒始終貫夫條理值百六運應千一清恭惟我
朱宋兩夫子濂洛的源粟沙正脉緇注聖開末學
一轍同歸攘夷狄尊中華千載無異睠茲文明
藍浦縣爰有武夷花汀村名相似音相同山川
有華東之符合德則齊地則醜道學無軒輊之
斷言虞山享帝舜之祠於古有此龍崗奉武侯
之像非今在茲肆我邦益切羹羹牆之思而後學
合謀茅屋之建儀倣滄洲故事敢行一遵制遵

興農遺規不過數棟東西敬奉獲幅欸然復見
其形丹青難繪七分狀亦不為無助俱瞻天高海
濶之像並躋地負泰巖之容如射者標的行者
歸家趨向方是大定為天之擎柱人之立極倫常
賴以得存黑水之禍益甚於象山偏邦之黨論可
惡紫陽之學復明於巴谷華夏之嫡統始知若
東魯之靈光歸然士皆瞻仰豈西洋之邪說敢
爾民不靡從自西自東自北自南四方歸矣如羣
如飛如鳥如翼一堂成之傳爾繩墨之工聽我頌
禱之律

兒郎偉拋標東聖主山中瑞日紅腥穢歐天風雨
世清明一氣自融々

兒郎偉拋標西烟晴十里草萋々雲峰霞色
蘆湖月淑氣分明映不迷

兒郎偉拋標南朝日落簷端鷺語喃道體無窮
何處見寒川秋水碧於藍

兒郎偉拋標北禮義千年箕子國考亭以後華
陽心鄒魯相傳一字直

兒郎偉拋標上儼然高掛兩賢像空壇鞠草
令乾坤從此吾人有取仰

兒郎偉拋標下濟之青衿滿學舍同得降衷
無智愚箇中誰是道傳者

伏願上標之後皇天垂臨英靈降臨掃除滯氣
俾回陽九之否運洞開炳朗獲睹統一之泰平

상량문(上樑文)

백대 뒤에 타어나 백세 앞의 아성(亞聖)과 비등하니, 앞의 주자와 뒤의 송자는 규모가 같도다. 주자(朱子)는 여러 현철(賢哲)들의 학설을 집대성하였고 송자는 여러 유현들의 학설을 집대성하였으니, 처음과 끝이 조리(條理)를 관통하였도다.¹⁴⁾ 액운을 잇달아 만났으니, 응당 천년 만에 황하가 한 번 맑아지리이다.¹⁵⁾

삼가 생각건대 우리 주자 송자 두 부자께서는, 한 분은 염락(濂洛)¹⁶⁾의 적원(的源, 바른 근원)이요 한 분은 을사(栗沙)¹⁷⁾의 정맥(正脈)으로서, 옛 성인을 계승하고 뒷날의 후학을 열어주신 것은 한결같은 업적이요, 오랑캐를 물리치고 중화를 존중한 것은 천년 세월에 다름이 없도다. 이 문명의 고장 남포현(藍浦縣)을 보면, 무이산(武夷山) 화정촌(花汀村)이 있어, 이름이 흡사하고 발음이 같아 산천은 중국과 동방이 부합하고, 덕이 나란하고 지역이 닮아서 도학은 현격한 단절이 없도다. 우산(虞山)에는 순임금의 제사를 올렸으니 예로부터 이러한 일이 있었고, 용강(龍岡)엔 무후(武侯)의 화상(畫像)을 봉안했으니 오늘날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로세.

이에 우리 지역에서 갱장(羹牆)¹⁸⁾의 사모함이 더욱 간절하여, 후학들이 함께 영당의 건립을 계획했도다. 제사 의식은 창주(滄洲)의 고사(故事)¹⁹⁾에 따라 감히 일두일변(一豆一邊)의 예를

14) 맹자(孟子)가 “공자 같은 분을 모든 성인의 지덕을 모아서 크게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니, 집대성이란 바로 음악을 연주할 때 금속 악기로 발성을 시작하여 옥의 악기로 소리를 거두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금으로 소리를 낸다는 것은 처음의 조리요, 옥으로 거둔다는 것은 마침의 조리이니, 처음의 조리는 지혜의 일이요, 마침의 조리는 성의 일이다. [孔子之謂集大成 集大成也者 金聲而玉振之也 金聲也者 始條理也 玉振之也者 終條理也 始條理者 智之事也 終條理者 聖之事也]”라고 한 말을 주자와 송자에 적용하여 한 말이다. □□맹자(孟子)□□「만장 하(萬章下)」

15) 황하가 한 번 맑아지리이다 : 주자나 송자 같은 대현이 곧 출현하기를 소망하는 바램을 표현한 것이다. 천년 만에 황하가 한 번 맑아지는 데 이것은 바로 성인이 출현할 조짐이라는 황하천일청(黃河千一淸) 고사를 빌어 말한 것이다.

16) 염락(濂洛) : 염계(濂溪)의 주돈이(周敦頤)와 낙양(洛陽)의 정호(程顥) 정이(程頤) 형제분을 말한다.

17) 낙민(洛閩) : 중국의 지명. 낙수(洛水)에 명도(明道)와 이천(伊川)의 정자(程子) 형제가 있었고, 민중(閩中)에 주자(朱子)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송대(宋代)에 이루어진 정주학(程朱學)을 뜻하는 말이다.

18) 갱장(羹牆) : 돌아가신 성인이나 현철을 사모한다는 말이다. 옛날 요(堯)임금이 별세하자 순(舜)임금이 요임금을 그리워하여 국그릇을 대하여도 국에 요임금의 모습이 어른거리고 담장을 대하여도 담벼락에 요임금의 모습이 어른거린 일을 가리키는바, 곧 선현인 주자와 송자를 사모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19) 창주(滄洲)의 고사 : 주자가 창주정사(滄洲精舍)를 세운 것을 말한다. 남송(南宋) 광종(光宗) 소희(紹熙) 3년(1192)에 주자가 처음으로 건양(建陽)의 고정(考亭)에 서당을 건충했다. 주자가 임창현(臨漳縣)에서 돌아와 거주하는 집 옆에 정사(精舍)를 지어 와서 배우는 자들을 수용할 것을 의논하고, 소희 5년에 죽림정사(竹林精舍)가 낙성되었다. 그 후 이름을 창주정사(滄洲精舍)라고 고쳤다. 이에 낙성식을 올린 다음, 제생들을 거느리고 석채(釋菜)의 예를 선성(先聖) 선사(先師)에게 행하여 서당

행했고, 제도(制度)는 흥농(興農)의 유규(遺規)²⁰⁾에 따라 규모가 몇 칸을 넘지 않았도다. 동서(東西)에 삼가 두 분의 영정 두 폭을 봉안하여 가슴이 울컥하게 다시 그 형상을 뵈게 되었으니, 단청(丹青)이 그 풍모 다 그려내지는 못하더라도 형상이 또한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일세.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은 화상을 함께 우러러 보고, 거대한 대지와 태산처럼 우뚝한 용모를 함께 좇아 오르니, 마치 활을 쏘는 자가 표적을 겨누고 길을 다니는 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듯하여 추향(趨向)이 바야흐로 크게 정해지고,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어 인간의 법도와 윤상(倫常)이 이에 힘입어 보존되었도다.

흑수(黑水)²¹⁾의 화(禍)가 상산(象山, 육상산)²²⁾보다 더욱 심하니 동국의 당론(黨論)이 가증스럽고, 주자의 학문이 파곡(巴谷)²³⁾에서 다시 밝아지니 중화의 적통이 비로소 알려지는구나. 마치 동로(東魯)의 영광전(靈光殿)²⁴⁾처럼 우뚝하니 선비들이 모두 우러르고, 흑 서양(西洋)의 사설(邪說)이 감히 횡행하면 백성들이 아니 따르지 못하리라.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사방의 선비들 모여들겠고, 새가 날게 펴고 날아오르는 듯한 모습으로 한 사당이 이루어졌도다. 그 대들은 짐짓는 일을 잠시 멈추고, 나의 송축(頌祝)하는 노래 들어보라. 어여차²⁵⁾ 들보 동쪽에 떡을 던지니

이 이루어진 것을 고유(告由)하였는데, 이때 주염계(周濂溪)·정명도(程明道)·정이천(程伊川)·장횡거(張橫渠)·소강절(邵康節)·사마온공(司馬溫公)·이연평(李延平) 등 일곱 선생을 모시고 일변일두(一簋一豆)로 제사를 올렸던바, 그에 대한 축문이 있다.

20) 흥농(興農)의 유규(遺規) : 회덕(懷德)의 여러 유생이 흥농(興農)에 우암의 영당(影堂)을 세웠다. 곧 우암의 남간정사(南澗精舍) 옛터에 한 칸의 사당을 세워 주자의 영정을 봉안하고 우암을 배향한 다음 일변일두(一簋一豆)로 제사를 올리면서 이름을 종회사(宗晦祠)라 하였다. 뒤에 남간(南澗)의 동쪽으로 옮겼는데, 그 제도를 조금 넓혀 강당(講堂)과 동서재(東西齋)를 세웠고 춘추의 제향은 회암의 생신일과 사망일로 정하여 행하였다.

21) 흑수(黑水) : 윤휴(尹鑄)를 가리킨다. 윤휴가 살았던 경기 여주(驪州)의 ‘여(驪)’ 자가 ‘검은 말 여’자로 검다는 뜻이 있고 거기에 여강(驪江)이 있으므로 윤휴를 배척하는 측에서 그의 별칭으로 사용하였다.

22) 육상산(陸象山, 1139~1192) : 호는 존재(存齋) 혹은 상산(象山), 시호 문안(文安), 이름 구연(九淵)이다. 귀계(貴溪)의 상산에 강당을 짓고 후학 양성에 전념하여 당시 유일한 석학이었던 주자(朱子)와 대립하여 중국 전체를 양분(兩分)하는 학문적 세력을 형성하였으나, 사상적 계보로는 모두 정자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한때 주자학에 의하여 압도되기도 하였으나, 명대(明代)의 왕양명(王陽明)에 의해 계승되었다.

23) 파곡(巴谷) : 우암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암의 별호가 파곡노인(巴谷老人)이다.

24) 영광전(靈光殿) : 한나라 경제(景帝)의 아들 공왕(恭王)이 세운 궁전으로 춘추 시대 노(魯)나라 땅이던 산둥성(山東省) 곡부현(曲阜縣)에 있었다. 옛 자취가 다 사라진 가운데 홀로 남은 문명을 표상한다.

25) 어여차[兒郎偉] : 아랑(兒郎)은 사내아이. 아랑위는 ‘어여차’의 의성어로서 들보를 어여차 올린다는 뜻이다. 포량(抛擲)은 상량할 때 제사를 올리고 그 제물을 동·서·남·북·상·하의 신명에게 던지는 의식을 말한다. 아랑위는 건물을 상량(上樑)할 때 일꾼들이 ‘어기영차’하며 부르는 노래로 7언 절구 6수로 구성되어 있다.

성주산 속에 상서로운 태양 붉도다
비린내 하늘을 찌르고 풍우가 치는 세상에
청명한 한 기운이 절로 융융하도다

어여차 들보 서쪽에 떡을 던지니
안개 걷힌 십리에 풀빛이 무성하다
구름 낀 봉우리에 노을 지고 갈대 호수에 달 비치니
서기(瑞氣)가 분명하여 빛이 흐리지 않도다

어여차 들보 남쪽에 떡을 던지니
아침햇살 비치는 처마 끝에 제비가 지저귀누나
무궁한 도덕의 본체를 어디에서 뵈오리
한천(寒川)의 가을물이 쪽풀보다 푸르도다

어여차 들보 북쪽에 떡을 던지니
천년 예의지국 기자의 나라로다
주자 이후 송자의 마음이어
추로(鄒魯, 공맹)가 서로 전한 것은 한 글자 직(直)이로세

어여차 들보 위에 떡을 던지니
엄연히 드높게 걸린 두 현인의 화상이여
빈 제단에 우거진 풀 오늘날 천지 같더니
이제부터 우리들이 우러를 곳 있으리라

어여차 들보 아래에 떡을 던지니
즐비한 선비들 학당에 가득하네
모두들 본성 반아 우열이 없으니
이 중에 그 누가 도통을 이을까

삼가 바라건대, 들보를 올린 뒤에 황천께서 보우하시고 영령께서 강림하사, 사기를 모두 쓸

어버려 양구(陽九)²⁶⁾의 막힌 운세를 회복시키고, 밝은 기운 환히 열어 통일(統一)²⁷⁾의 태평 세상 보게 해 주소서.

26) 양구(陽九)의 : 양구는 음양도(陰陽道)에서 수리(數理)에 입각하여 추출해 낸 말로, 4천 5백년 되는 1원(元) 중에 양액(陽厄)이 다섯 번 음액(陰厄)이 네 번 발생한다고 하는데, 1백 6년 되는 해에 양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엄청난 재액(災厄)을 말할 때 쓰는 용어이다. □□한서(漢書)□□「율력지 상(律歷志上)」

27) 통일(統一) : 중화의 문명으로 통일되어 도가 실현되는 세상을 말한다.

④ 告由祝 未奉宴時

維永曆二百五十二年歲次戊戌二月乙卯朔十日甲子後學朝鮮尹錫鳳敢昭告于有宋先師徽國文公晦菴朱夫子之像本朝先正左議政文正公尤庵宋夫子之像小子竊伏惟念國會所迫兩夫子院宇在之毀破撤享已久洋之英靈降臨無所小子不勝悶迫猥以鄉中士友謀建數間茅棟將欲敬奉遺像以為寓慕義牆之地今以移動後學申挾家所奉者為其私室狹陋極涉未妥故也而見今堂役未訖奉日尚遠姑先陪留小子書室敢告

고유 축문(告由祝文)

- 아직 불안하지 않았을 때 고함 -

영력(永曆) 252년 해의 차례는 무술(戊戌, 1898) 2월 을묘삭 10일 갑자에 후학 조선(朝鮮) 윤석봉(尹錫鳳)은 감히 송나라 선사(先師) 휘국문공(徽國文公) 회암(晦庵) 주 부자(朱夫子)의 화상과 본조의 선정(先正) 좌의정(左議政) 문정공(文正公) 우암(尤庵) 송 부자(宋夫子)의 화상에 밝게 아뢰옵니다.

저 소자(小子)는 삼가 생각건대, 국가의 서원철폐령²⁸⁾에 꺾박당하여 두 부자의 사당이 곳곳마다 훼손되고 향사가 철폐된 지가 이미 오래되어 양양(洋洋)한 영령께오서 강림하실 곳이 없사오니, 저는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누를 수 없습니다. 이에 외람되게도 지방의 사우(士友)로서 몇 칸의 초옥을 건립하여 장차 두 부자의 영정을 삼가 봉안하여 갱장(羹牆)의 존모를 붙일 곳을 만들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지금 후학 신헐(申峽)의 집안에서 불안하고 있던 화상을 옮기는 까닭은 사실(私室)이 협소하고 누추하여 지극히 편안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펴보건대 지금 영당을 건립하는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불안할 날씨는 아직 멀어 우선 저의 서실(書室)에 먼저 모시옵기에 감히 아뢰옵니다.

28) 서원철폐령 : 대원군(大院君)이 내린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1865년에 우암이 창건한 만동묘(萬東廟)와 우암을 제향하던 화양서원(華陽書院)에 철폐 명령이 내려졌다. 1868년에는 서원에 하사한 토지도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지방 수령이 서원의 장을 맡도록 했으며, 1870년에는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서원은 사액서원이라도 훼손하도록 하였다.

⑤ 晦菴朱夫子遺像奉安文

維永曆二百五十二年歲次戊戌三月甲申朔十
九日壬寅後學朝鮮坡平尹錫鳳敢昭告于先
師徽國文公朱夫子之像聖降章茂後孔而朱
百千萬年四海九州凡有血氣孰不尊親最取悅
服惟我東人盛德大業固難形容天地定位日月
貞明博約兩至巧力俱全絃誦開未集成羣賢
四子六經梳洗註脚一部綱目麟經繩墨竺教流
毒拯濟生民江西狂瀾不敢滔天二帝北狩力至
討復用扶天常不墜人極至靜至敬傳受瀛洛直

字一訣魯鄒未歷神州空虛運啓海東潭巴綃
興道齊德同言三事之江漢美善牆千載一轍夫子
有光幸茲監縣山武泉寒昔時院墟草沒空
壇山阿寂寞舊跡荒涼後人過此徒切彷徨士
林合謀建茅數間敬摹真像莫狀青丹籩豆
孔嘉嘉儀倣滄洲惟宋文正配侑春秋禮備官具
蘋潔酒香庶幾歆格佑我先彊尚鄉食

회암(晦菴) 주부자(朱夫子) 화상(畵像) 봉안문(奉安文)

영력(永曆) 252년 해의 차례는 무술(戊戌) 3월 갑신삭(甲辰朔) 19일 임인(壬寅)에 후학(後學) 조선 파평(坡平) 윤석봉(尹錫鳳)은 감히 선사(先師) 휘국문공(徽國文公) 주 부자(朱夫子)의 화상에 밝게 아뢰옵니다.

거룩하게 탄강하시어 문장이 성대하기로는
공자(孔子) 이후에 우리 주부자(朱夫子)로다
백년 천년 만년
사해(四海)와 구주(九州)에
무릇 혈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들 존모하지 않으리
그 중에 가장 열복(悅服)하는 이들
우리 동방의 사람이로다

성대한 덕과 위대한 업적은
진실로 형용하기 어렵도다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잡고
해와 달이 찬란히 밝았어라

박학(博學)과 약례(約禮)²⁹⁾가 양면으로 지극하고
지교(智巧)와 성력(聖力)³⁰⁾이 모두 온전하였도다
옛 성인 계승하고 뒷날의 후학 열어주셨으며
여러 현철들의 학설을 모아 집대성하셨도다

29) 박학(博學)과 약례(約禮) : 유교의 정신을 표상하는 양대 골간이다. 공자께서 “군자가 글을 널리 배우고 예로서 요약한다면, 또한 도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子曰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不畔矣夫]”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논어(論語)□□「용야(雍也)」

30) 지교(智巧)와 성력(聖力) : 유교의 발전과 전승을 말한다. 맹자가 말하기를, “시조리(始條理)는 지(智)의 일이요, 종조리(終條理)는 성(聖)의 일이다. 지(智)는 교(巧)에 비유할 수 있고, 성(聖)은 힘[力]에 비할 수 있으니, 백 보(步) 밖에서 쏘는 데 화살이 도착하는 것은 힘이요, 바로 맞히는 것은 교(巧)이며 힘이 아니라.” 한 데서 온 말이다. □□맹자(孟子)□□「만장 하(萬章下)」

사서(四書)와 육경(六經)에
상세히 주석을 달아놓으셨으며
한 부 □□강목(綱目)□□과 □□춘추(春秋)□□에
법도를 밝혀 놓으셨도다

불교가 끼친 폐단에서
생민을 구제하셨도다
강서학과³¹⁾의 미친 물결
감히 하늘에 넘치지 못하였도다

두 황제가 북쪽으로 잡혀 가심에
힘껏 북벌을 주장하였도다³²⁾
천륜을 부식(扶植)하여 일으키고
인륜을 타락하게 하지 않았네

정(靜)을 주로 하고 경(敬)을 주장하여
염락(濂洛)³³⁾의 학문을 전수하였고
직(直)이란 한 글자의 심결(心訣)은
공맹(孔孟)의 내력이었어라

명나라[神州]가 멸망하자
운(運)이 해동 조선에 열려
담파(潭巴)³⁴⁾가 뒤이어 일어나시어

31) 강서학과 : 육상산(陸象山)을 말한다. 육상산이 강서성(江西省) 사람이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호는 존재(存齋) 혹은 상산(象山), 시호 문안(文安), 이름 구연(九淵)이다. 귀계(貴溪)의 상산에 강당을 짓고 후학 양성에 전념하여 당시 유일한 석학이었던 주자(朱子)와 대립하여 중국 전체를 양분(兩分)하는 학문적 세력을 형성하였으나, 사상적 계보로는 모두 정자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한때 주자학에 의하여 압도되기도 하였으나, 명대(明代)의 왕양명(王陽明)에 의해 계승되었다.

32) 송 휘종(宋徽宗) 정강(靖康) 연간에 금(金)나라가 송나라 서울 변경(汴京)을 함락하고 휘종과 흠종(欽宗)을 사로잡아 북으로 가니, 이로써 북송(北宋) 시대가 끝났다. 이때에 주자는 화친을 거부하고 북쪽으로 금나라를 정벌할 것을 힘껏 주장하였다.

33) 염락(濂洛) : 염계(濂溪)의 주돈이(周敦頤)와 낙양(洛陽)의 정호(程顥) 정이(程頤) 형제분을 말한다.

34) 담파(潭巴) : 울곡과 우암을 말한다. 담(潭)은 울곡의 별호인 석담(石潭)이고 파(巴)는 우암의 별호인 파곡노인(巴谷老人)을 뜻한다.

도학과 덕업 나란하였어라
 말씀마다 일마다
 강한(江漢)³⁵⁾이며 갱장(羹牆)이라
 천고의 세월에 자취 같으니
 부자의 광휘 더욱 찬란해라

다행이 이곳 남포현에
 산은 무이산이고 시내는 한천이라
 옛날 서원 터는
 빈 제단에 잡초만 우거져

산 언덕은 적막하고
 옛 자취는 황량하니
 후인들이 이곳을 지나가다
 한갓 애절히 방황할 뿐이로세

이에 사람들이 함께 도모하여
 몇 칸 초옥을 건립하였도다
 삼가 진상(眞像)을 모사하였으나
 도덕풍모를 다 그려내지 못할레라

제향을 매우 정성스레 올리매
 의례는 창주(滄洲)의 고사(故事)³⁶⁾를 따랐도다

35) 강한(江漢) : 돌아가신 선생의 숭고한 덕을 비유한 말이다. 공자 사후에 증자(曾子)가 그 덕을 기려 “강한으로 씻고 추양으로 쬔었으니 밝디 밝아 더할 수 없도다.[江漢以濯之 秋陽以暴之 皜皜乎不可尙已]”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맹자(孟子)□□「등문공 상(滕文公章上)」

36) 창주(滄洲)의 고사 : 주자가 창주정사(滄洲精舍)를 세운 것을 말한다. 남송(南宋) 광종(光宗) 소희(紹熙) 3년(1192)에 주자가 처음으로 건양(建陽)의 고정(考亭)에 서당을 건축했다. 주자가 임장현(臨漳縣)에서 돌아와 거주하는 집 옆에 정사(精舍)를 지어 와서 배우는 자들을 수용할 것을 의논하고, 소희 5년에 죽림정사(竹林精舍)가 낙성되었다. 그 후 이름을 창주정사(滄洲精舍)라고 고쳤다. 이에 낙성식을 올린 다음, 제생들을 거느리고 석채(釋菜)의 예를 선성(先聖) 선사(先師)에게 행하여 서당이 이루어진 것을 고유(告由)하였는데, 이때 주염계(周濂溪)·정명도(程明道)·정이천(程伊川)·장횡거(張橫渠)·소강절(邵康節)·사마온공(司馬溫公)·이연평(李延平) 등 일곱 선생을 모시고 일변일두(一盞一豆)로 제사를 올렸던바, 그에 대한 축문이 있다.

오직 송 문정공(宋文正公)을
봄가을 향사에 배향하였도다

예제(禮制)가 구비되고 예관(祭官)이 갖추어지매
깨끗한 마름풀과 향기로운 술을 올리오니
부디 내려와 흠향하시고
저희를 영원히 보우해 주소서

부디 흠향하소서

⑥ 尤菴宋夫子遺像奉安文

維年踰月日干支同後學坡平尹錫鳳敢昭告于
左議政文正公尤菴宋夫子之像天篤降生運丁上
剝豪傑之姿聖賢之學洛閩全體春秋大用道
東宗祖華夏嫡統語其德尊天高崇巖嚴論其
功大地負海涵深闢密謀思浴乾坤隻拳大陽
洞闢荆榛衛經閑聖倫常賴存不有先生青邱
亦昏然猶在昔虜穢天位又况伊令數敗人紀昔
日之士猶知忍痛今日之人罔知喪性顧瞻宇內誰
能艱彼先生大道幾乎墜地嗚呼先生繼朱子

作言々歩々動遵繩墨幸茲山水名何相當武
夷山下寒泉溪上多士齊誠建茅榼榑晦翁
主壁如侍函遙道同德齊先生躋配儀形儼恭
愀然復覩崇德報叨同無異於侃濟々俎豆斯
舉禮事孔昭庶歆其顧惠我後人永開正路尚
饗

우암(尤菴) 송부자(宋夫子) 화상(畵像) 봉안문(奉安文)

영력(永曆) 252년 해의 차례 무술 3월 갑신삭 19일 임인에 후학 조선 파평(坡平) 윤석봉(尹錫鳳)은 감히 좌의정(左議政) 문정공(文正公) 우암(尤庵) 송 부자(宋夫子)의 화상에 밝게 아뢰옵
니다.

하늘이 호되게 재앙 내리더니³⁷⁾
운수가 상박(上剝)³⁸⁾을 만났도다
호걸스런 자품에
성현의 학문이로다
낙민(洛閔)³⁹⁾ 도통의 온전한 본체요
춘추(春秋) 의리의 위대한 작용이라
도통이 동방의 조종으로 흘러와
중화 문명의 적통이 되셨노라

덕업의 높음을 말해보자면
하늘처럼 높고 태산처럼 우뚝하며
공로의 위대함 논해보자면
대지처럼 거대하고 바다처럼 드넓어라
깊은 궁궐에서 긴밀히 모의한 것은
천지를 일신시키려 생각함이로다
크게 주장하고 사도(斯道)를 주창(主唱)하여⁴⁰⁾

37) □□시경(詩經)□□「대아(大雅) 소민(召旻)」에 “하늘이 위엄을 부리어, 하늘이 호되게 상란(喪亂)을 내리시다[旻天疾威 天篤降喪]”라고 한 것을 인용한 말로, 우암이 태어나 활동한 시대가 매우 어지럽고 혼탁하였음을 비유한 말이다.

38) 상박(上剝) : 박괘(剝卦)의 상구(上九)를 말한다. 박괘는 음(陰)이 성장하고 양(陽)이 소멸하는 때는 때이니, 여러 소인(小人)이 군자(君子)를 박해하는 괘이다. 그러나 상구는 박괘의 마지막 효로써, “큰 과일이 먹히지 않음이니, 군자는 수레를 얻고 소인은 집을 허물리라.[碩果不食 君子得輿 小人剝廬]”하여 음이 극에 달하면 곧 양이 생성하리라는 희망을 말하고 있다.

39) 낙민(洛閔) : 중국의 지명. 낙수(洛水)에 명도(明道)와 이천(伊川)의 정자(程子) 형제가 있었고, 민중(閩中)에 주자(朱子)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송대(宋代)에 이루어진 정주학(程朱學)을 뜻하는 말이다.

40) 주자(朱子)가 진동보(陳同夫)에게 보내는 편지 「답진동보서(答陳同夫書)」에서 “중니(仲尼)가 어찌 지극히 공정하고 피나는 정성을 쏟은 분이 아니겠으며, 맹자가 어찌 거친 주먹을 휘두르고 크게

이단 사설(邪說)을 환하게 물리쳤도다

경전을 보위하고 성인을 옹호하였으니
윤리와 강상이 이 덕분에 보존되었네
선생께서 아니 계셨더라면
동방 역시 어두워졌으리
그럼에도 지난날에
오랑캐가 주상을 더럽혔고
또 더구나 지금은
짐승들이 인륜을 무너뜨리네

지난날의 선비들은
그나마 분통해 했거늘
오늘날의 인사들은
세상이 미친 줄도 모르누나
이 우주 돌아보니
뉘라서 오랑캐 공박하리
선생의 위대한 도가
이제 땅에 떨어지리라

아아, 선생이시여
주자를 계승하여 일어나시어
말씀마다 행보마다
항상 표준처럼 따르셨네
다행이 이곳 산수가
이름이 어찌나 꼭 같은지
무이산(武夷山) 아래요
한천계(寒泉溪) 위로다

발길 질한 분이 아니겠는가?〔仲尼豈不是至公血誠 孟子豈不是巖拳大錫〕” 하여 이단과 사설(邪說)을 물리치기 위해 온 노력을 다한 맹자를 표현한 말이다. □□회암집(晦庵集)□□. 여기서는 우암이 이단과 사설(邪說)을 물리치기 위해 필생의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한 찬사로 쓴 표현이다.

선비들 정성모아
몇 칸의 사당 세웠도다
회옹(晦翁, 주자)께서 주벽(主壁)이니
마치 함연(函筵)⁴¹⁾에 모신 듯 하네
도학과 덕업이 나란하니
선생께서 배향되셨네
풍모가 엄연하고 공경스러우니
마음이 슬퍼져 다시 우러르네

덕 있는 이 높이고 공 있는 이 보답하노니⁴²⁾
두 분이 똑같아 다를 바 없어라⁴³⁾
어진 선비들 가득히
제사의 예를 올리웁니다
제례의 일 크게 밝으니
받으시고 돌보아 주시오며
후학들에게 은혜 주시어
정로를 영원히 열어주소서

부디 흠향하소서

41) 함연(函筵) : 선생이나 장자(長子)를 모신 자리. 제자는 스승의 자리와 한 발[一丈]의 거리를 둔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42) □□서경□□「무성(武威)」에 “신을 돈독히 하고 의리를 밝히며, 덕 있는 이를 높이고 공 있는 이를 보답하니, 의상을 드리우고 팔짱을 낀 채로 천하가 다스려졌다. [惇信明義 崇德報功 垂拱而天下治]”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주자와 송자의 덕을 높이고 공에 보답한다는 말이다.

43) 원문에 “()同無異”로 한 글자가 빠져 있다.

⑦ 集成堂記

竊惟自堯舜以來精一執中集羣聖而大成者孔子也自孔子以來博約而全集羣賢而大成者朱子也自朱子以來明誠俱到集羣儒而大成者宋子也然則朱子孔聖後一人宋子朱子後一人也其故何也周室東遷諸侯僭亂天必生一孔子為天王作春秋以明天下大一統之義宋帝北狩戎狄亂華生一朱子為嗣皇主討復以明不共戴天之義明社南絕醜虜據位又生一宋子為大君守藩邦以明萬世必報之義天之生此

三夫子應一治之運是豈偶然而然哉嗚呼氣數
之迫天亦無奈何而然於其時也使大綱大法不墜
於地是乃純坤之時陽無可盡之理也若無此三
夫子天地崩摧日月薄蝕華夷無分人獸未判
詩書禮樂淪於蕞壤綱紀倫常化為詖淫矣
其於後生尊奉三夫子豈特報死以力而已哉
雖然孔聖天地也尚矣朱宋之間雖不無生熟勞
逸之分以其所值之時有大小難易之別故也何
者朱子之時香孩基址猶有六千里之大宋子
之時大明江山無復九泥之可言則只以天下虛

影紙上空言摧陷廓清用功豈不百倍其難哉不但如此黑水之禍甚於江西狂瀾宋子之學因此分裂幾乎息矣嗚呼邪不勝正理之常也屈者必伸氣之正也天日孔昭無微不燭先生大道燬爛復明者二百餘年矣奈之何天不悔禍兩夫子院宇在空壇繼之以西鬼邪說充滿宇內堯舜孔孟視之局見況以下代朱宋為何如人耶如此則兩夫子集成之道不但不容於世必滅乃已是以藍邑士類痛恨世教之陵夷齊誠建茅敬摹兩夫子遺像春秋蘋藻

朔望會集讀其書講其道以防世變其勢雖
若一葦抗海寸木支厦亦為天地立心為生民
立道異日陽復之基安知其不在此歟噫古人雖
有用尸塑之禮今茲七分繪像恐不害於神明
之所依則鄉人之此舉亦足為小伸抑鬱之私情
也工役告訖茅棟增新諸意屬我而揭其實
事堂曰集成謹以平日所聞於師友者敢陳瞽
說或無犯代斷傷手之譏也耶後人之登拜此
堂者瞻仰海濶天高泰巖地負之像則顧此
遣辭無異傾蠡酌海操尺度天何敢曰形容大
德也姑記是說深有望於來人之修濶也

집성당기(集成堂記)

삼가 생각건대 요순(堯舜) 이래로 정밀하고 전일하여 중도(中道)를 행하시며⁴⁴⁾, 여러 성인들의 말씀을 모아 집대성(集大成)한 분은 공자(孔子)이고, 공자 이래로 박학(博學)과 약례(約禮)를 양면으로 온전히 하며 여러 현인들의 말씀을 모아 집대성한 분은 주자(朱子)이다. 그리고 주자 이래로 명(明)과 성(誠)에 모두 도달하며 여러 유자(儒者)들의 말씀을 모아 집대성한 분은 송자(宋子)이다. 그렇다면 주자는 공성(孔聖, 공자) 이후 한 분이고, 송자는 주자 이후 한 분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주(周)나라 왕실이 동쪽으로 도읍을 옮기매 제후가 참람하고 어지러우니 하늘이 반드시 한 분의 공자를 내시어 천하의 왕들을 위해 □□춘추(春秋)□□를 지어 ‘천하대일통(天下大一統)’의 의리를 밝히고, 송(宋)나라의 두 황제가 북쪽으로 잡혀 가심에⁴⁵⁾ 금(金)나라 오랑캐들이 중화(中華)를 어지럽히니 또한 한 분 주자(朱子)를 내시어 황제를 위해 토벌(討伐)과 수복(收復)을 주장하여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의리를 밝혔으며, 명나라가 남쪽으로 내려와 멸망한 뒤 흉악한 청나라 오랑캐들이 천위(天位)를 차지하매 또 한 분의 송자(宋子)를 내시어 대군(大君)을 위해 변방(藩邦)을 지켜 ‘만세필보(萬世必報)’의 의리를 밝혔다. 하늘이 이 세 분의 부자(夫子)를 내시어 일치(一治)⁴⁶⁾의 천운에 부응한 것이 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아! 기수(氣數)가 궁박하여 하늘 또한 어찌할 수 없어서, 이때에 이 분들로 하여금 대강(大綱)과 대법(大法)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이는 바로 순전한 음기(陰氣)가 극성한 때라도 양기가 완전히 소멸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 세 분의 부자(夫子)가 없었더라면 천지가 붕괴하고 일월(日月)이 빛을 잃어 중화와 오랑캐가 구분이 없고 사람과 짐승이 분별이 되지 않았을 것이며, 시서(詩書)와 예악(禮樂)이 더러운 곳에 빠지고 기강(紀綱)과 윤상(倫常)이 부정할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후생이 세 분 부자를 존모하여 모실 때에 어찌 한갓 힘을 다해 죽음으로 갚을 뿐이겠는가.

44) 정밀하고 전일하여 중도를 행하시며 : 정일집중(精一執中)의 심법(心法)을 말한다. □□논어□□「요왈(堯曰)」에, “요(堯) 임금의 말씀하기를, ‘아! 순(舜)아, 하늘의 역수(曆數)가 네 몸에 있으니, 너는 진실로 그 중도(中道)를 잡으라.[允執厥中]’ 했다.” 하였으며, □□서경□□「대우모(大虞謨)」에 순 임금의 우(禹) 임금에게 선위(禪位)하면서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隱微)하니, 정히 살피고 한결같이 하여야 진실로 그 중도를 잡을 수 있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하였다. 이후 이것은 유가의 심결(心訣)이 되었다.

45) 송 휘종(宋徽宗) 정강(靖康) 연간에 금(金)나라가 송나라 서울 변경(汴京)을 함락하고 휘종과 흠종(欽宗)을 사로잡아 북으로 가니, 이로써 북송(北宋) 시대가 끝났다. 이때에 주자는 화친을 거부하고 북쪽으로 금나라를 정벌할 것을 힘껏 주장하였다.

46) 일치(一治) : 천하가 한 번 어지러워진 뒤 한 번 찾아오는 태평 정치의 시대란 의미이다.

비록 그렇지만 공자께서 천하에 성인이 되신 지는 오래되었다. 그것은 그렇거니와 주자와 송자의 차이는 비록 생소하고 익숙하며 수고롭고 편안한 구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만년 시대에 대소(大小)와 난이(難易)의 구별이 있었던 까닭이다. 무슨 말인가.

주자의 시대에는 향해(香孩)⁴⁷⁾의 국토가 그나마 6천리 정도 광대하게 남아있던 때였으나, 송자의 시대에는 명나라의 강산이 한 줌의 땅덩어리조차 회복하리라고 말할 수 없는 때였다. 사정이 이러한 즉, 다만 천하의 힘없는 영향과 종이 위의 속절없는 말로 이단을 물리치고 오랑캐를 쓸어낼 때 공력을 씀이 어찌 백배나 어렵지 않겠는가. 비단 이러한 뿐만 아니라 흑수(黑水)⁴⁸⁾의 화가 강서(江西)⁴⁹⁾의 거친 물결보다 더욱 심했으니, 송자의 학문이 이 때문에 분열되어 거의 멸식되었다.

아! 사도(斯道)가 정도를 이기지 못함은 이치의 떳떳한 법칙이요, 굽은 것이 반드시 펴쳐지는 것은 기운의 정당한 흐름이니, 태양이 크게 빛나 비추지 않는 곳이 없으며 선생의 대도(大道)가 찬란하게 다시 밝아진 지가 2백여 년이 되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늘은 뉘우치지 않아 두 부자의 사당과 서원에 화를 내리시어 곳곳마다 빈 제단이 되어버렸단 말인가. 그리고 서양 오랑캐들의 사설(邪說)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 요순(堯舜)과 공맹(孔孟)을 좁은 소견의 인물로 보는 형편이거니, 더구나 뒷시대 주자와 송자 두 분이야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형편이 이렇고 보면 두 부자께서 집대성한 도가 세상에 용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필시 멸절(滅絶)하고야 말 것이다.

이런 까닭에 남포고을의 선비들이 세교(世敎)가 쇠퇴한 것을 통렬히 한스러워하여 정성을 모아 초당을 짓고 삼가 두 부자의 화상을 그려 봉안한 다음, 봄가을로 조출하게 제향을 올리고 초하루보름으로 모여 그분들의 글을 읽고 그분들의 도를 강마(講磨)하여 세도가 변하는 것을 막았다. 그 형세가 비록 조각배로 거친 파도를 헤치는 것과 같고 작은 나무로 큰 집을 지탱하는 것과 같지만, 또한 천지(天地)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생민(生民)을 위하여 도를 세우는 것⁵⁰⁾이 되니, 뒷날 양기를 회복할 기반이 여기에 있지 않을 것으로 어찌 알라.

47) 향해(香孩) : 송(宋)나라 태조를 지칭하는 말로, 송 태조의 출생시 병영 중에 3일 동안 기이한 향기가 넘쳤으므로 낙중(洛中)의 사람들이 응천선원(應天禪院)을 향해 아영(香孩兒營)이라고 불렀다. □□공씨담원(孔氏談苑)□□ 여기서는 단순히 송나라 자체를 가리킨다.

48) 흑수(黑水) : 윤휴(尹鑄)를 가리킨다. 윤휴가 살았던 경기 여주(驪州)의 '여(驪)' 자가 '검은 말'의 자로 검다는 뜻이 있고 거기에 여강(驪江)이 있으므로 윤휴를 배척하는 측에서 그의 별칭으로 사용하였다.

49) 강서(江西) : 육상산(陸象山)을 말한다. 육상산이 강서성(江西省) 사람이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호는 존재(存齋) 혹은 상산(象山), 시호 문안(文安), 이름 구연(九淵)이다. 귀계(貴溪)의 상산에 강당을 짓고 후학 양성에 전념하여 당시 유일한 석학이었던 주자(朱子)와 대립하여 중국 전체를 양분(兩分)하는 학문적 세력을 형성하였으나, 사상적 계보로는 모두 정자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한때 주자학에 의하여 압도되기도 하였으나, 명대(明代)의 왕양명(王陽明)에 의해 계승되었다.

아! 슬프다. 고인들께서야 비록 동상을 세워 모시는 예를 행했으나 지금은 흡사하게 화상을 그려 모시니, 아마神明께서 의지하시기에 해롭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즉 고을 사람들의 오늘 이 거사는 또한 족히 억울한 개인적인 마음을 조금이나마 펼 수 있게 할 것이다. 공사를 마치고 영당이 새롭게 지어지자 많은 분들께서 나에게 기문을 지어 전말의 사실을 계양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의 이름은 집성당(集成堂)이다. 삼가 평소 사우(士友)들께 들은 바를 가지고 감히 식견 없는 말씀을 펴노니, 혹 대작상수(代斲傷手)⁵¹⁾라는 꾸지람을 듣지는 않겠는가. 후인들 가운데 이 집성당에 올라 배알하는 자들이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으며 태산처럼 우뚝하고 대지처럼 드넓은 두 부자의 화상을 우러러 뵈을 것이다. 그런즉 돌아보건대 이 글은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기늠하거나 자를 쥐고 하늘을 재는 것⁵²⁾과 다를 바 없으니, 어찌 감히 두 부자의 큰 덕을 형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선 이 내용을 기록하노니 훗날 사람이 수정하고 윤색할 것을 깊이 바란다.

50) □□근사록(近思錄)□□에서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생민을 위하여 도를 세우고, 지나간 성인을 위하여 끊어진 학문을 계승하고 만세를 위하여 태평을 열어야 한다.[爲天地立心 爲生民立道 爲去聖繼絕學 爲萬世開太平]”라고 한 것을 인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51) 대작상수(代斲傷手) : 자신이 문장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한 말이다. □□노자(老子)□□ 74장에 “거장(巨匠) 대신 칼을 휘두를 경우 손을 다치지 않는 때가 거의 없다.[夫代大匠斲 希有不傷其手矣]”라고 하였으니, 문장에 뛰어난 대가 대신 자신이 집성당 기문을 짓다가 도리어 일을 그르치고 말았다는 비방을 받지나 않겠나 하는 뜻이다,

52) 반고(班固)의 「유통부(幽通賦)」에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고 대롱 구멍으로 하늘을 본다.[既傾蠡而酌海 遂側管而窺天]”라고 한 것을 원용한 표현이다. 자신의 집성당기가 주자와 송자의 덕을 도저히 형용할 수 없다는 겸사이다.

⑧ 春秋享祀儀節增刪滄洲釋菜儀

前期獻官以下皆盛服至門外掌議帥執事者
設執板于朱子影像卓前少右宋子影像前
亦如之設香案于卓前設茅沙于香案前設
祭器于兩位卓上各左一盞一豆設尊一于堂上東
南隅加勾欄設洗二於阼階之東盥洗在東卓一
於洗東卓上箱二東箱盛巾西箱盛爵置奉爵盤一設獻官位於

堂下北面諸生次之亦北面西上及期獻官以下序
立於東牆下西向北上掌議帥執事升堂實酒
于尊實脯果于盞實菜于豆贊者一人引獻

官升堂點閱降就堂下位諸生亦就位贊者一人進立於獻官之右西向告曰再拜獻官以下在位者皆再拜掌議司祝司尊皆升掌議立於東序西向祝立於阼階上西向司尊立於尊南北向贊引獻官詣盥洗之南北向立盥手帨手升焚香再拜降再詣盥洗如初詣爵洗南北向立取一爵洗之以授贊俱升詣尊所西向立贊以爵授獻官司尊舉罍酌酒獻官以酌授贊俱詣朱子位前獻官北向跪贊跪授爵獻官執爵三祭于茅沙奠爵於籩簋之間俛伏興退立香案前祝執

版詣獻官之左東向跪讀朱子位祝文訖興復
位獻官再拜降詣盥洗如初爵洗如初詣宋子
位奠爵如前儀獻官以下降復位與在位者皆
再拜掌議帥執事者升撤陳設乃退

춘추 향사 의절(春秋享祀儀節)

- 창주정사(滄洲精舍)의 석채례(釋菜禮) 의절을 가감한 것이다 -

향사 시기 전에 헌관(獻官) 이하는 모두 성복(盛服)을 하고 문밖에 이른다.

장의(掌議)로서 집사(執事)를 거느리는 자가 주자영정탁(朱子影幀卓) 앞 조금 오른쪽에 집판(執板)을 설치한다.

송자(宋子)의 영정 앞에도 똑같이 한다.

탁자 앞에 향안(香案)을 설치한다.

향안 앞에 모사(茅沙)를 설치한다.

두 위(位)의 탁자 위에 제기(祭器)를 설치하되, 각각 왼쪽에 일변(一邊) 일두(一豆)로 한다.

당(堂) 위의 동남쪽 모퉁이에 술동이[尊]를 설치하고, 구막(句幕)을 더한다.

조계(階階, 동쪽 계단)의 동쪽에 세(洗, 그릇) 두 개를 설치한다. 관세(盥洗)는 동쪽에 두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둔다.

세(洗)가 있는 동쪽에 탁자를 하나 마련하고, 탁자 위에 상자(箱子) 두 개를 놓아둔다. 동쪽의 상자에는 수건을 담고, 서쪽의 상자에는 술잔[爵]을 담는다. 술잔을 받치는 쟁반 하나를 놓아둔다.

당 아래 헌관(獻官)의 자리를 설치하되, 북쪽으로 바라보게 한다.

제생(諸生)들이 그 다음으로 하되 역시 북쪽을 대하고 서쪽에 오른다.

때가 되면 헌관(獻官) 이하가 차례로 동쪽 담장 아래 서서 서쪽을 향하고, 북쪽에 오른다.

장의(掌儀)가 집사(執事)를 거느리고 당에 올라 술동이(尊)에 술을 채운 다음, 변(邊)에 포와 과일을 담고 두(豆)에 채소를 담는다.

찬자(贊者) 한 사람이 헌관을 인도하여 당에 올라 점검한 다음 내려와 당 아래 자리에 나아간다.

제생(諸生)들 역시 자리에 나아간다.

찬자 한 사람이 앞으로 나가 헌관의 오른쪽에 서서 서쪽으로 향하여 말한다. “재배(再拜).”

헌관 이하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재배한다.

장의(掌議), 사축(司祝), 사준(司尊)이 모두 당에 올라간다.

장의는 동서(東序)에 서서 서쪽으로 향하고, 사축(司祝)은 조계(階階) 위에 서서 서쪽으로 향하고, 사준(司尊)은 준(尊)의 남쪽에 서서 북쪽으로 향한다.

찬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盥洗)의 남쪽에 이르러 북쪽으로 향해 선다.

손을 씻은 다음 손을 닦는다. 올라가 분양한다.

재배한 다음 내려와 다시 관세(盥洗)에 이르러 처음처럼 한다.

작세(爵洗) 남쪽에 이르러 북쪽으로 향해 선다.

잔 하나를 가져다 씻어서 찬자에게 준다.

찬자와 함께 당 위에 올라 준(尊)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서쪽으로 향해 선다.

찬자가 잔[爵]을 헌관에게 준다.

사준이 먹(罍)을 들어 술을 따른다.

헌관이 따른 술을 찬자에게 준 다음, 함께 주자(朱子)의 위(位) 앞에 이른다.

헌관이 북쪽으로 향하여 꿇어앉는다.

찬자가 꿇어앉아 잔을 준다.

헌관이 잔을 잡고 모사(茅沙)에 세 번 제(祭)를 올린 다음, 변(邊)과 두(豆) 사이에 잔을 둔다.

부복(俯伏, 엎드림)한 다음 일어나 물러난다.

향안(香案) 앞에 선다.

사축(司祝)이 판(版)을 잡고 헌관의 왼편에 이르러 동쪽으로 향한다.

주자의 위(位) 앞에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축문을 다 읽고 나면 일어나 다시 제자리에 간다.

헌관이 재배하고 내려와 관세(盥洗)에 이르러 처음같이 하고, 작세(爵洗)도 처음같이 한다.

송자의 위(位)에 이르러 술잔을 놓는 것을 이전의 의식과 같이 한다.

헌관 이하는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자리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모두 재배한다.

장의로서 집사를 거느린 자가 올라가 진설을 철상한 다음 물러난다.

⑨ 春秋享祀祝文

中興瀛洛上接魯鄒德合天地萬世澤流時值
仲春秋恭獻洞酌睟茲東表佑我無斁

朱子位

洛閩全體春秋大用集羣儒成百世仰頌仲春秋
中丁敢薦一籩斯文在茲永垂億年

宋子位

춘추 향사 축문(春秋享祀祝文)

중간에 염락(濂洛)⁵³⁾의 도통 부흥시키고
위로는 공맹의 학문에 접하였네
덕은 천지에 합하여
만세토록 은택 흐릅니다
때는 중춘(중추)을 만나
공손히 맑은 술 올립니다
우리 동방 돌보시어
영원이 보우해 주소서

주자위(朱子位)

낙민(洛閩)⁵⁴⁾ 도통의 온전한 본체요
춘추(春秋) 의리의 위대한 작용입니다
여러 유자(儒者)의 학설 집대성하여
백세의 추앙받는 사표입니다
중춘(중추)의 중정일(中丁日)⁵⁵⁾에
감히 조출한 제수 올립니다
사문(斯文)이 여기에 있으니
억년토록 영원히 전해지리

송자위(宋子位)

53) 염락(濂洛) : 염계(濂溪)의 주돈이(周敦頤)와 낙양(洛陽)의 정호(程顥) 정이(程頤) 형제분을 말한다.

54) 낙민(洛閩) : 중국의 지명. 낙수(洛水)에 명도(明道)와 이천(伊川)의 정자(程子) 형제가 있었고, 민중(閩中)에 주자(朱子)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송대(宋代)에 이루어진 정주학(程朱學)을 뜻하는 말이다.

55) 중정일(中丁日) : 한 달을 3분 배열하여 10일 내에 해당하는 정일(丁日)은 상정(上丁), 20일 내에 해당하는 정일은 중정(中丁), 30일 내에 해당하는 정일은 하정(下丁)이라 한다. 옛날 사당의 제향을 봄에는 2월, 가을에는 8월에 지냈는데, 첫 번째 정일을 초정(初丁)·상정(上丁)이라 하여 문묘(文廟)·향교(鄉校)에서 행사하였고, 서원(書院)이나 기타 사당에서는 중정에 행사하였다.

⑩ 影幀奉安後書告同衆諸公

同社講未尹錫鳳謹以尺書敢稟于同衆諸公衆會之座嗚呼斯文將墜陽道不反歐天潢邪之氣乘虛騁恠充塞宇內之餘遂及東表哀我無知與之俱化服飭器用言語文字法律政教官坊軍制無一不洋不復見華夏舊章之或存嗚呼慟矣吾其奈何然嘗聞之斯文無終廢之理陽道有必伸之日信其斯言也宜莫如此時也鄧生猥從諸公之後設此集成堂敬奉朱宋兩夫子遺像讀其文講其道將欲補線

扶脉苟或兩夫子在天之靈感此齊誠控訴上帝陰隲下民一撥轉回則今日衣冠之會講學之事雖若萬山枯木一葉獨青待到陽生均布春氣則陰崖寒谷同發光榮矣此理甚分明愚不敢妄也何以謂斯文無終廢之理陽道有必伸之日也三綱五常人之大倫正性也四子六經之大法正教也一失此倫性即夷狄也禽獸也一廢此法教即異端也邪說也天既降此民賦之以正性係之以大倫而苟或失之則使之復其性明其倫者非四子六經無以行其法施其教也故雖大亂無道之時性往有出類而見者生乎其間

苦心血誠講明此道力扶廉瀾正如天道有陰陽兩端而進退消長注未屈伸之理也此無乃斯文無終廢之理陽道有必伸之日也耶然而自堯舜至周公則皆得其位以治其亂其功易矣自孔子至宋子則不但以不得位為言取遭之禍愈下愈大用切豈不難哉嗚呼孔聖太極也至尊而無對也今以朱宋兩夫子特為崇奉者其道學德業亦有過於顏曾思孟周程張邵靜退栗沙也以其所值之時節節相符而扶植三綱五常之道梳洗四子六經之文未有

若兩夫子之明且盡者也故讀兩夫子之文則
斯文未墜於地講兩夫子之道則陽道必反於
天只此二事足以敵禽獸大一統之運而野戰之
龍尤見其強於百萬熊虎之將也此區區之賤
忱不能不厚望於一時窮山抱經之諸公也嗚
呼古人有獄中受尚書者舟中講大學者今日
吾屬危急之秋不啻東漢存亡之決殆甚宋
末則講學一事尤不可緩也朱子曰鐵輪轉於
頂上不撓心目宋子曰截頭穴胷斷置已久觀
此兩夫子之言則若不辦得一死字豈有能做得

成者守嗚呼唏噫言蓋不足以盡其情也伏
願諸公明教焉

永曆二百五十二年戊戌三月日坡平尹錫鳳再
拜

영정(影幀)을 봉안(奉安)한 뒤에 동참한 여러분께 써서 알림

본 결사(結社)의 말석(末席)에 참석한 윤석봉(尹錫鳳)은 삼가 짧은 글로 감히 동참한 여러분 앞에 감히 아뢰입니다.

오호라. 사문(斯文)이 장차 추락하고 양도(陽道)가 회복되지 않아, 하늘을 몰아치는 음사(陰邪)한 기운이 허함을 타고 요사한 짓을 제멋대로 하더니, 우주에 가득한 나머지 마침내 동방에 까지 미쳤습니다. 불쌍한 우리 무지한 사람들은 함께 동화되어, 복식(服食)·기용(器用)·언어(言語)·문자(文字)·법률(法律)·정교(政敎)·관방(官坊)·군사제도에 이르기까지 도대체가 모두 서양 것이며, 중화의 옛 문물이 보존된 것이라곤 다시는 볼 수 없으니, 아! 애통합니다. 우리들이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일찍이 듣건대, 사문(斯文)이 끝내 멸절(滅絶)할 리는 없고 양도(陽道)는 반드시 퍼질 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어본다면 의당 오늘날 보다 더 절실한 때가 없습니다.

못난 저는 외람되게 여러분들의 뒤를 좇아 이 집성당(集成堂)을 건립하고 삼가 주자와 송자 두 부자의 화상을 봉안한 뒤, 그분들의 글을 읽고 그분들의 도를 강마하여 장차 끊어지려는 도통의 맥을 보충하고 부지(扶持)하려 하였습니다. 진실로 혹 하늘에 계시는 두 부자의 영령께서 우리들이 모은 이 정성에 감격하신다면, 오늘날 동방의 사정을 상제께 아뢰어 호소하여 하민들을 음우(陰佑)해 주시고 한결같이 바로잡아 만회하도록 해 주소서. 그렇게만 된다면 오늘날 선비들이 모여 강학(講學)하는 일이 비록 만산(萬山)의 마른 나무가 한 잎새만 유독 푸른 경우와 같다 하더라도 양기가 생겨나 봄기운이 골고루 퍼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즉, 그늘진 벼랑과 추운 골짜기에서 동시에 광영(光榮)이 발할 것입니다. 이 이치가 매우 분명하니 제가 감히 망녕되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근거로 사문이 끝내 멸절할 리는 없고 양도는 반드시 퍼질 날이 있다고 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삼강(三綱)과 오륜(五倫)은 인간의 큰 윤리요 바른 본성이며, 사서(四書)와 육경(六經)은 인간의 큰 법이요 바른 가르침입니다. 한 번 이 윤리와 본성을 잃어버리면 곧 오랑캐요 짐승이며, 한 번 이 법과 가르침을 폐하고 나면 곧 이단이요 사설(邪說)입니다. 하늘이 이미 이 백성을 낸 다음, 바른 본성으로 품부해 주시고 큰 인륜으로 붙잡아 주셨는데, 만약 혹시라도 잃어버린다면 본성을 회복시켜주고 윤리를 밝혀주는 것은 사서와 육경이 아니면 그 법을 행할 수 없고 그 가르침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크게 어지러운 무도한 시대라도 왕왕 우뚝하게 뛰어나 정견을 가진 이가 그 사 이에 출현하여, 고심(苦心)과 혈성(血誠)으로 이 유교의 도를 강명하여 쓰러지고 침몰한 풍속

을 힘껏 부지하기 마련이니, 이것은 바로 천도(天道)에 음양(陰陽)의 두 단서가 있어서 진퇴(進退), 소장(消長) 왕래(往來), 굴신(屈伸)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문이 끝내 멸절할 리가 없고 양도는 반드시 퍼질 날이 있다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순(堯舜)임금으로부터 주공(周公)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지위를 얻어서 그 어지러움을 다스렸으니 공로가 쉬운 편이었거니와, 공자로부터 송자에 이르기까지는 다만 지위를 얻지 못한 것으로 말을 할 것만이 아니라 만난 화(禍)가 시대가 내려오면 올수록 더욱 크니 용공(用功, 공을 들임)이 어찌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아! 공자는 태극(太極)과 같은 분이라 지극히 존귀하여 짝할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자와 송자 두 부자만을 특별히 숭봉(崇奉)하는 것은 그분들의 도학과 덕업이 안자(顏子)·증자(曾子)·자사(子思)·맹자(孟子)·주자(周子)·정자(程子)·장자(張子)·소자(邵子)·정암(靜庵)·퇴계(退溪)·율곡(栗谷)·사계(沙溪)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만난 시대가 구구절절(句句節節) 서로 부합하여 삼강 오륜의 도를 부식하고 사서 육경의 문장을 소통한 공로로 보자면 두 부자만큼 명쾌하고 극진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부자의 글을 읽으면 사문이 땅에 추락하지 않고, 두 부자의 도를 강마하면 양도(陽道)가 반드시 천하에 회복될 것이니, 오직 이 두 가지 일만이 죽히 짐승들을 물리치고 천하를 대일통(大一統)할 운수를 회복할 수 있고, 들판에서 싸우는 용(龍)⁵⁶⁾이 백만의 옹호(熊虎)보다 강건한 장수임을 더욱 더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못난 저의 천박한 마음이 한 때의 궁벽한 산에서 경륜을 품고 있는 여러분들께 깊이 바라지 않을 수 없는 점입니다.

아! 고인들 가운데는 옥중에서 □□상서(尙書)□□를 받아 강학한 분⁵⁷⁾도 있고 배 안에서 □□대학(大學)□□을 강론한 분⁵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위급한 시대를 만난 것은 동한(東漢, 전한)에 비할 바가 아니고 존망이 결판나기론 송나라 말엽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런즉 강학하는 한 가지 일은 더욱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자께서 말씀하시길 “쇠바퀴가 정수

56) 들판에서 싸우는 용(龍) : □□주역(周易)□□「곤괘(坤卦)」의 상육(上六)에 “용(龍)이 들에서 싸우니, 그 피가 검고 누렇다.[上六 龍戰于野 其血玄黃]”한 것에서 인용한 말이다. 음이 극성하여 곧 양이 회복될 시기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57) 옥중에서 상서를 받아 강학한 분 : 후한의 승상 황패(黃霸)를 말한다. 한 선제(漢宣帝)가 한 무제(漢武帝)의 묘호(廟號)를 올리려고 하니 신하들이 모두 찬성하였다. 그러나 유독 하후승(夏侯勝)만이 반대하면서, 무제가 비록 국토를 넓힌 공은 있으나 군사를 많이 희생시키고 재력(財力)을 허비하였으며 사치가 심했으므로 온당치 못하다 하였다. 이때 승상인 황패가 그를 탄핵하지 않았다. 그래서 둘이 하옥되었는데, 이때 황패가 하후승에게 상서를 받아 읽으며 두 해 겨울을 보냈다. □□전한서(前漢書) 권89□□

58) 배 안에서 대학을 강론한 분 : 육수부(陸秀夫)를 말한다. 송(宋)나라가 금(金)나라 군사에게 쫓기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배 안에서 승상(丞相) 육수부(陸秀夫)가 매일 □□대학장구(大學章句)□□를 써서 임금에게 강마할 것을 권하였다. □□송사(宋史) 권451□□

리를 지나간다 해도 눈도 깜짝 하지 않는다.” 하였고, 송자께서 말씀하시길 “머리를 자르고 가슴에 구멍내는 일을 단념해둔지 오래되었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부자의 말씀이니, 만약 ‘사(死)’라는 한 글자를 깨닫지 않았다면 어찌 이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아! 슬프도다. 말은 대개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여러분들께서 밝게 가르쳐 주소서.

영력(永曆) 252년 무술 3월 모일 파평(坡平) 윤석봉(尹錫鳳)이 재배(再拜)함.

⑪ 集成堂上標文

伏以 天地自有一元氣惟吾道相始終
俎豆以享百世師乃後學所尊奉 惟我晦

菴九菴兩夫子

以豪傑英雄之姿洙泗濂洛前
鍾山河間氣而出陶坡潭溪大

聖之統緒是承 六經疏四子註大有功於斯文
賢之淵源得正 一言闢復手擎自任重於當世
繼往聖而開來學 萬古師門之嫡傳 非徒道學之先
明天理而正人心 百代儒家之模範 且其遭值之令
後同揆 靖康北狩以來志恒切於締堂興復 志

昔相符 疆奮下城之沒痛益深於神州陸沉 誓
春秋之尊攘堂之大義 若其殊塗異言可見邪
乾坤之整頓斷之苦衷 噫彼禍網厄會乃知屈
不能勝正 不幸氣數之窮莫近日若 三千里疆
而必有伸 遂令寰宇之大奈長夜何 五百年禮
域山川未免混於腥穢 不但先聖之教掃如
樂文物亦將歸於蘧篠 幾乎生人之道熄矣
肆於藍湖一境有諸君子倡論况茲新安之院
建以茅屋數間奉二先生遺像又於興農之堂
遺墟尚存 齊誠并力皆知尊於七分真容 景

舊例可倣 衛道闢邪庶有補於一線陽脉 洪

星慶雲泰山喬嶽之像儼若臨止焉 所以士釋

河砥柱大冬寒松之姿狀如復見也 能使工殫

經而董事 輪焉煇焉旣表鄉邦觀感之所 敢

巧而葵功 完矣美矣允合司祝并降之儀 用

將頌禱之辭

效敬慕之悃

兗郎偉拋標東武夷山色古今同寒泉正脉華

陽水學海真源溯此中

兗郎偉拋標西道欲升高必自低要識師門心

法在滄洲明月照蘓堤

兎郎偉拋標南先師謨訓後生諳升堂是日瞻
繪像親炙依如席間函

兎郎偉拋標北九野寒威方閉塞會待一陽地
底雷羣陰盡虜昭陽德

兎郎偉拋標上景行行止高山仰莫歎正路榛
蕪多尚有昏衢日月朗

兎郎偉拋標下青衿濟々誦風雅千秋崇報
康無愆蘋藻惟馨薦玉聲

伏願上標之後

廟貌長新

文學彬之也國家挽唐

儒教正闡

絃歌洋溢乎鄉里成鄒

虞三代之治

將救末流頹靡之弊

魯一變之俗

永為斯道扶護之方

著雍閭茂秦之下瀚東陽申應善謹題

집성당 상량문(集成堂上樑文)

삼가 생각건대, 천지엔 본디 일원(一元)의 기운이 있어 오직 우리 유도(儒道)만이 서로 시종(始終)을 같이 하나니, 조두(俎豆)에 제물을 차려 백세의 스승을 제사함은 바로 후학이 존숭하여 받들어 행할 것이로다.

우리 회암(晦菴) 우암(尤菴) 두 부자께서는, 호걸과 영웅의 자품으로 산하(山河)의 우뚝한 기운 받아서 나셨도다. 수사(洙泗)⁵⁹⁾와 염락(濂洛)의 학문은 앞 시대 성인의 도통을 계승한 것이고, 도파(陶坡)⁶⁰⁾와 담계(潭溪)⁶¹⁾의 학문은 큰 현철(賢哲)의 바른 연원을 얻은 것일세. 육경(六經)에 주소(注疏)를 달고 사서에 주석(註釋)을 단 것은 사문(斯文)에 크게 공로가 있고, 한마디 말씀으로 이단(異端) 물리치고 손으로 사도(斯道) 받든 것은 당세에 스스로 중책을 감당하신 것이로다.

지나간 성인의 학문을 이어 뒷날의 후학을 열어주셨으니 만고토록 사문(師門)의 적전(嫡傳), 올바른 정통(正統)이요, 천리를 밝히고 인심을 바로잡았으니 백세토록 유가의 모범이로다. 회암, 우암 두 분은 한갓 도학이 전후로 한결같은 뿐 아니라, 만난 시대 상황도 고금이 똑같았도다. 정강(靖康, 송나라 欽·徽宗)이 북쪽(金)으로 잡혀간 이래 뜻은 항상 황실을 부흥시키는데 절실했고, 국가가 분하게 항복한 이래 통한은 명나라가 망할 때보다 더욱 심했도다.

춘추 존양(春秋尊攘)의 당당한 대의(大義)에 뜻을 두었고, 건곤 정돈(乾坤整頓)의 개결한 고충(孤忠)에 맹서했노라. 이를테면 저 이단(異端)이나 제가(諸家)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사도(邪道)가 정도를 이기지 못함을 보겠고, 아, 저 액운과 재앙에 대해서는 굴함이 있으면 반드시 펴질 날이 있음을 알겠노라. 불행하게도 운수의 궁박함이 오늘날 같이 심한 적이 없어, 마침내 드넓은 천하로 하여금 긴 밤이 되게 하였으니 어이하리. 삼천리 강역 산천은 피비린내에 휩싸임을 면치 못했고, 오백년 예악 문물도 또한 장차 병들고 말았네. 비단 성인의 가르침이 쓸은 듯 없어졌을 뿐 아니라, 거의 생민의 도(道)마저 종식되었도다.

이에 남포현 한 지역에 의논을 주창하는 군자들이 있어서, 초옥 몇 칸을 건립하여 두 선생의 화상을 모셨도다. 더구나 이곳에 주자를 모시던 서원의 유허가 아직 남은 데다, 또 우암의 흥농서당(興農書堂) 옛 규례를 본받을 수 있음에랴. 정성 모으고 힘 합쳤으니 모두 방불한 화상을 존봉할 줄을 아는 것이요, 유도(儒道)를 지키고 사설(邪說) 물리치니 한 줄기 양맥(陽脈)에 거의 보탬이 있으리라. 빛나는 별과 상서로운 구름과 태산(泰山)과 교악(喬嶽)같은 모습이

59) 수사(洙泗) : 중국 산둥성 옛 노(魯)나라에 있는 내 이름 수수(洙水)와 사수(泗水)를 말한다. 공자와 맹자의 고향이 이곳이므로 공맹의 가르침 곧 유교를 뜻한다.

60) 도파(陶坡) : 도(陶)는 도산의 이황(李滉)이고, 파(坡)는 파주(坡州)의 성혼(成渾)이다.

61) 담계(潭溪) : 담(潭)은 석담의 이이(李珣)이고, 계(溪)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이다.

엄연히 임해 계시고, 큰 강의 지주(砥柱)와 한 겨울의 낙낙장송(落落長松)같은 자태를 가슴
울컥 다시 뵈게 되었노라. 까닭에 선비들이 경전을 놓아두고 일을 감독하여, 능히 장인(匠人)
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공을 이루게 하였도다. 규모가 성대하고 찬란하여⁶²⁾ 이미 고을이 보
고 감화 받는 장소로 표상하겠고, 완벽하고 아름다워⁶³⁾ 실로 사축(司祝)이 승강(升降)하는 의
례에 알맞겠네. 이에 감히 송축하는 글을 가지고 경모(敬慕)의 정성을 바치노라.

어여차, 들보 동쪽에 떡을 던지니
무이산(武夷山) 빛은 고금이 같구나
한천(寒泉)의 정맥이요 화양(華陽)의 물길이니
학해(學海)의 참된 근원일랑 여기에서 찾아야지

어여차, 들보 서쪽에 떡을 던지니
도에 높이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지
사문(師門)의 심법(心法)이 있는 곳을 알겠으니
창주(滄州)⁶⁴⁾의 밝은 달이 소제(蘇堤)⁶⁵⁾를 비추도다

어여차, 들보 남쪽에 떡을 던지니
선사(先師)의 가르침을 후생이 외노이다
당에 오른 오늘에 화상을 우리러 보니
눈앞에 모시고 친히 배우는 듯 하구나

어여차, 들보 북쪽에 떡을 던지니
대지에 추위가 매서워⁶⁶⁾ 양기가 폐색(閉塞)했네

62) 환칠하고 찬란하여 : 진(晉) 나라 문자(文子)의 집이 완공되었을 때, 대부인 장로(張老)가 그 으리
으리한 규모를 보고는 “아름답고 성대하구나. 아름답고 찬란하도다.[美哉輪焉 美哉奐焉]”라고 노래
하였다. □□예기(禮記)□□「단궁 하(檀弓下)」

63) 완벽하고 아름다워 : □□논어(論語)□□「자로(子路)」에, 공자가 위(衛)나라 공자(公子) 형(荊)을 칭찬하
기를 “그는 거실을 알맞게 한다. 처음 소유하자 ‘그런대로 합당하다.[苟合矣]’ 하고, 조금 늘자 ‘그런
대로 완벽하다.[苟完矣]’ 하고, 부유하게 되자 ‘그런대로 아름답다.[苟美矣]’ 하더구나.” 하였다.

64) 창주(滄洲) : 창주정사(滄洲精舍) 즉 주자를 말 말한다.

65) 소제(蘇堤) : 우암이 47세 되던 해 12월에 복거(卜居)했던 곳이다. 회덕현(懷德縣)의 남쪽에 있는
데, 북으로 쌍청당(雙淸堂)과의 거리는 10리가 되고 남으로 판교(板橋) 선산(先山)과의 거리는 5리
가 못 되었다. □□송자대전(宋子大全) 연보(年譜)□□

66) 주자의 「재거감흥20수(齋居感興二十首)」에 “추위가 대지를 덮으니, 양덕이 깊은 샘 속에서 이누나

이제 일양(一陽)이 땅 속에서 움직여⁶⁷⁾
 음기가 사라진 곳에 양덕(陽德) 밝기를 기다리네

어여차, 들보 위에 떡을 던지니
 큰 길을 따르고 높은 산 우르도다⁶⁸⁾
 정도(正道)가 황폐해 졌다고 탄식하지 말지어다
 아직까지도 어두운 거리에 해와 달이 밝도다

어여차, 들보 아래에 떡을 던지니
 선비들 즐비하게 풍아(風雅)⁶⁹⁾를 외네
 천고의 존숭과 보답에 허물이 없게 하라
 조출한 제물은 향기롭고 옥 술잔을 올리네

삼가 바라건대 들보를 올린 뒤에, 사당은 영원히 새롭고 유교는 크게 천명될지어다. 문학이
 밝게 빛나[彬彬]하여 국가는 당우삼대(唐虞三代)의 태평정치를 만회(挽回)하고, 현가(絃歌)⁷⁰⁾가
 가득하여 고을은 추로일변(鄒魯一變)⁷¹⁾의 풍속을 이룰지어다. 장차 말류(末流)가 퇴폐해지고
 문란해지는 폐단을 구제하여, 영원히 사도(斯道)를 부식(扶植)하고 보호하는 지방이 될 지어다.

무술년 정월 하순 동양(東陽) 신응선(申應善)이 삼가 쓰다.

[寒威閉九野 陽德昭窮泉] 한 것을 원용한 표현이다.

67) □□주역(周易)□□「복괘(復卦) 상사(象辭)」에 “우레가 땅속에 있는 것이 복이다.[雷在地中復]” 한 데서
 온 말이다. 동지에 일양(一陽)이 생겨나므로 복괘(復卦)에 해당하니 복괘는 곤상진하(坤上震下)로
 지뢰복(地雷復)이 된다. 소강절의 시에 “동짓날 자시 반에, 하늘의 마음은 고치지 않았네. 한 양이
 처음 움직이는 곳이며, 만물은 생겨나지 않은 때로다.[冬至子之半 天心無改移 一陽初動處 萬物未生
 時]” 하였다. 음기가 극성하면 곧 양기가 회복된다는 말이다.

68) □□시경(詩經)□□「소아(小雅) 거할(車輦)」에, “높은 산을 우러러봄이여, 큰길을 따라가도다. [高山仰止
 景行行止]” 한 데서 온 말로, 덕망이 높은 분을 사모(思慕)하고 존경(尊敬)하는 것을 의미한다.

69) 풍아(風雅) : 풍(風)은 □□시경(詩經)□□의 국풍(國風)이고, 아(雅)는 대아(大雅)와 소아(小雅)이다. 즉 □□
 시경□□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선현이 지은 글을 뜻한다.

70) 현가(絃歌) : 예악과 문교가 널리 실현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가 무성
 (武城)의 읍재(邑宰)가 되어 현가(絃歌)를 하며 예악(禮樂)으로 고을을 다스리자, 공자가 이것을 보
 고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느냐? [割雞焉用牛刀]” 하고 농담을 한데서 유래하였다. □□
 논어(論語)□□「양화(陽貨)」

71) 추로일변(鄒魯一變) : 유가적 도가 구현된 사회를 말한다. □□논어(論語)□□「옹야(雍也)」에 “제(齊)나
 라가 한 번 변하면 노(魯)나라가 될 수 있고, 노나라가 한번 변하면 도(道)에 이를 수 있다.” 하였
 다. 즉 남포현 지역이 도가 구현된 풍속 지역으로 되길 바란다는 말이다.

⑫ 上樑文

伏以 天地大分陽可扶而陰可抑 自堯舜三代
以人物極盛華昭尊而夷昭攘 至孔孟千年
以來繼天立極 天亦祚宋之休已降五季風雨
之後易地皆然 士皆尊周之義尚著一統春秋
惟我朱宋兩賢 潮吞雷闕 周程私淑 聖復
海涵地負 靜沙的源 道益
生於庚戌之期 扶將墜之正脉紫陽斯文 友
彰於丙申之運 迴旣倒之狂瀾黑水何害 集
一鄉友一國四方士 婦如泥塑之像室則入堂

羣賢集羣儒兩夫子出於義牆之思家而尸戶
則升輿自大明世降絃誦絕矜式之鄉獨有碩
而祝輿自小華人亡俎豆之安靈之所胡爲鞠
果之望掃地無餘噫波西洋腥穢惟茲藍縣
草之嘆極天罔墜幸茲東方文明
種玉暖烟寒安之地擇里處仁寒川是寒泉
生水寒水武夷其山顧名思義華汀亦華陽
之蹕多文學之彬言而合節愛及草蛛之
之稱益庠舍之稍之學者有師接夫栗牛之
微窺其美於牆內堂宜制尊賢棟宇有上

統繪厥像於座端 齋亦置養義棖桶為先

下之取

助舉修櫟

後之收

迺敢

恭疎短引

兕郎偉拋櫟東峨眉山在月明中共君秉燭昏
衢後睡覺晴窓日已紅

兕郎偉拋櫟西武夷峰立舊名齊寒泉夜枕周
京念風雨無眠叫羅鷄

兕郎偉拋櫟南龍湖春水碧於藍相逢故老披
襟立極宿祥輝自有含

兕郎偉拋櫟北愛汝玉山千古色始見文章斗

望崇太平奎運如環柱

兜郎偉拋標上高可攀天梯萬丈積翠中臨絳
節朝玉皇香案來相傍

兜郎偉拋標下踏來實地人司馬泥沙陶盡見
清泉井冽如甘宜飲者

伏願上標之後

堂以智仁 涖大化於三年
門于道義 開太平於萬世

後學東陽申 榘謹識

상량문(上樑文)

삼가 생각건대, 천지가 크게 분변되었으니 양(陽)은 부양해야 옳고 음(陰)은 억제해야 옳으며, 인물이 극성하니 중화는 높여야 할 바이고 오랑캐는 물리쳐야 할 바로다. 요순 삼대 이래로 하늘을 계승하여 법도를 세웠으니, 공맹(孔孟) 천년 이후에 이르기까지 처지를 바꾸면 모두 그러했으리. 하늘이 또한 송(宋)나라를 보우하는 복록(福祿)을 오계(五季)의 풍우(風雨) 시절에 내렸으며, 선비들이 모두 존주(尊周)의 의리(義理)를 오히려 일통(一統)의 춘추(春秋) 즈음에 드러냈도다.

우리 주자(朱子)·송자(宋子) 두 현철의 학문은, 밀물처럼 삼키고 우레처럼 열치셨으며 바다처럼 함양하고 대지처럼 실어, 주자(周子)와 정자(程子)를 사숙하고 정암(靜菴)과 사계(沙溪)의 연원이었도다. 성현이 경술년의 주기(72)에 다시 태어나시니, 도가 병신년의 운수(73)에서 더욱 밝아지도다. 장차 추락하려는 정맥을 부식(扶植)한 건 자양(紫陽, 주자) 사문(斯文)이요, 이미 닦친 거친 물결도 돌렸거니 흑수(黑水)가 어찌 해를 끼치랴.

한 고을의 훌륭한 선비를 벗어나고 한 나라의 훌륭한 선비를 벗어나어 사방의 선비들이 귀의하니, 여러 현철들의 학설 집대성하고 여러 유현들의 학설 집대성한 두 부자께서 출현하셨기 때문이로다.⁷⁴⁾ 단정한 동상을 실(室)에 모셔두고 당(堂)에 모셔두며, 아, 갱장(羹牆)의 사모로 가(家)마다 제향하고 호(戶)마다 봉축하도다.

아! 명나라가 망한 뒤로 소화(小華, 동방)에 인물 없어졌네. 모범이 되는 고을에 교화가 끊어진 채 오직 석과(碩果)의 희망⁷⁵⁾만이 있고, 혼령을 불안한 묘당에 제향이 끊어진 채 어이하여 풀이 우거졌다는 탄식만 있다. 도가 쓸어버린 듯 없어졌으니, 아! 서양의 비린내가 파도치지만, 온 천하에 타락함이 없는 것은 다행히 이 동방의 문명 때문이로다.

오직 이곳 남포현은, 따뜻한 안개에 옥이 맺히고⁷⁶⁾ 한천(寒泉)의 물엔 얼음이 어는구나. 빈

72) 주자가 태어난 해가 건염(建炎) 4년 경술년(1130)이다.

73) 병신년(1716) 숙종 42년, 신안서원(新安書院)에 사액(賜額)한 것을 말한다. 평안북도 정주(定州)를 옛날에는 신안(新安)이라 칭했다. 강희(康熙) 임진년(1712, 숙종 38)에 읍의 선비들이 주호(州號)가 주자(朱子)의 '신안'과 같다하여 주자의 서원을 세우기를 의논하여, 임장대(臨漳臺)에 경건하게 걸었던 영정(影幀)을 옮겨다 묘사에 놓았다.

74) 주자와 송자 모두 훌륭한 대현이란 의미이다. □□맹자(孟子)□□「만장 하(萬章下)」에, “한 고을의 선사라야 한 고을의 선사들과 벗할 수 있고, 한 나라의 선사라야 한 나라의 선사들과 벗할 수 있고, 천하의 선사라야 천하의 선사들과 벗할 수 있다.[一鄉之善士 斯友一鄉之善士 一國之善士 斯友一國之善士 天下之善士 斯友天下之善士]”라고 한 말을 원용한 표현이다.

75) 석과(碩果)의 희망 : 군자(君子)의 도(道)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역(周易)□□「박괘(剝卦) 상구(上九)」에 “하나 남은 석대한 과일은 먹지 않는다.[碩果不食]” 하였는데, 그 주석에, ‘석대한 과일은 먹혀 버리지 않아, 장차 다시 생겨나게 되는 이치를 볼 수 있다.’ 하였다.

한해도 편안한 땅, 무이산이 그 곳일세. 마을을 가려 인(仁)한 곳에 처하니 한천(寒川)은 곧 한천(寒泉)의 호칭이고, 이름을 보고 의리를 생각하니 화정(華汀)은 또한 화양(華陽)의 칭호라네. 많은 문학의 선비들이 빈빈(彬彬)한지라, 말을 함에 절도에 맞으니 사랑이 미물들에게까지 미치고, 더욱이 서원과 학교들 즐비한지라, 학문하는 이에게 스승이 있으니 도통이 우율(牛栗)⁷⁷⁾의 학맥에 닿노라. 담장 안에서 그분들의 아름다움을 엿보고 자리의 끝에 그분의 초상을 그렸노라. 영당엔 의당 존현(尊賢)의 들보를 만들어야 하니 상하(上下)에서 취함이 있고, 재실(齋室)엔 또한 양의(養義)의 서까래를 놓아야 하니 선후(先後)에서 수습하였도다.

이에 감히, 기다란 들보 들어 올리는 것을 도와, 삼가 짧은 글을 짓노라.

어여차, 들보의 동쪽에 떡을 던지니
 아미산이 밝은 달빛 속에 있구나
 그대와 함께 어두운 거리에서 촛불을 밝히고 나니
 잠에서 깨어 맑은 창문에 해가 이미 밝구나

어여차, 들보의 서쪽에 떡을 던지니
 무이봉(武夷峰)에 세워진 옛 이름의 재실(齋室)이여
 한천이 베개에 울어 명나라 생각하는 밤
 풍우에 잠 못 드는데 새벽닭 우는구나

어여차, 들보의 남쪽에 떡을 던지니
 용호(龍虎)의 봄물이 쪽빛보다 푸르도다
 서로 만난 고로(古老)들 흥금 열고 섰으니
 북극성의 상서로운 빛을 절로 머금으셨네

어여차, 들보의 북쪽에 떡을 던지니
 저 옥산이 천고에 푸른빛을 사랑하노라
 비로소 문장이 북두성처럼 높은 것을 보노니

76) 중국 남전에 옥이 유명하여 남전옥(藍田玉)이라 불리기 때문이 이를 원용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정입본(程立本)의 「종남도사가 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내며(送終南道士還山)」라는 시에 “차가운 창에 불기 줄여 단조를 달이고, 따듯한 골짜기에 안개 피니 옥을 심은 밭이로다.[寒窗火伏燒丹竈 暖谷烟生種玉田]” 하였다.

77) 우율(牛栗) : 우계 성흔과 울곡 이이.

태평성세에 문운(文運)이 북극을 둘러싼 것⁷⁸⁾과 같아라

어여차, 들보의 위에 떡을 던지니
높은 하늘 올라보자 사다리가 만장일세
푸른 산이 그 가운데서 붉은 부절의 사신 조회 받으니
옥황상제의 향안이 곁에 와 있노라

어여차, 들보의 아래에 떡을 던지니
실질을 실천한 분 바로 사마(司馬)⁷⁹⁾일세
진흙탕 말끔히 없어지매 맑은 샘물 보겠으니
찬 우물 맛이 달아 마시기에 좋아라

삼가 바라건대 들보를 올린 뒤에, 당(堂)은 인지(仁智)의 당이 되고 문(門)은 도의(道義)의 문이 되어, 3년마다 대비(大比)⁸⁰⁾에 임해 만년토록 태평세상 열지어다.

후학 동양(東陽) 신섬(申櫟)은 삼가 쓰다

78) 규운(奎運)은 문장의 별이 규성(奎星)이므로 곧 문운을 뜻한다. 북극을 둘러싼 것은 문운으로 인해 배출된 선비들이 주자와 송자를 둘러싼다는 말이다. □□논어(論語)□□「위정(爲政)」에 “북극성이 자리를 잡고 있음에 뭇별들이 그에게로 향한다.[北辰居其所 而衆星共之]” 한 것에서 온 말이다.

79) 사마(司馬) :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을 말한다. 자는 군실(君實), 호는 우수(迂叟),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죽은 뒤 온국공(溫國公)에 봉해졌으므로 사마온공(司馬溫公)이라 널리 불리며 속수선생(涑水先生)이라고도 한다. 행동이 위낙 근후하고 진실하여 소강절(邵康節)이 일찍이 “그대는 실질을 실천하는 사람이구나.[君實腳踏實地人也]”라고 하였다. □□언행귀감(言行龜鑑)□□ 여기서는 주자와 우암의 실천이 사마온공처럼 진실하다는 의미이다.

80) 대비(大比) :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던 관리의 선발(選拔)·고과(考課)를 일컫는 말. 곧, 대비과(大比科), 식년시(式年試)의 과거를 지칭함.

⑬ 春秋祭享定式祝文 柳浩根所作享祀時用此

孔孟嫡傳春秋大義尊攘辭闢用扶人紀世值
陽九景慕深篤謹因上丁敬奠清酌 右晦翁位
崇德大業上承紫陽所遭愈艱功實有光凡我
東表罔不受恩是用消穀敬供苾芬 右尤翁位

춘추 제향 정식 축문(春秋祭享定式祝文)

- 유호근(柳浩根)이 지은 것이다. 향사를 올릴 때 이것을 쓴다 -

공맹(孔孟)의 적전(嫡傳, 올바른 정통)이요
춘추(春秋)의 대의(大義)로다
오랑캐 물리치고 이단을 물리쳐
인륜을 부식(扶植)하셨도다
환란의 시대 만난지라
경모함이 더욱 심하도다
삼가 상정일⁸¹⁾에
공경히 맑은 술 올립니다

위는 회옹(晦翁)의 신위이다.

높으신 덕 위대한 업적
위로 자양 선생 계승했도다
만난 시대 더욱 어려워
공업 실로 더욱 빛나니
우리 동방 사람들
큰 은혜 입었도다
이에 길한 날 받아
공경히 제물을 올립니다

위는 우옹(尤翁)의 신위이다.

81) 상정일(上丁日) : 옛날 사당의 제향을 봄에는 2월, 가을에는 8월에 지냈는데, 첫 번째 정일을 초정(初丁)·상정(上丁)이라 하여 문묘(文廟)·향교(鄉校)에서 행사하였다.

⑭ 畫像贊

道宗祈姚學傳魯鄒尊攘義秉絃開功流天
地之量星斗之表高揭仰瞻厥像惟肖 右朱子
以豪傑姿得帝王學洛閩大統栗沙正嫡山岳
之表河海之量遺像儼恭孰不義牆 右朱子

화상찬(畫像讚)

도(道)는 요순(堯舜)을 종주로 했고
학문은 공맹을 전수받았네
이단을 물리치고 의리를 잡아
계왕개래⁸²⁾의 공로 넘쳐흐르네
천지 같은 도량이요
북두 같은 표상이라
높이 걸어 우르러니
그 화상 닮았도다

위는 주자다.

호걸의 자품으로
제왕의 학문 얻었도다
낙민(洛閩)⁸³⁾의 위대한 도통이요
율사(栗沙)⁸⁴⁾의 정통한 적전(嫡傳, 올바른 정통)이라
산악 같은 표상이요
하해 같은 도량이라
유상이 엄숙하니
누군들 사모하지 않으리

위는 송자다.

82) 계왕개래(繼往開來) : 주자가 「중용서문(中庸序文)」에서 공자의 덕을 찬양하면서 “옛 성인을 잇고 내세의 학자를 열어 줌은 그 공이 요순(堯舜)보다도 낫다.[繼往聖開來學其功反有賢於堯舜者]”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인용하여 다시 주자를 찬양하였다.

83) 낙민(洛閩) : 중국의 지명. 낙수(洛水)에 명도(明道)와 이천(伊川)의 정자(程子) 형제가 있었고, 민중(閩中)에 주자(朱子)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송대(宋代)에 이루어진 정주학(程朱學)을 뜻하는 말이다.

84) 낙민(洛閩) : 중국의 지명. 낙수(洛水)에 명도(明道)와 이천(伊川)의 정자(程子) 형제가 있었고, 민중(閩中)에 주자(朱子)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송대(宋代)에 이루어진 정주학(程朱學)을 뜻하는 말이다.

⑮ 營建有司懸板記

道在天下未常或亡故與天地相終始者道也而世或亂極則道亦滅亡而理則不息矣是以不幸而遭此等時則天必生扶道之人使之不至於滅息是乃天人一理而不相離道也嗚呼西鬼橫恣以來天理掃地人道化斁是豈天之本心而人之本情也哉氣數有限天亦不能為而人又靡然從之雖然就中有一二箇人不失本性仰詔上天之本心則以用扶斯道為己任不顧死生夷險此聖人所謂至死不變守死善道死而靡悔以身殉道舍生取義等許多說話而垂戒後人不翅直切著明故

奉天心而守聖訓，幹造化而回厄運者，惟士為
能然則其人也，未必皆聖賢，不論地之崇卑，位
之大小，學之淺深，才之優劣，苟有是心而能言，拒
之者則此所謂聖人之徒也。方今天下之中，一隅東
表東表之中，一隅藍田有一二瘠土之人，憂淫氛之
寢溺，痛陽復之遲晚，新建集成堂，敬奉朱宋
兩夫子真幀，登拜遺像，退講遺書，其意蓋將
衛經閑聖，攘夷斥邪，以敵天下大勢，不挫一脉正
氣，志則正而情則悲，事則鉅而力則綿，嗚呼異

矣此役也誰其尸之士人李憲世白觀鎮黃鎮
柳世利李鍾益五人尤其拔萃者也

영건 유사 현판기(營建有司懸板記)

도(道)가 천하에 있어 혹 없어지지 않으니, 그러므로 천지와 함께 영원한 것이 도이다. 그런데 세상이 혹 지극히 어지러워지면 도 역시 멸망하거니와 이(理)는 종식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불행히 지금과 같은 때를 만났은즉, 하늘이 반드시 도를 부식(扶植)할 사람을 내어 그로 하여금 도가 멸식(滅息)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니, 이것이 바로 하늘과 사람이 한 가지 이치여서 서로 떨어지지 않는 도이다.

오호라. 서양 귀신이 마구 횡행한 이래 천리(天理)는 땅을 쓴 듯 없어지고 인도(人道)는 짐승이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하늘의 본심이며 사람의 본정이겠는가. 기수(氣數, 운수)가 막힌 곳에는 하늘도 어찌 할 수 없는 것이니, 사람도 또 휩쓸리어 따른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한두 사람은 본성을 잃지 않은 채 위로 하늘의 본심을 체인(體認)하고 있는 이가 있은즉, 사도(斯道)를 부식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삼아 생사와 안위를 돌아보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인이 말씀하신바 “죽어도 의리를 변치 않는다.[至死不變]” “죽음으로 지켜 도를 잘 행할 줄 알아야 한다.[守死善道]” “후회 없이 도에 목숨을 건다.[靡悔以身殉道]” “삶을 버리고 의리를 취한다.[捨生取義]” 등의 허다한 말로서 뒷사람들에게 경계를 내려준 것이 지극히 직절(直切)하고도 분명하다.

그런 까닭에 하늘의 본심을 받들어 성인의 가르침을 지키며 조화를 주간하여 액운을 돌리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우가 이렇고 보면 그 사람이 꼭 모두 성현일 필요도 없고, 출신의 고하(高下)나 지위의 대소(大小), 학문의 천심(淺深), 재주의 우열(優劣)도 따질 것 없이 진실로 이러한 마음을 먹고서 능히 말을 하여 막을 수 있는 자라면 이런 사람이 소위 성인의 무리이다.

지금 천하 가운데서도 한 모퉁이 동쪽의 끝, 동쪽의 끝에서도 한 모퉁이 남전(藍田)에 척박한 지방의 한두 사람이 요사한 기운이 침략하는 것을 근심하고 양기의 회복이 지연되는 것을 통탄스럽게 생각하여, 새로이 집성당(集成堂)을 건립하고 경건히 주자와 송자 두 부자의 영정을 모신 다음, 나아가서는 영정에 배알하고 물러나서는 남기신 글을 읽고 있다. 그 의도는 대개 장차 경전을 보위하고 성인을 수호하며 오랑캐를 물리치고 사설(邪說)을 물리쳐서 천하의 대세에 대적하여 한 줄기 바른 기운이 꺾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뜻은 바르거니와 마음은 슬프고 사업은 장하거니와 힘은 미미하다.

아! 빼어나도다. 이 일을 누가 주관하였나. 사인(士人) 이헌세(李憲世), 백관진(白觀鎭), 황진(黃稹), 유세리(柳世利), 이종익(李鍾益) 다섯 분이 더욱 월등히 힘쓴 사람들이다.

①⑥ 寒華堂記

趙龜元所作 號青農

寒華堂者藍田縣南寒泉上華汀村新建朱
宋兩夫子影堂之多士講學所也寒取於寒泉
也華取於華陽因其地名而寓慕義牆之意蓋自
二儀剖判之後天地四方之位山川流峙之形莫非自
然而然也西北陰幽東南陽明故泰伯南去而鱗
介之邦始見至德之人歷千載而朱子生焉箕子
東來而夷陋之鄉始沐仁賢之化歷千載而朱子
生天意人事歷々相符而若有待焉嗚呼生在

盛時玉山之西新安之東依倣地名之相類營建院
宇以享朱宋兩夫子而諸君子亦配之矣不幸中
撤士林之齋恨者久矣近年希堂尹公自洛而浮
于海止于藍田武夷山下痛世道之衰敗憤夷狄
之恣橫以為華變而夷人化而歎者良由於斯道之
不明士趨之不正也慨然興感於朱宋兩夫子之以至
公血誠處衰世而明大義之意建此數間茅屋於
武夷之下寒華之間尊奉兩夫子遺像以為妥侑之
所蓋亦有所受也念昔遂菴先生之以興農特奉兩
夫子之真像而祀之者實有深意也今茲尹公之舉

亦遂翁之志也或有難之者曰上有孔子之聖下有
諸賢之尊而獨以兩夫子之影堂尊之者有所未
安云此不知所值之變而迷於泥見也從古夷狄之
愛異端之害指不勝屈而豈有如宋兩夫子之時
苟宋之南渡也朱子身值金虜之禍江西之害而
以亞聖之姿上以承洙泗之淵源下以啓後學之蒙蔽
尊攘辭闢不遺餘力孔子之道賴之以不墜矣逮
于大明之亡建虜入住中國黑水詆侮朱子而宋
子以大賢之德秉數十之義摧陷廓清使後學知
尊朱子之道而不至泯滅焉天之生兩夫子足以當

一治之數也。所以興農之祠，上不逮於孔孟，下不及於諸賢。而今日之所遵述者也。噫！今此西鬼之禍，卽禽獸之也。一隅青邱箕子之舊邦，亦混於腥羶之中。而四海之內，舉無人之現存者。幸茲同志之士，能解扶抑存遏之義，而能登斯堂，而拜遺像，退而講習。兩夫子之遺書，沉潛乎心性蘊奧之旨，闡明乎尊攘辭闢之義。律身則期無負，戰兢臨履之工。持論則思以盡竣截明快之辭。內以檢攝心志，外以發揮事功。無一不學習乎兩夫子之遺風餘教，則庶可以挽回世道，用夏變夷。而其於泰山喬嶽之氣，像洪河砥柱之特。

峙者豈不為鑛仰之準的而用為自家安身立命之
所哉此寒華堂之所以取名於兩夫子之所居而厚
望於並世有志之士也嗚呼夫子曰篤信好學守死
善道蓋聖人之訓何莫泐切實而在今日而為今人者
尤當服膺者也

한화당기(寒華堂記)

- 조귀원(趙龜元)이 지은 것이다. 호는 청농(靑農)이다.-

한화당(寒華堂)은 남전현(藍田縣) 남쪽 한천(寒泉) 가 화정촌(華汀村)에 새로 건립한 주자(朱子), 송자(宋子) 두 부자(夫子) 영당의 많은 선비들이 강학하는 장소이다. 한(寒)은 한천에서 취했고, 화(華)는 화양(華陽)에서 취했으니, 지명을 근거로 사모하는 마음을 붙인 것이다.

대개 음양(陰陽)이 갈라진 뒤로 천지 사방의 방위와 산천 배치의 지형이 모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니, 서북쪽은 어둡고 깊고[陰幽] 동남쪽은 밝고 트였다[陽明]. 그러므로 태백(泰伯)⁸⁵이 남쪽으로 떠나시매 미개한 지방에서 비로소 지덕(至德)의 성인을 보았는데 그 뒤로 천년이 흘러 주자가 태어나셨고, 기자가 동쪽으로 온 이래로 오랑캐의 나라가 비로소 인현(仁賢)의 교화를 입었는데, 그 뒤로 천년이 흘러 송자가 태어나셨으니, 하늘의 마음과 인간의 일이 역력히 서로 부합하는 것이 마치 일부러 기다린 것과 같다.

아! 지난날 태평성세에 옥산(玉山)의 서쪽과 신안(新安)의 동쪽이 절묘하게 지명이 서로 같아 서원을 건립하여 주자와 송자 두 부자에게 제향을 올렸으며, 아울러 여러 군자들 또한 배향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중간에 철폐하게 되어 사림(士林)들이 한을 품게 된 것이 오래 되었다. 근년에 희당(希堂) 윤공(尹公)이 낙양에서 바다를 건너와 남전현 무이산 아래 머물면서 세도(世道)의 쇠망함을 통탄하고 오랑캐들의 횡행을 분개하여, ‘중화가 오랑캐가 되고 사람이 짐승이 된 것은 진실로 유가의 도가 밝지 못하고 선비들의 지향이 바르지 못해서이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주자와 송자 두 부자께서 지공혈성(至公血誠)으로 난세에 대처하고 대의를 밝힌 뜻에 개연히 감격하여 무이산 아래 한천 사이(화정촌)에 이 몇 칸의 초당을 건립하여 두 부자의 영정을 높이 봉안하여 영령을 편안히 모시는 장소로 삼았으니, 대개 또한 하늘로부터 받은 바가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지난날 수암 선생(遂菴先生)⁸⁶이 흥농서당(興農書堂)에서 특별히 두 부자의 영정만을 봉안하고 제사하신 것은 실로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니, 이제 윤공의 거조 역시 수암 선생의 뜻과 같다.

혹 이것을 난치하게 여기는 자가 있어 “위로는 공자 같은 성인이 계시고 아래로는 존귀한

85) 태백(泰伯) : 태백은 주(周) 태왕(太王)의 맏아들이자 문왕의 큰아버지다. 태왕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태백(泰伯)·중용(仲雍)·계력(季歷)이었다. 계력에게 아들 창(昌=뒷날의 문왕)이 있어 태왕이 계력에게 전위(傳位)할 생각을 두자 태백과 중용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형만(荊蠻)으로 도망갔다. 이 사실 때문에 공자가 태백을 존송하여 ‘지덕(至德)’이라고 칭송하였다.

86) 수암 선생(遂菴先生) : 우암의 적전인 한수재(寒水齋) 권상하(權尙夏, 1641~1721)를 말한다. 본관은 안동, 자는 치도(致道)이다.

여러 현철들이 있는데, 유독 두 부자의 영당만 높이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점이 있다.” 하였다. 이는 시대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하찮은 소견에 눈먼 것이다. 예로부터 오랑캐의 변란과 이단의 폐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지만, 어찌 주자와 송자 두 부자의 시대 같은 때가 있었는가. 옛날 송나라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올 때 주자계선 몸소 금나라 오랑캐의 화를 당하였고 강서학과⁸⁷⁾의 폐해가 넘쳐났지만, 주자계선 아성(亞聖)의 자품으로서 위로는 공맹[洙泗]의 연원을 계승하시고 아래로는 후학의 몽매함을 깨우쳐, 중화를 보존하고 오랑캐를 물리치며 사도(斯道)를 보위하고 이단을 물리치심에 온 힘을 다하셨으니, 공자의 도가 이에 힘입어 실추되지 않은 것이다.

명나라가 망할 때엔 청나라가 들어와 중국의 중인 노릇을 하였고 흑수(黑水)⁸⁸⁾가 주자를 비방하고 모욕하였지만, 송자계선 대현의 덕으로 수십(數十)의 의리를 잡고서 사설(邪說)을 꺾고 이단을 물리쳐 후학으로 하여금 주자의 도를 존봉할 줄 알게 하여 민멸하지 않게 되었다. 하늘이 두 부자를 내어 족히 한번 다스려진 운수를 감당하였으니, 이에 홍농서원의 향사가 위로는 공맹에 이르지 않고 아래로는 여러 현철들에 미치지 않은 것이요, 오늘날 그 뜻을 따르는 것이다.

아! 지금 서양 귀신의 화는 곧 짐승의 운세인지라, 한 지역 청구(靑丘) 기사(箕子)의 옛 나라가 또한 더러운 비린내에 휩싸여 천하에 온통 인륜의 도리를 현재 보존한 자가 없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동지의 선비들이 능히 유도를 부식(扶植)하고 사설(邪說)을 배척하는 의리를 알아서, 능히 이 영당에 올라 영정에 배알하고 물러나 두 부자께서 남긴 글을 강습한다. 그래서 심성의 깊은 뜻에 침잠(沈潛, 깊이 잠김)하고 유도를 보위하고 이단을 배척하는 의리를 천명하여, 자신의 몸을 단속하기로는 전궁임리(戰兢臨履)의 공부⁸⁹⁾를 저버리지 않기를 기약하고, 의론을 지키기로는 준절(峻截)하고 명쾌한 말을 극진히 할 것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안으로는 심지(心志)를 단속하고 밖으로는 일의 공효를 발휘하여, 두 부자의 유품과 가르침을 하나라도 배우지 않음이 없도록 하였다.

87) 강서학과 : 육상산(陸象山)을 말한다. 육상산이 강서성(江西省) 사람이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호는 존재(存齋) 혹은 상산(象山), 시호 문안(文安), 이름 구연(九淵)이다. 귀계(貴溪)의 상산에 강당을 짓고 후학 양성에 전념하여 당시 유일한 석학이었던 주자(朱子)와 대립하여 중국 전체를 양분(兩分)하는 학문적 세력을 형성하였으나, 사상적 계보로는 모두 정자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한때 주자학에 의하여 압도되기도 하였으나, 명대(明代)의 왕양명(王陽明)에 의해 계승되었다.

88) 흑수(黑水) : 윤휴(尹鑄)를 가리킨다. 윤휴가 살았던 경기 여주(驪州)의 ‘여(驪)’ 자가 ‘검은 말 여’자로 검다는 뜻이 있고 거기에 여강(驪江)이 있으므로 윤휴를 배척하는 측에서 그의 별칭으로 사용하였다.

89) 전궁임리(戰兢臨履)의 공부 : 깊은 못에 임하거나 얇은 얼음을 밟은 것처럼 마음가짐을 신중히 하라는 경계. □□시경(詩經)□□「소아(小雅) 소민(小旻)」에 “조심하고 삼가하여 깊은 못에 임하듯이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하라.[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 하였다.

이렇게 된다면 장차 세도(世道)를 만회(挽回)하고 중화의 문화로 오랑캐를 교화시킬 수 있을 것이니, 태산(泰山) 교악(喬嶽) 같은 우뚝한 기상과 큰 물살에 지주(砥柱) 같은 우뚝한 두 분의 공로에 대해 어찌 우러러 흠모할 표준이 되지 않겠으며, 자신의 안신입명(安身立命)할 장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한화당(寒華堂)을 두 부자께서 거처하시던 곳에서 이름을 따서 이 시대의 뜻있는 선비들에게 깊이 바라는 까닭이다.

아! 공부자께서 “독실하게 믿으면서 학문을 좋아할 줄 알아야 하고, 죽음으로 지켜 도를 잘 행할 줄 알아야 한다.”⁹⁰⁾라고 하셨다. 대개 성인의 가르침이 어느 것인들 절실한 공부가 아니겠는가마는, 오늘날 이시대의 사람은 더욱 명심해야 할 말이다.

90) 수사 선도(守死善道) : □□논어(論語)□□「태백(泰伯)」에, “독실하게 믿으면서도 학문을 좋아할 줄 알아야 하고, 죽음으로 지키면서도 도를 잘 행할 줄 알아야 한다. [篤信好學 守死善道]”라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

⑪ 已亥春移本時告由文

伏以庇仁孺生申挾將以建堂遂有還奉兩夫子影
像舊本之計故小子邀末畫手敬摹新本還陪舊
本于申挾家或不為未安於移動耶既是多年依
憑之地則恐不傷於事體伏惟尊靈眷顧後學
似無彼此之殊乎謹以酒果用伸虔告

기해년 봄 구본(舊本) 영정(影幀)을 이봉(移奉)할 때의 고유(告由)한 글

삼가 생각건대, 비인현(庇仁縣) 유생(儒生) 신헌(申挾)은 장차 영당을 세운 뒤 이윽고 두 부자의 영정 구본(舊本)을 다시 봉안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小子) 신헌(申挾)이 화가를 맞이해 와 공경히 새 영정을 그려서 신본(新本)은 남포현 영당에 봉안하고 구본은 신헌의 집에 세운 영당에 다시 모시려고 합니다. 혹 이동하는데 편하지 못하신 건 아닙니까. 이미 이곳이 다년간 계시던 곳이고 보면 사체(事體)에 손상되거나 앓을까 염려됩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존령(尊靈)께옵서는 후학을 돌아보시어 여기나 저기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삼가 술과 과일을 차리고 공경히 아뢰옵니다.

⑮ 告新本文

伏以兩夫子在天之靈如水之在地中隨其所奉而歆
格豈有遠近彼此之間又豈以影本之新舊有異哉
昨年所奉舊本庇儒申校亦將有建堂還奉之計
故傳寫新本虔揭于堂伏惟尊靈舍舊從新是
憑是依謹以酒果伸此告由

신본(新本) 영정에 아뢰는 글

삼가 생각하건대, 하늘에 계시는 두 부자의 영령께서는 마치 물이 땅속에 있는 것처럼 불안하는 곳을 따라 흠향하실 것이니, 어찌 원근과 피차의 사이가 있겠으며, 또 어찌 영정의 신본과 구본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작년에 봉안하던 구본은 비인현(庇仁縣) 유생(儒生) 신협(申挾)이 또한 장차 자신의 집에 영당을 세워 다시 봉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본을 그려 공경히 본 영당에 걸었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존령께선 옛 것을 버리고 새 영정에 계십시오. 삼가 술과 과일을 차려 이렇게 연유를 고합니다.

(182)

擬寒華堂記

玉潭沈永澤

藍田縣武夷山下舊有朱夫子院享而我東尤翁以下數
賢配焉不幸士林不謹守 朝廷至有去羊之舉自是以
來名實俱亡百邪恣橫吾道無寄矣乃者希堂尹公內觀
坤復之義外因亂極之思就其近地寒川之上華山之下
而樹小屋特舉朱宋兩夫子真像妥之又別立群業之所三
楹題其堂曰寒華蓋因地之名而尊慕乎婺源之泉清州
之山也竊惟朱子後孔子一人宋子我東之朱子也欲學
孔子先學朱子欲學朱子先學尤翁此實聖門之階級正
路之準的也學之道奈何讀其書而不知其世不可也夫
孔孟尚矣至于南宋之時夷狄之禍載籍初有而一偏南

朝亦淪於和議忘祖宗之深恥壞陰陽之大防所謂天理
民彝不絕如縷矣朱夫子以藐然一身獨任天下之重上
告下諭既筆之書又淑其徒以當孔孟之一治及大明之
亡堯舜舊彊已不忍說而我東亦以力屈并與士論而終
至胥淪於是宋夫子出復明朱子之道而竟以身殉嗚呼
向無兩夫子之功之力則天地之不翻覆特其軀殼耳所
以今日天下有人心者莫不震牆乎兩夫子而斯堂之作最
以是依歸也難之者曰朱宋之道之義則非不炳然如彼
而夷考其時南宋之亡不旋踵清虜之運終不窮孟氏之
功何有於言侏離而眠左社乎此實氣使然也況今日之
禍視昔猶倍而人心陷溺不啻將絕矣假使兩夫子復起

其不能有為可知而顧於窮山絕海之間盡旣骨之七分
揭于窮鄙之下而謂之衛道斥邪之具不亦迂乎噫昔胡
文正公當南宋之時特序春秋而進之曰天理日消人欲
日長夷狄亂華撥亂反正之書亦可以出矣夫春秋空言
也胡必以是為撥亂之具其意安在蓋天理盡消華夏終
亡則已如有來復之時則捨是書奚以哉今朱永兩夫子
卽春秋一部而其具加詳矣目今四海九有無地可讀無
人可抱是謂剝之盡亂之極也然則教祿之屋一幅之畫
安知不為上九之碩果而一治之張本耶此皆在乎其人
凡吾人之登斯堂者入簷兩夫子之像則其海濶天高壁立萬
仞知自所學中出來而文王我師真不我欺也退而講其

書則儼夫子之在座親承面命言其言行其行服其服必
盡所受之極若夫世道不責夫子既沒顏曾何讓明目張
膽箇箇擔負一以危言拒楊墨左袒誅亂逆血腔攘夷狄
麋拳驅猛獸為立身究竟法雖不幸而為其所噬聖人之
道則由我粗傳矣兩夫子在天之靈豈不莞爾而陟降於
斯乎不然而徒區區於禮數之末以為一時之觀美則寧
知作者既倦來者不繼易至於地荒水廢而亦非尹公今
日創建斯堂之本意也可不戒且念哉吾道存亡之幾斯
世治亂之萌吾將卜於斯堂云爾

①九 三希堂尹先生行狀

先生諱錫鳳字雲瑞自號三希堂尹氏系出坡平以
新羅三韓壁上功臣諱莘達為鼻祖至高麗有諱瓘
仕中宗朝掃蕩女真開拓六鎮官至侍中平章事謚
文肅入 本朝有諱巖尚 太宗女淑慶翁主封坡
平君謚齊度至諱重三文科左贊成諱起三官監察
從昆弟俱師事栗谷牛溪兩先生匹義高蹈月沙李
文忠公拱崇碑而讚揚之屢傳至諱之宣以監察公
孫過房為贊成公后卽先生五世祖也是生諱淦成
均生負秉春秋大義自靖不仕重菴金先生狀其德

曾祖諱仁植與仲季義植孝植并擢 正廟壬子司

馬肅謝之日 上特加補賞曰三兄弟聯璧非但汝

家之慶可見國家右文之効也遂命道臣優給宴需

樂具歸榮鄉里祖諱顯箕通德郎考諱義五妣綾城

具氏獨樂齋先生時經后潤莖女繼妣全州李宗完

女先生生於 綾陵壬寅十月二十六日具氏出也

先生自幼聰穎及長就學不煩程督七歲失恃鞠育

於祖母金氏金氏導迪於美飴之餘責勵於辟呬之

際先生承意服從及喪哀毀過度終制撤筵猶逐日

拜廟以伸追慕之誠此在弱冠以前事也自志學從

事功令需世文字無不精進聲名藹蔚甲戌見屈於
禮園謁網堂徐公應淳鎮庵朴公弘壽諄々誘掖開
牖聖賢為學之課程嘉陵有重菴金公平默省齋柳
公重教廣開爐黼士友雲集先生遂懷刺受業時年
三十七始聞為己之學嚴於金柅之戒不入輦轂一
步地聞知舊炙手權要不通書信寤寐師訓主敬而
行之講學而明之從容涵泳於虛空靜寂之中剖析
幾微於學聚問卞之際戒慎恐懼愈嚴愈篤辨別善
惡愈精愈密以書以面往復討論者積有卷帙而不
差向背卒成兩門高弟益重翁之學出於華西李先

曾祖諱仁植與仲季義植孝植并擢 正廟壬子司

馬肅謝之日 上特加補賞曰三兄弟聯璧非但汝

家之慶可見國家右文之効也遂命道臣優給宴需

樂具歸榮鄉里祖諱顯箕通德郎考諱羲五妣綾城

具氏獨樂齋先生時經后潤苾女繼妣全州李宗完

女先生生於 綏陵壬寅十月二十六日具氏出也

先生自幼聰穎及長就學不煩程督七歲失恃鞠育

於祖母金氏金氏導迪於弄飴之餘責勵於辟呬之

際先生承意服從及喪哀毀過度終制撤筵猶逐日

拜廟以伸追慕之誠此在弱冠以前事也自志學從

事功令需世文字無不精進聲名藹蔚甲戌見屈於
禮園謁網堂徐公應淳鎮庵朴公弘壽諄諄誘掖開
牖聖賢為學之課程嘉陵有重菴金公平默省齋柳
公重教廣開爐黼士友雲集先生遂懷刺受業時年
三十七始聞為己之學嚴於金柅之戒不入輦轂一
步地聞知舊灰手權要不通書信寤寐師訓主敬而
行之講學而明之從容涵泳於虛空靜寂之中剖析
幾微於學聚問卞之際戒慎恐懼愈嚴愈篤辨別善
惡愈精愈密以書以面徃復討論者積有卷帙而不
差向背卒成兩門高弟蓋重翁之學出於華西李先

生而得其嫡傳我東之學始於圃隱鄭先生大成於
尤菴宋先生尤庵以後門戶分裂有京鄉二派之統
系京派未免朱門攀附之累鄉派多有青氈世襲之
弊華翁以命世之才隣於生知不由師承直接尤翁
之統道大德尊其體用之全精微之蘊有非後生末
學所可點綴其萬一而先生私淑其門深得全蘊第
今撮其一二而攷其所見向背師友淵源之宗則曰
尤翁繼朱子而作者也不學尤翁學朱子不得曰為
學以小學為本以語孟庸學為主而後及於經史諸
家循、有序字、致力曰明德不曰心而亦不曰性

者性無造作運用却欠體用則有善有惡又未可以
言本體純然故舉合理氣兼體用之妙而虛靈洞徹
光明純粹者而言則此乃人之所得乎天而謂之明
德也蓋其所主在於心而明德者心之德美也明德
雖曰合心性而以其所主而言則以理言之心也不
可以主氣者也尤翁曰心有以理言者有以氣言者
大舜所謂道心孔子所謂天地之心孟子所謂仁義
之心程子所謂本心朱子所謂心猶太一此等處皆
以理言之心也推此究之明德不外乎是矣又論明
德本體之明未嘗息者之義曰譬之燈火則掩外雖

暗其內之光自若譬之天日則蔽下雖陰其上之明自在心之為物如火如日祛其掩蔽則光明如前此無乃未嘗息而復其初之明驗耶其論物格之辨曰綏有一事一物必有當然之理取至近而言吾之一身則耳目口鼻物也視聽言臭理也格物也視明聽聰言出臭得物格也盡窮其理逐件無餘舉而措之天下之事物莫不皆然此所謂物理之極處無不到也當先讀或問格致條次及退栗諸賢書與夫紫雲廟庭碑文則不待辨說而曉然矣其論新民之義曰康誥之意民乙作新朱子之意新民乙作也癸本鮮

而釋之其義深長也若非晦翁大眼目豈能如是宋
子每引此卞論於門人問答而最其詳悉者答李芝
村之問也若非精神氣魄與朱子俱化則安能如此
朱宋之學脗合無間於此可見矣其論理氣之辨曰
理無氣而發氣無理而行理者氣之根本也準
則也氣者理之形跡也器具也本不相離亦不相雜
如輪翼相將也其論性之本然氣質善惡之別曰譬
之流水或渇之於淤泥之中則為濁水或止之於沙
石之上則為清水則一也有清濁之異者其所乘
之地不同也指其所同而言之則潤濕不能不同者

理一故也就其所異而言之則清濁不能不異者器
別故也性之善惡何以殊此乎其論心之理氣之辨
曰心之為物非曰不氣而此物上面指其德則曰理
其體之虛靈光明以其理與氣合故也蓋心能統性
而性不能統心、能盡性而性不能檢心若曰心是
氣而已則氣反統理而理反為役所謂理者何足以
為萬化之樞紐乎且大舜及孔孟所謂道心天地之
心仁義之心與夫程子曰心也性也天也一理也自
理而言謂之天自稟受而言謂之性自存諸人而言
謂之心張子所謂由太虛而有天之名由氣化而有

道之名合虛與氣而有性之名合性與知覺有心之名朱子釋之曰此四句本只是一箇太虛漸細分說得密又曰心為太極我東靜庵先生曰氣則四時心乃四德元庵先生曰心有以氣言者有以理言者然則前後聖賢之說心發揮叮嚀明白夫何後世學問分裂無統賓主互奪體用殊歸不惟不明於當時由差至謬其弊至於孟津之橫流非一葦可抗我華西先生之乎斯世恐帥役之犯分門路之多歧因造詣高明而雜引經傳劈破理氣之畧分此足以為千古說心之龜鑑雖使陸王千百輩復起九泉不敢容一

喙於其間矣。故答心性情統補之問。因華翁訓說而明之曰：心者合理氣。包動靜者也。性者心之體而理之乘氣而靜者也。情者心之用而理之乘氣而動者也。分言則心者虛靈不昧而萬理之總會主宰也。性者寂然不動而萬理之含具者也。情者感而遂通而萬理之發用者也。各有所界。不可相混。此理之分殊也。合言則心與性情渾然無彼此。內外終始本末之間。此理之全體也。以理言之。則聖凡之心一也。舜跖之性一也。堯桀之情一也。理同故也。以氣言之。則天下之心之性之情有萬不同。氣異故也。且心性情

由所載而言則理也由所乘而言則氣也心有人心
道心之分性有本然氣質之異情有天理人慾之累
也其論人物性同異之辨曰門戶各立可否相奪其
來已久豈不憫然哉蓋人物之生莫不稟其理而為
性得其氣而成形不雜乎氣而論其性則人與物一
也不離乎氣而論其性則有萬不同而性亦隨而不
同所謂同者陰陽不齊儀而同一理也人物不同道
而同一理也人人不同形而同一理也物之不同類
而同一理也此皆一本之真也所謂異者陰靜陽動
氣不同也人通物塞氣不同也聖清凡濁氣不同也

橫行倒立氣不同也此皆萬殊之變也欲其同處求見其所以異之故則本源之性雖同而所值之界不能不異以其異處求見其所以同之理則所乘之氣雖異而本然之性不能不同朱子所謂同中識其異異中識其同者此也人物性之同異於此可知而終不歸一何哉此皆篤守師訓刻苦致力者也非俗儒崔耳傭目憑虛就奇之比也嗚呼倭虜已啓國事日非洪烈士在鶴被陳東歐陽轍之刑重翁以儒林領袖屈道州之行言路永絕天聽愈邈矣先生潁懷痛嘆欲以一疏洞陳時事伸救師究白身布衣無呈

函之路未果登徹遂放懷山水風浴乎域內諸名勝
自道峰清潭至松嶽朴洲周遊於四郡逶迤乎青川
華陽等地而尤致意於宋子邁軀之鄉俎豆之所此
則於尊周衛朱有曠世之感而寓羹牆之慕也皆適
值秋丁設 皇廟享祀列邑衿佩駿奔左右先生瞻
仰 御宸展拜叅班歸路作洞記備陳宋子初建之
義遂翁經始之舉蓋前人所未遑而使後之覽者昭
然如指諸掌也歸益杜門讀書尤嚴於斥洋服食器
用痛禁彼制事親極誠志物咸備及丁憂哀毀踰節
逐日省墓不以風雨寒暑而或廢晚寓湖西之藍田

生計剝落拮据多方男讀女紅各效其績無一人遊惰雖薄衣浚食處之晏如至於接賓禮賢各稱其情誠於奉先蔬果兕皿之屬預有措置非甚病雖老必親自主鬯設四時正祭曰麥飯粟餅古賢有行之者當隨力盡誠而已冠必三加婚必親迎嘗依華翁深衣制以此朔望謁廟於是齋贄請業者日益衆戶屢常滿諄々叩竭苦口獎進說講之際風采動人遇義理肯綮處輒剖析痛快以故雖蒙學鈍根覲德心醉聽言神爽有所感悟錯認路頭墮埴東西者多歸正焉居鄉有聖住武夷諸山愛其地名或徜徉乎其間

中臺金池則為禮佛之地而其泉石居然可愛矣與
六七冠童携簾養靜作山中之客而或經冬閱夏有
時乎訪隨前川而濯纓拔塵見貧乏切己者或分其
縫菴曰待有力而濟人則竟無其日矣里中空舍有
僦居者只一妻一女而出外數月果死不還其女年
可八九哀痛足令行路堪涕先生益加矜憐曰異哉
此女以童穉何知而喪父號痛如是無乃或出於未
喪服之餘憾乎愛其良知召其母遺布一段使之裁
喪服而着之乙未冬外虎肉俵打成一片有弑國
母之變而毀削之辱上及龍顏柳義士麟錫以省

翁從姪依重峰故事仗義起復提戈東峽剗剗賊窟
先生遣人致書欲密謀運籌之幄矣及力屈勢縮轉
客遼東先生以親老身病不得越國遠遊開戶為自
靖計世級日降凶焰漲天斯文墜地乃謀詢士友初
建朱宋兩夫子影幀於所居寒泉潄上遂庄土而經
始之春秋享祀如晦軒安文成公故事或會講習禮
章甫聞風助力者亦多矣親作朱宋兩夫子遺像奉
安文而虔潔焉曩者勉菴崔先生撰奇蘆沙碑文有
多少發揮一番人素岐貳奇公者補以侵犯栗谷挾
摘句語攻斥無餘而執咎論駁又及於勉翁先生左

右調停反被情外之責謂以黨同伐異面詰書質一併撕捱先生犯而不較久而後已竊憫其一時橫逆而亦可見時運之衰斯文之否也乙巳冬賊酋肆凶勒成偽約則大勢已去國非我國矣先生與勉翁會講于尼山闕里祠相議處義方畧約與同時抗疏俟漿稅駕彼知其幾締結上下諸般奏御文字一切退却無以備乙覽矣遂齎恨還第常有恭室之憂丙午春閔公宗植舉義洪陽要與同事先生辭謝之及在衽革專使促行不得已與門人李教憲族姪容源往赴義陣則滿城噍類歛然無生之義而勝敗之幾

已執左契矣于時金公商憲柳公浩根先人在座而禍在呼吸講究處變者只是熊魚取捨而已矢石之中又呼一絕曰洪陽城裏二孤臣非子誰能成此仁吾亦斯時同義者但知有國不知身蓋矢志也侵晨城陷遂從容就縛滯囚郡獄因拿上漢城之狂狷其所謂司令部者也同時勉翁倡義湖南被執囚繫於一獄毅然處坎朝晡之供自我具進屢度詰問嚴辭峻責炎熱之苦飢渴之甚有同蘓中卽雪窖而處之怡然與同囚士友誦書而講義或作詩而見志首尾凡五旬始許放出勉翁則櫛以眾毆縲紲益嚴先生

以爲死生禍福義無異同故久不出賊乃標而出之
遂逗遛京中月餘等待彼之防守嚴密無路相面至
勉翁馬島之行而始歸家丁未冬又與金公福漢同
爲被執天雪板屋苦楚無數問質之塲毫髮不挫賊
乃託以年老而放還其後白地橫罹不止一再皆出
於瓜牙彼賊者媒孽吹毛故也先生素患風病四體
不仁由於傷時積憾難醫之症於是乎兆矣至庚戌
七月 宗社不臘而北牖臣隣廢朝於 西宮則臺
城之厄五國之辱莫過於先生聞變大慟頓絕
更蘓如是數矣使家人具由告家廟又使門人白觀

亨致告于朱宋兩夫子之像即病枕口呼也其文曰
後學某病伏床褥朝夕待盡未克瞻謁使少輩替告
曰金虜猾夏宋帝北狩朱夫子為嗣皇主討復以明
不共戴天之義清虜僭閔明社南絕宋夫子為大君
守藩蔽以明報再造之恩賴茲兩夫子應時而生大
綱大法不墜而復存自神州陸沉禮在于我東而兩
夫子之道昭明如日中天又是青邱一邦哲人亡而
善政息理隱氣橫剝盡坤極讐夷乘釁而問鼎逆臣
假威而竊權蠹嚙在內虎食其前凶鋒毒丸倍加於
北狩之歲孤城殘兵不啻若南絕之日人無討賊復

讐之義世乏傾丕濟屯之才援何時於赴蟻勢難容
於觸熱欲將西銖且無亨魚之周所以蹈東只願盡
鳥之齊三千里生靈化為禽獸五百年 宗社覆以
邱墟端木存魯之長策豈獨專用於前世矣子房報
韓之孤忠或可復見於今日歟方當天地之翻覆深
切羹牆之慕含冤奉告垂察鑑陶自是寢食專廢竟
於是歲十一月六日終焉壽六十九門人依黃勉齋
服晦翁故事以白巾環經視事權厝于家後負西原
將移窆也嗚呼義兵昉自何時始於 宣廟壬辰金
健齋十鎰之赴湖南而拒守沁都繼間謀而復京城

之陷其功大矣猶被逗遛不進之譏至晉州之殉而
烈節大彰隻身投虎口有死而已無益於事而有補
於後世名教可慨也已承旭預知合併之幾於庚戌
之春設謀彼域遊說萬端終不聽從竟有聯邦之變
滯囚犴狴屢被酷刑竟至兩肱俱折五朔而出因患
疽幾死而生但唱採薇之歌忍見離黍之秀今讀先
生之狀萬刃攢腸復起平日之壯心嗚呼冤哉先生
天姿溫粹性度豈弟幼襲義方不失其赤早遊京華
不涅其白中途覺悟一變至道而本乎石潭祖乎華
陽其學問淵源之正人皆擬之於宓氏之東魯矣因

是而憤懣篤行勇退於昏溺之波而卓立於正大之域體真腴於講習而成利器於盤錯養德山樊肥遯龍蛇之蟄而未聞臯鶴之鳴則干旄莢帛無怪乎不及於門也粵自以往鬼魅蹄跡充滿宇宙嘗曰若無聖人救世之策吾黨處義當取掌嘗膽不甫則依金仁山許白雲金華古蹟而已勵志篤善為畢生家計恒居雖慄如而茶飯常談匹似閒事非害於義者亦或如流而從於人若其講明所在尊攘所繫自有一部定本瞭然於腦中不屈於衆不貸乎人雖髡髮不張亂其辭賣育不能奪其勇此其所守所存之大畧

也有遺集藏于家配達城徐氏藥峯忠肅公消后相
集女繼配清州韓弘裕女并無育取三從錫禹之次
子秉源子之生柱河柱華皆就聘秉源來託先生玄
晏顧此八耄昏眊何敢承當只就其本狀畧加存刪
以歸之

先生沒後十六年乙丑陽月之朏門生完山李承旭
謹撰

②〇 華汀卜居說

庚寅春余自維揚之西浮湖而南初居于鈞城之栗里村矣家宅不利
水土不服乃復移動遠近絕無可居者竊聞藍田有武夷山山下有寒
泉上有華汀蓋其山水之名偶與晦翁所居相符而村之西五里地
又有新安祠以朱子為主壁以我東白壘齋李益齋宋尤菴權
遂菴韓南塘五先生為配食焉尤亦盛矣嗚呼天有陰陽消長
之理世有治亂盛衰之運六先生俎豆之所忽焉而鞠為茂草
矣亦自近日設壇炷香以伸後學之私情而山之高水之清依舊
是諸先生之道虎心潭則院之成毀不復論也竊惟朱子孔聖後

一人朱子朱子後一人也且白季兩賢生於羅麗陋俗之末卓
然立於空教之外而能尊信朱子之道權韓兩先生親受尤翁
之學遂得嫡傳之任四先生所造雖不敢窺其淺深疎密之不
同一是朱宋之學則後生之尊慕豈有間哉遂決意定居
縱不若古人合完之義集書札菊聊且粗略乃於暇旦登山而俯
野則昭曠之域豁然於眼前臨水而逝障則流動之波霽出於心
頭且其汀島浦楫野花山鳥亦合出人之趣此吾所以桑榆之景
而又得與二三子誦讀朱宋兩夫子之書脫然免於鷗兒汗塵則我
之上此豈偶然哉喜其山水之名而識之

② 三希堂自號記

凡於天地間有物必有名有名必有呼亦有有名而不敢呼者人之尊於己者諱其所獨耳可得聞而口不可得言也蓋子之於父臣之於君卑之於尊賤之於貴幼之於長皆不可得以呼也惟字者表德也雖尊於己者固不當諱也故子思補其祖而曰仲尼伊川補其師而曰程叔此皆聖賢之事固不當疑也後代諱法轉甚今亦不可依此而敢呼尊者之字也自唐宋士君子別作自號或以地名或以堂名使卑者幼者呼而不諱其法亦美矣故余亦自號讀書室曰三希堂蓋號者有德成道尊者而後著題也豈人人所當有哉

無德而有號如無物而稱名人豈信而呼之也然則
余之不德豈不僭哉遂以稟質于重庵金先生省齋
柳先生則曰不然有堂則有號如有地有人則必有
其名古人多行之者今子名其書堂亦不為僭也重
菴先生遂作堂記論周子希天希聖希賢之言而
勉之省齋先生亦書三字使之揭板為寓目策勵之
資愚常伏讀記文仰瞻揭筆如侍兩先生之在座而
亦所自勉其三希之義也果若顧名而進德則今日
之號亦不為僭也徒為粧飾門楣衆目觀美之資則
吾一身之美號兩先生之至意豈不虛偽哉自不勝
戒懼而驚省焉

② 栗農申先生事實記

先生姓申氏本平山諱櫟字聖芳栗農其自號也始祖諱崇謙高麗太師謚壯節十二世祖諱錦謚文節與靜菴趙文正公并享俎豆十世祖諱礪監役不仕壬辰之役第某官砮殉於忠公奉母夫人死於孝

命贈旌尤菴宋先生撰實蹟八世祖諱埶遭丙子亂以白衣上疏請雪天朝之耻世補大明處士考諱命健號遯川居士性度峻嚴為士友所推重妣唐津韓氏生負邁之女以憲廟戊戌九月十九日生先生於抱川別業先生器度宏厚氣宇骀驥以門戶之

計早習功令戰藝場屋自少壯時儕友咸遜一頭地
篤守家規淹貫經史至於義理邪正尤審取舍而便
自擔負無所回互焉甲戌 皇壇之請復也八路多
士同聲籲天先生以首疏首數朔叫閤旋復 廟享
繼以復華陽院事再舉封章而 天聽邈邈則抱冤
歸鄉惜乎時運末如矣 國家自通商以後倭釁已
啓講和日深嶺儒最初抗疏未蒙 允俞至辛巳而
國是大定先生與勵志堂洪公在鶴齊聲瀝血痛斥
和議四朔叫 閤三度封疏旋被 重譴臺劾繼發
洪公被東市之慘先生嚴刑三次定配于金甲島人

皆擬之於陳東高登者蓋其抗義與戡罪前後符合故也千里脚血四年經海處之裕如而特以二尊人垂老在堂家國之戀寤寐憂傷則陟屺祝天悠然北望而已同時重菴金先生以士林領袖亦懼文網幽于智島而相距遼遠書疏往復有如胡澹菴在海上日與知舊唱和往來不為禍福動者而益聞處義之大方脈膺尊信無異親炙厥后重翁之沒加麻甚慟焉甲申始蒙 睿還則居士公已下世以不得面訣為終身之恨自後杜門斂跡益痛國事之日非倘佯湖海之興區復理舊業獎拔後學以為畢生之計竟

於己亥八月三十日痛恨而沒春秋六十二嗚呼先生遺行槩悉於遺稿不敢以拙手掄揚矣粵自南渡以後喪其資斧迫於事勢而韓孺人墓土無力營辦遂忘衰老追踵古人舌耕績有年所而買置仞一之田伯季二公析箸處涸輒復賑給者亦屢矣則人皆謂薛邑之篤行而猶為疎節也然則先生所就孰為大乎蓋聞春秋之義莫大於尊攘而我國自夫丙子講和拖至庚戌戊午其禍罔極混為禽獸之域矣其間非無諸君子焦頭爛額立殫效忠者而世之論大義者皆以洪公與先生為首何也君子貴絕惡於

未萌而禁於將然之前曩者辛巳之疏力主斥和扶
天下之大義明華夷之大分觸冒九重備陳曲突
徙薪之策雖其事功未究亦足以有辭於後世矣尤
翁所謂日月不墜則其光不滅河海不竭則其節不
泯者非歟當時二公之義據朱子韋布亦言之訓則
可謂亭當白直九死靡悔而朝家戡處同罪殊科死
生雖異其義則一也勉菴崔先生嘗作墓表而發揮
引重殆無餘蘊則復何待後世之子雲也後之尚論
者亦當考信於此云

②3 祭再從姪三希堂文

維

永曆二百六十四年歲次庚戌十一月辛丑朔十四日甲寅再從叔建五茲以菲薄之奠哭告于再從姪三希堂之靈曰嗚呼吾家世居維揚之西山自在孩蒙遊則共方學則連業未嘗一日相離而先兄嘗拊君指吾而言曰汝年長七歲序居叔行遊戲之有方學業之勤慢汝實導此兄之指南車也汝其勉之吾時雖蒙駭深知其訓之鄭重時時惕慮未嘗無相資之萬一也且吾初不承祖考妣之顏兼無昆季叔伯

之親嘗並侍於君祖母之膝下呼之以伯母君祖母亦視之若猶子自幼至長常差一日也及其各自成冠以後專事功令之業或京鄉各離或春夏相分者幾年耳吾年三十緣於家計之窘貽移寓於陽城之葛坪程道迨近二百里君不肯來吾不頻往差江湖之西忘者爲幾年矣至吾轉移于湖西庀仁之鄉君亦移書琴於同里朝夕源源無異梓里之舊居居四五年君不勝鬱鬱之懷旋卜吉于藍浦花汀之村顧吾他鄉孤蹤深惜其合而復散乃從而從之鶴髮鳩筇迭相往來自擬晚福之清蘊矣先安一崇積年沈痼殊土殘年棄我先去此豈人情之所可忍言哉古

人言兄弟之喪曰割半之慟而今吾之喪君不啻割半而如割三分之二豈古人兄弟之親有不如吾叔姪之恩顧吾叔姪之誼有倍於古人兄弟之親之所致也惟此失二分人坐待泉下之復見不亦難乎且君嘗以堂上老慈恐貽逆理之慟爲憂今忽先逝胡寧忍斯喪禮棘人之答吊狀式曰某罪逆深重不自死滅禍延先妣君好禮者抑或酷信此書先自死滅欲免罪逆深重乎然有不然者此乃居憂人歸罪於己之辭非信以爲先自死滅之爲諭也旣曰逆理寧有理逆而事順者乎言至於此自不禁口噤而臆塞也至於歛龍衣之節君所常言者而襦袴衾褥終難免

瀚濯常著而用之何幸門內之助朋友之賻多出意表得免補濯之憾於君雖如黔婁露足之裏固無損益於冥冥之中其在後死者之責賴此優助幸免一門之羞恨幽明雖殊庶可默諒耶至於家計後事之同涯雖有智者不能為齊計而當此舉天下入夷狄之世獨能行人道修人事而豈敢望冬暖而不呼寒年豐而不啼飢耶然則貧窮凍餓固常理之當然自分之甘心溝壑之在前不敢惡死然而天道福善必無盡劉之理所恃者此也今此允子秉源天賦純篤多年侍湯晝夜洞屬無所懈惰其在親意小無違忤宗族鄉黨莫不稱其孝焉及至袒括哀憾踰度可見

其至行之自著也且孫兒昆季幸已加冠俱有地步
既有其子又有肖孫加以培養門戶可以守成家計
可以就緒此一門之顯望者也而靈亦無憾於泉臺
其將曰予有後也差乃君之平生施爲抑有可說者
青春科臼旅遊洛社抽黃對白超然有倚馬之聲譽
銀青金紫隱然差探囊之可取及至二毛之年幡然
改轍立志學文私淑于華西先師親炙于重省兩門
麗澤于勉毅二公源之以三綱五常之道明之以冠
婚喪祭之禮凡於士君子當行之事靡不用力篤行
而最是尊華攘夷衛正斥邪之分明目張膽刻骨銘
心有貫育莫奪之勇至於日用器皿衣服之節絕不

用倭洋之物或有朋友間太峻激太固執之譏則乃
曰此是今日爲士者之大頭腦大關鍵復何峻激之
有哉遂自以爲是而同門羣彥亦多許其素懷此孟
子所謂聖人之徒也朱子所謂主人之邊也連自南
下以後列邑章甫之有志于學問者莫不恨相見之
晚而交相往來者數年矣乃與申栗農趙龍谷相與
語曰此時華夷之辨人歟之辨自是吾儕之所擔分
而亦非吾儕之所自立也追尊朱宋兩夫子爲歸宿
之所然後凡我士類皆有依歸乃首自發文靡然從
之場得幾千金構堂於村之西幘而奉之禮而享之
或會飲以習禮或設講以講義巍然爲一省之矜式

越自幾年以後倭洋懷襄之波莫之能禦百川沸騰
狂瀾橫倒於是乎同門受業者有出此入彼者講明
道義者有宣言陰擠者門前寥寂可設省羅嗚呼惜
矣嗟夫洪陽之行轉入洛城以至犴狴恨不與勉菴
先生同渡滄溟旅櫬以歸而此亦命也不必介意至
於暫罹鴻郡亦一土倭之喉嚨而彼人之侮弄不足
掛齒而動輒得謗名亦隨之可謂非怒伊笑也今於
門徒中幸有歲寒之松有立門之雪又有甘可受和
白可受綠者多矣門內少輩之恐浸溺於滔滔之波
者賴君之力援畏君之能排幸不入於胥溺自今以
往雖不肆然縱意必不如耳提面命之爲功何痛如

祭再從姪三希堂文

永曆 264년 경술년¹⁾ 11월 14일 갑인일(甲寅日)에 재종숙 建五는 적고 변변치 아니한 전(奠)으로 재종질 삼희당의 영전에 올면서 고한다.

오호! 우리 집안이 維陽의 西山에서 대대로 살아오면서 어린아이 때부터 노는 것도 함께했고, 바야흐로 공부하는 것도 함께 하였다. 일찍이 하루도 서로 떨어져서 있지 않았고, 돌아가신 형님²⁾께서 일찍이 그대를 가리키며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7세나 나이가 많고 순서로도 아저씨 항렬(叔行)이니, 노는데 있어서의 방법이나 학업 하는데 있어서의 부지런하고 태만함을 네가 실로 이끌어 이 아이의 지남거(指南車)³⁾가 되어야 한다. 너는 그것에 힘써라” 하고 하셨었다.

그때 내가 비록 어리석었을 지라도 그 가르침을 정중하게 깊이 알고 때때로 삼가고 두려워하면서 일찍이 만에 하나라도 서로 의지하지 않음이 없었다.

또 내가 처음에 할머니의 얼굴도 모르고 겸하여 형제나 叔父나 伯父가 없어 그대의 할머니를 함께 모시면서 그 슬하에서 큰어머니로 불렸다. 그대 할머니 또한 나를 조카처럼 여기기를 어려서부터 장성했을 때 까지 항상 하루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각자 冠禮를 이룬 후에는 오로지 功令之業⁴⁾에 전념하거나, 혹은 京鄕에 서로 떨어져 있거나, 혹은 봄가을로 서로 갈라져 있기를 몇 년 하였다.

내 나이 30에 가계가 어려운 인연으로 陽城의 葛坪으로 이사해서 살았는데, 다니는 길이 200여리에 미쳐서 그대는 즐겁게 오지 못하고, 나 또한 자주 가지 못했으니 江湖의 양쪽이 서로 잊은 것처럼 하기가 몇 년이었다.

내가 湖西의 비인 고을로 이사를 하니, 그대도 또한 같은 마을로 가야금과 책을 옮겼고, 자주 보게 되어 고향에서 옛날 살 때와 다름이 없었다. 비인에서 4-5년 살고 그대는 고향 떠난 울적한 회포를 이기지 못하여 다시 藍浦의 花汀村으로 이사하였다.

돌아보니 나도 타향살이가 외롭고, 심히 애석하였다. 그대와 합치려 하였다가 다시 헤어지게 되었으니 이에 내가 이사하여 뒤 따랐다. 흰머리 날리며 지팡이 짚고 서로 교대로 왕래하니 늦게 복이 맑게 쌓이는 것처럼 되었다.

망령됨은 없었으나 여러 해의 고질병이 한 가지 빌미가 되어 이 땅에서의 여생을 단절하고

1) 1910년

2) 삼희당 부친 尹羲五

3) 방향을 제시해 주는 무기

4) 과거 또는 그 과거에 사용하는 시문

그대는 나를 버리고 먼저 갔으니, 이것을 어찌 인정에 있어서 차마 무슨 말을 해야 하겠는가? 오늘 내가 그대의 상을 당함에 나의 절반을 가르는 슬픔뿐만 아니라, 3분의 2를 가르는 슬픔과 같다.

어찌 옛 古人의 형제간의 친분이, 우리 숙질간의 은혜와 같지 않음이 있겠는가? 우리 숙질간의 情誼는 고인의 형제간의 친분보다 한 배나 더 많이 있는 까닭이다. 오직 잃어버린 절반을 사람들은 저승에서 앓아서 기다린다가에 그대 다시 보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일찍이 집에서 老親에게 逆理의 슬픔을 끼칠까 걱정하였었는데, 이제 홀연히 먼저 간 것을, 어찌 차마 이 상례에서 상주가 답할 수 있겠는가? 조장서식(弔狀書式)에 ‘죄역이 심중하여 스스로 죽지 못하니 화가 先妣에게 미쳤다’ 하였는데 그대는 禮를 좋아하여, 아니면 이 글을 酷信하여 스스로 먼저 죽어서 죄역이 심중함을 면하려 하였는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 이것은 상을 당한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돌리는 글이지, 믿으라는 것이 아니다. 먼저 죽음으로써 하라는 것은 유시(諭示)의 글이다. 이미 말하기를 逆理에 어찌 이치가 있는 것이며, 逆理에 어찌 순서가 있는 것이겠는가? 말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입을 다무는 것을 본래 금하지 않았던 것이 가슴이 막힌다.

염습의 절차에 있어서 그대가 항상 말했던 바대로 속바지와 이불 요는 끝내 세탁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항상 입고 사용하겠다는 것이 무슨 다행한 일인가? 집안의 도움과 朋友들의 부의를 뜻밖에 많이 얻어서, 집고 세탁하는 근심은 면하게 되었다. 그대가 비록 금루(黔婁)⁵⁾처럼 맨발이 드리난다 할지라도, 유명(幽冥) 중에는 진실로 손해와 이익이 없고, 나중에 죽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책임이 되었다.

이러한 우조(優助⁶⁾)에 힘입어 다행히 우리 一門이 수치 당하는 恨을 면하게 되었으니, 幽明이 비록 다르나 그대는 묵묵히 헤아리게 될 것이다. 家計의 뒷일에 이르러서 곤란한 일이 지속되면(罔涯) 지혜 있는 그 누구라도 능히 가계를 다스리기 어려운데, 그대는 천하가 夷狄의 세상이 되는 때를 당하여 홀로 능히 人道를 행하고, 人事를 수련하기만 하였으니, 따뜻한 겨울에 추위를 외치지 않고, 풍년에 굶주림 때문에 울지 않기를 어찌 감히 바라겠는가?

그런즉 빈궁하여 열어서 굶어 죽는 이치는 당연한 것이다. 자기의 분수에 감심(甘心)하고, 구학(溝壑)⁷⁾이 앞에 있어도 감히 원망하고 탓하지 아니하면, 하늘이 선 한자에게 복을 주어서 다 죽이지 않는 이치를 믿는 것이 이것이다.

5)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으로 청빈하게 살아서 죽어서 수의를 만들 수 없었음

6) 넉넉한 도움

7) 구렁텅이

이번에 아들 秉源이 천부적으로 순독(純篤)해서 여러 해 주야로 시탕을 성실하고 전일하게 하여 해타(懈惰)가 없으며, 그 친의(親意)를 조금도 거스르는 것이 없으니 宗族 鄉黨들이 그 효성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상을 치름에 있어서 슬프고 근심하는 것이 지나쳐 보여서 그 지극한 행동이 스스로 나타난다. 또 손자 형제들이 다행스럽게 관례를 갖추어서 지보(地步)가 있게 되었다.

이미 그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어서 門戶를 培養할 수 있게 되었고, 家計를 이루어 지킬 수 있게 되었고, 계통을 이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한 가문의 기대(소망)인 것이다. 영이여! 무덤 속에서도 유감이 없을 것이고, 장차 ‘나에게는 후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청춘에 습관적으로 서울에 노닐면서 抽黃對白(형식적인 면에만 치우쳐서 글을 짓는 것)을 하여, 초연히 아름다운 말(馬)의 명예가 있을 수 있었고, 재상의 지위는 은연중에 주머니를 뒤지면 가히 취할 수 있었지만, 32세에 마음을 돌려 그만두고, 학문에 뜻을 세우고 華西先師를 사숙하고, 重菴과 省齋의 두 분 문하에서 친히 배우고, 勉菴과 毅菴 2공과 벗이 되어 서로 격려하는 것으로 근원을 삼았다. 이것이 그대가 평생 시행한 것 이거나 말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三綱五常의 道를 밝혔고, 관혼상제의 禮를 선비 군자들에게 일반화 했고, 마땅히 행하는 일에 힘써 독행(篤行)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누구보다도 존화양이 위정척사의 구분을 용기를 분발하여 일을 하고,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어 어떤 역사(力士)가 있어도 빼앗지 못하는 용맹함이 있었다.

날마다 그릇이나 의복을 사용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절대로 倭洋의 물건은 사용하지 않았다. 朋友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나 큰 고집이 있으면 나무라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선비된 자의 大頭腦이고 大關鍵인데, 어떻게 격렬한 논쟁이 있겠는가? 오로지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하면 동문의 모든 선비는 또한 그 평소의 행동을 허락하는 것이다. 이것이 맹자가 말하는 성인의 무리이고, 주자가 소위 말하는 주인의 邊이다’ 라고 하였다.

남쪽에 내려옴에 이르러, 이후 고을의 선비(章甫)들이 학문에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서로 만나 본 것이 늦은 것에 대하여 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서로 왕래하면서 사귀기를 여러 해 하였다. 申栗農 趙龍谷과 서로 더불어 말하기를 “지금 華夷之辨과 人獸之辨은 본래 우리가 담당해야 하고, 또 우리들이 세워야 한다” 하였다. “주자와 송자 두 분을 추존하고 귀의할 곳을 만들고, 그런 후에 무릇 우리 士類들이 모두 依歸하자”고 하였다.

이에 먼저 발문하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따랐다. 몇 천금을 얻어 모아서 화정촌의 서쪽에 집성당을 짓고 죽자(영정)를 봉안하고, 예를 올려 향사하면서, 회음(會飲)하면서 예를 익히기도 하고, 강좌를 만들어서 강의(講義)하니 완전히 한 고을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몇 년이 지난 이후에 倭洋의 침략 파고가 모든 냇물이 끓어오르듯 하고, 거센 물결이 넘쳐듯 하였다. 이때 동문수업자 중에는 이리저리 드나드는 자가 있었고, 講明道義하는 자도 있었고, 몰래 배척을 선언한 자도 있어서 문전은 쓸쓸하여 고을에는 새 그물을 칠만하였다.

오호! 애석하다. 洪陽 의병에 가담 하였다가 걸어서 서울에 들어가 오랑캐의 감옥에 이르렀으나, 면암 선생과 더불어 함께 푸른 바다를 건너가서 죽어서 돌아오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다. 이것 또한 命이니 개의할 것이 없다.

잠깐 사이에 우리 지역에서도 왜의 사주로 저 사람들이 그대를 모욕하고 희롱하는 것도 부족하여, 입에 담아져서 걸핏하면 비방을 받으면서 이름까지 따라 다녔으니 가히 노하지 못해 웃음이 나온다고 이를 만만 것이었다. 지금에 이르러 문도 중에는 다행히 추운 겨울의 소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고, 눈 속에서 배우려는 자들과 있고, 단 것이라야 조리(調和)를 받고 흰 것이라야 채색(彩色)을 받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

집안의 여러 무리 들이 흙탕물의 파도에 빠져드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대가 힘써 구원하니, 그들은 두려워하며 그대를 배척하였으나 다행히 邪說에 빠지지는 않았다. 반드시 남의 귀를 끌어당겨 알아듣게 가르치는 것(친절하게 가르침)처럼 하지는 않았지만 이후로는 방자하게 마음대로 하지 않아, 그 공을 이루었으니 내가 그 비통한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또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다. 그대가 평소에 통분을 참고 원한을 머금고 쌓인 분노가 있겠지만 지금은 크게 돌아갈 곳이 있으니, 그곳에는 앞서 말한 私淑한 사람들이 앉아 있을 것이고, 친히 배운 사람도 줄지어 모시고 있을 것이고, 서로 격려하면서 배운 사람도 곁에 있을 것인데, 과연 요 몇 년간의 하늘을 불사른 불꽃과 천지를 번복 시킨 일들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진술하여 떨쳐 일으키고 저승의 권위로 여러 해 된 요사스런 기운을 없앨 수 있겠는가? 아니면 運數가 부러져서 이승과 다름이 없으니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자 한다.

여러 가지 쌓인 회포가 넘쳐서 문장은 짧고 정신은 혼미하여, 간략히 그 대강을 진술하니 그대는 그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오호! 슬프다! 상항!

-황의천 역-

之又有一說焉以君之平日忍痛含冤積忿而在令
於大歸之地向所謂私淑者在座親炙者列侍麗澤
者在傍果能詳陳其幾年間燔穹之焰天地翻覆之
事奮揚閭符之威權洞滌經年之妖氛乎抑爲氣數
所使與陽界無異初無着手處乎欲爲就質焉積懷
彌中文短神眩略陳其槩君其知耶否耶嗚呼哀哉

尚饗

②4

祭三從兄希堂先生文

庚戌十一月

年月日三從弟某謹以酒脯再拜哭告于三從兄三
希堂先生之靈曰嗚呼先生一門挺出為世鴻儒胚
胎前光承襲猶祖貞介其志端粹其容早事功令出
八科曰幡然改悔追尋門路蘖山屹屹斯文正脉得
其嫡傳重省兩門齋誓捫衣嘉陵壽春侍雪坐春服
勤事一耳提面命申申丁寧尊攘之事扶抑之義修
己治人凡諸要訣口傳心受退守緊密不入城門龐
泉獨我踽踽孑家踵後山高水長永矢考槃論道講

公之行盡取焚帙許氏之事卓然師古乃嚴律令持
身以敬教人以義三復兩箴敬齋夙興恒誦一篇聖
謨賢訓居家好禮四時正祭開牖後蒙兩門俱許存
中發外聲譽遠播朋自遠方俊彥盈門如我蒙騷少
暇訓戒親屬總列義兼師生歲之乙酉負笈西山鞭
打醉夢驚覺昏寐謂我質美引汲兩門嗟我至愚乃
至無聞然於狂波庶不胥溺究厥指引實賴先生嗚
呼西焰燔穹宅近日下簾离塞兌惟恐點污乃歲庚
寅同我南渡三年化衆花樹接隣移宅卑比藍之寒
義二三諸子時事日非氣數所使華夷人獸幾乎同

羣擔負春秋朱宋兩賢此時黑宰最所尊慕倡明義
諦創建祠宇收議多士畧設蘋藻先生血誠其在于
是矣此其先生為學講義之大槩也若言施為事業
之足為殄式者固不止此而易足以盡之於一幅誄
文也蓋其蚤繇牛毛小德川流有非末學所可窺測
而至於見義分明扶植大防斥邪謹嚴不掘威武此
乃平日所執也嗚呼洪陽之事其奈于天不學軍旅
之事而莫助運籌又况親在而不許友之地乎雖然
壹者入城出於勸同志之倡義伸韋布之忠憤而不
幸當夜見敗橫罹而放還厥後浮謗噂沓驅納吾檻

自是末路常態則不必較詰矣噫此誠何時祖宗疆
土盡入賊手凡我族類皆不欲生而先生憮然厭世
深衣大帶永歸泉臺則朱宋在座重省後先親切反
覆必無異於陽界矣伏願備陳時象控訴上帝而小
回陽九之運使吾東表復見天日之明得免左袵之
耻百拜恭俟焉嗚呼九原難作抑有所痛迫者未克
在世孝使九旬慈闈慟逆理於晝夜之哭也至於家
事之蕩析在常時尚不憂貧更何眷戀於地下乎內
有秉源拮据末梢外有白觀亨甫收拾餘緒庶其無

憾矣嗚呼先生一去如摧棟樑繫我家君俵俵無依
以情以義無辭奉慰靈若有知同此感緒矣荒辭支
煩恐近于瀆敢述衷赤以伸情素尚饗

②5

祭希堂尹公

錫

鳳

文

維歲庚戌之某月日三希堂尹公正終于藍浦花汀之正寢蓋以
憂時病世沉疾委床者已數歲矣完山柳浩根屢年拘旅病未趨
診沒不赴哭始以翌年辛亥八月壬子略綴數行漬絮以酌哭告
于象設之前曰嗚呼哀哉公之病沉綿者數歲之久余胡爲一不
問疾公之歸歲且及期余之哭胡乃遲乎今日余固負乎幽明公
之靈寧不悵乎其有失念余姿之不齒於人公昔先顧于蓬華屢
申申其垂誨余不覺其屈膝誦華省之嘉言祛乃私而矯乃質世
方紛乎喧逐戒余正其殼率高其冠而垂其紳每惺惺而慄慄建
精舍以祠朱宋警頽俗而欲歸乎一倡多士而講禮于祠之庭籩
豆嘉而絃誦洋溢自宗族以及乎朋友乃惠義之無間乎疎密昔
余禍之孔酷惓惓乎其不忘憂恤感茲義之銘心何風流之乃爾

篤實恨余識公之差晚未克悉乎始卒曰見義而甚勇棄功令而從事儒術語心性則華翁是師仗大義則大老惟述若夫所造之淺深余未及乎入室誨不倦而鼓之舞之門有弟而彬彬秩秩罵賊而眚裂憂國而髭白晦翁以爲忿怒之由正以出矧公之剛腸病於讐夷之憤嫉繼之以慟屋社而從乘化在今古而疇匹若夫丙午之遘跡人或妄加以呵叱若余者固有失乎徑竇公則從容乎坐待斧鑕彼夷虜者偶不加及公則據實乎問詰公有謗而止乎無辨何傷乎時人之不悉公有書而可讀公有禮而可律公有子而有孫猗松茂而蘭茁庶繼志而述事優有望乎斯文世道之可必愧余棲遑乎旅館旣口瘖而手拮旅瑣瑣而困蒙拚靈幄而若見貶黜藍水咽咽花山翠翠一聲長慟我恨難畢我蕪辭而酒薄公或享以芬苾

②6 祭尹希堂先生文

天賦間氣篤生其德清明俊偉慈詳懇惻早講正學民
彝物則服習自然中行獨復於華重省之緒言悅蕩秦
而味菽粟曠夷然確有不可拔之志和樂焉凜有不可
犯之像潔如秋水溫若春陽孝友忠信日用之常嗚呼
如使先生而致用庶有見大任重責陳謨經幄而可以
誘衷專對四方而可以不辱造俊髦而彙征振頽綱而
維持措諸事爲觸類長之胡然天道難諶豐於賦而嗇
施知通塞之不均豈司命之二機粵自中年世事日非

遂抱堅貞消長之幾况乎鱗介混跡邦畿變恠百出挈
家而南齒德長老同三窮約素分簞瓢是甘所憂者道
黑夜沒倫最大時義尊攘爲先寓慕羹牆朱宋兩賢建
祠安靈致誠吉蠲非謂往哲欲啓後人斯文共修推許
勉翁幾事語默約與始終天不祚宋果難收功並被虜
拘去就異同直氣粹容字及冥頑義重命輕所保者天
噫彼無理之訾議兮誣伯夷之不潔乃知其虛無而吹
覓兮不過是盡出於妬嫉良由制行之不苟合兮執古
今而不一屬君子之信筆兮不待百年而可質風邪暑
濕之爲疾崇兮處處獄五旬而經毒感肖胤之誠孝兮

殫技方於醫藥雖體羸而氣愜今謂神佑之可獲曩提
誨於小子今豈意真設之伊始歎得正之不如早兮所
願乎二三子之手齋餘憾而沒地兮違慈顏之情理辭
退幾何一月之後天胡不慙禍至斯亟聞音達夕心驚
臆塞此生孔厄形滯旅食情禮蔑如百違心力含歛就
畢晚後匍匐寢門一慟萬事淒涼言念世道非哭我情
陽九益否矣其不喪勉翁先逝四周星霜自茲以往孰
主宗盟困蒙貿貿孰啓其方衆說互異孰持其衡鬼恠
恣橫孰設其防此皆後生之不能不淚痛恨者雖然其
在先生洗耳人間卷懷而歸真固有灑然者而至若親

闡之代養後事之傳重託有其人亦何恨乎冥冥也先生之剛方正大之氣見存於立言著論不隨化而俱亡則後必有知德者而範來裔壽道脈矣天之降哲之意有在於斯而不獨善其身而止則亦何病乎不容於時也小子於先生之學不敢望其藩帷而於先生之心略覩其可好之實矣嗚呼痛矣邦運固極危機斯迫未遑禮月遽開窀穸便使愆滯告期末卽竟違執紼不勝掩抑萬世在前儀刑永隔兩師見背我安歸適哭不可盡語不可詳巖巖花嶽幽躅攸藏風雲慘愴白日沈光拙辭薄奠薦此哀忱英靈不昧庶幾顧歆

②7

祭希堂尹公

錫鳳文

文

唯公師受兩老之門重菴之剛省齋之純淵源有在上溯華翁華翁苦
血攘夷洪功公乃承之先立其大亦有懿行克修乎內言論慷慨帶長
者氣衰季人物疇能與擬遜世無悶晚卜藍田揭奉羹墻晦聖尤賢一
鄉歆動後生爭進指導有急大防痛辨期欲毋墜法門遺規莫救世禍
長夜之悲洪陽事敗公遭縲紲隨問而對本非有失世人工訶洗垢吹
毛在公何傷彼自心勞昔余相識迨公晚齡追隨講討兩忘輩行賤疾
沉淹公又同病醫治有效闔門喜慶曷余獨瘳日報印友憂之愛之孰
如公厚殘喘尙存公則厭世誰繫余足杜門掩涕墓草再宿尙稽告訣
今茲倩人酒薄文拙餘生無幾不悲詎遠病裏哭送微誠是展

②八 祭三希堂尹公文

維 永曆二百六十六年壬子十一月朔日己未侍生月城崔
永祚謹以菲薄之奠哭告于希堂先生尹公象生之設嗚呼重
省高第畿湖老成歷數當今寶維先生性度倜儻氣完魁傑言
議峻正襟懷灑落道尊德備矩方繩直非禮不履為世矜式華
夷尊攘理氣帥卒緊守師說萬夫莫奪朱宋兩賢最所祖述羹
墻江漢若奉宗祏曰余素志希聖希賢所謂名利太虛浮雲運
丁陽九大禡罔極時則先君仗義討復公惟同盟鐵肝石腸成
敗利鈍視彼穹蒼洪陽運籌目無白刃天假餘年玉不俱燼蹟
公晚節俯仰奚忤彼昏無知多般吹覓撼樹蜉蝣任他起滅大
可憂者夷降獸食冠屨倒置玄黃翻覆一片箕封載胥及溺禮

義舊俗無復影響先進長德并歸泉壤公於此時薨然靈光念
彼周京寤寐悲傷遽夢殷楹奄易曾簣何天不憖而奪之速巨
艦摧楫昏衢滅燭哀我人斯俵俵安適顧此愚蒙猥忝同門景
仰德義餘三十年出處之際淑慝之分隨事規戒不啻諄諄握
衣執鞭詎無其願自安暴棄未脫塵溷繼以殘喘重經草土萬
念都灰遂閉門戶承訃之日未卽匍匐靈輅既駕又違執紼歲
月荏苒大期將迫今纔一哭厥罪難贖惟恃洪量河海含藏靈
若有知無吐茲觴

②9

告三希堂尹先生墓文

辛未九月 日

維年月日後學某等謹具酒果告于

希堂先生之墓曰嗚呼先生之棄後學今二十有二載矣美牆之慕景仰之忱追伸於何地哉昔我先生抱道浮海邁軸于石谷花汀之間以朱宋心法自謀而謀人於是士子知趣向鄉邦想其風及其天柱折而地軸裂從而樑木摧而榱桷散則可謂桑海一變而士子無歸宿矣先生嗣孫又奉祠歸北而舊宅未免涑水之蒙恥墓道亦無文公之訪護後生之齋咨興嘆矣但爲西門之悲而已哉嗚呼使先生之德存而未得登庸於時沒而未見俎豆之享亦足爲後人之增歎所以某等區區之意思昔日受賜之大而謀數畝田歲一參展致酹以寓追慕之微忱惟先生尊靈鑑臨焉

③立碣時再告文

癸酉九月 日

嗚呼先生以晦尤心法連堤嫡傳當天地蔑貞人獸混跡之際講明斯道爲後學啓鍵昏衢秉燭頽波砥柱其潛光隱澤雖不闡揚於世實有功於學者大矣豈沒世而可忘哉茲君子所以異乎衆人若猥隣之於狐兔既死而猶存愈遠而見思者也某等學道無聞受恩有素追日月之愈邁仰德容之如在每歲重九敬奠一觴而仰瞻瑩域歲久頽圯因此吉日補土加莎並立片碣今此三尺之豎奚敢日用衛墓道亦可以表我先生順寧之所而只書甲子若其道德文章義理節行之顯揚以俟後之君子可以識先生之學者記實焉噫列泰華以爲般注滄海以爲尊固知先生之不我顧而庶幾可以報先生者習其所訓以求不負皇哀而天不晦禍世變孔酷草薶禽獮必將難免吁吁長夜痛哭何既伏惟積靈陟降帝庭默佑下土風掃雨洗使寰宇廓清吾道復明焉

③1 祭三希堂先生文

維永曆二百四十六年歲次庚戌十月二十四日甲子三希堂尹先生訃車到赤城旅舍而易實在於本月六日辰時而已經十九日之久矣門生金寬濟身在遠方心期百重遂戴麻設位而哭正于臘暝觸冒風雪來拜於靈几之前客啟門室裏奉已畢警咳莫承俄形永漏四顧長悲懷雜抑更以粵明年二月庚午朔八日丁丑謹具菲薄文以哭之曰嗚呼慟矣猗歟先生間氣所鍾允矣君子蔚然師宗早遊系洛今聞克彰退而求志以師四方蘊水真源寔注漣堤先生是受正派在茲學

究天人道該本末誠明精通窮深造約真知實踐
體用相資危安尚著帥級分治烈日秋霜亢字其家
光風霽月洒然其胸萬變呈酬各有範圍以義理
截然莫犯正為陰陽邪正之分華夷人獸之判辭氣
激切尤政侃，世值陽九矢志林樾西山清風恐沈腥
羶浮海而南如鳳飄然山丘武夷水叢寒泉左右琴
書茅棟取間指直杞菊婆娑考槃美牆先師晦尤
兩賢堂遍集茂真躬奉虔朝夕瞻拜春秋蘋蘩朋
來遠方振衣及門諄示不倦春風座上馨香四流山
斗景仰僻洒南鄉一寢正道小子于時恭執洒掃趨
隅十年誘掖備正值事就正見義問疑拍赦維開志

氣昏憤行之不力今我舊我幸每外馳惟先生賜嗚呼
天地翻覆日月昏霜義憤所激八域均同洪漣一赴
躬冒賊鋒惟義所在必敗矣論犴狴受辱抗節直
言北海之幽冷山之滯蘓郎洪公千古一例蠢茲虜酋
亦加被服心有定力髭髮勝昔憶彼訛謗之奔騰兮
嗟世道之乖戾明無揆於白日兮豈可雲之可蔽庵二
豎之不淑兮錦一著而卧床祈神明之所佑兮庶斯
文之未喪嗚呼小子無快寄人旅食昨秋拜辭先生宅
惻反復教詔言猶在耳天胡不慙訃音遽已一轂長
號淚落連泉詎意向拜而訣終天歟不飯舍葬不執

紉辜負幽明俯仰愧忤嗚呼痛哉崑山顏矣景星
沉矣天之涕泣何其酷也性歲哭吾勉翁之喪今又哭
先生之喪哀我後生更誰仰倚哭之又哭萬事已矣
山哀浦思北懷曷孰嗚呼哀哉尚饗

集成堂掌議前都事沈君澤等齊沐裁書
再拜奉獻于

監浦郡守閣下故堂伏以生等曾

河東金先生之

詩曰天地中間有二人輝光元氣聚陽真此果
東儒

者初出第一識論也朱子之後又繼其真

而然以為三者其誰歟黃江樵先生亦有定論

而大成者孔子也其集羣賢而大成

者朱子也其集羣賢而大成者孔子也此亦河東以

後一大議論也。卷此二論而審嘗思之。孔子之前非

無堯舜文武。朱子之前非無周程張邵。宋子

之前亦不無靜退。巢沙河岳之特舉孔朱。邇菴

之卓舉宋子。以其所值之時同而事功之著相符也。

周室東遷。夷狄橫行。宋朝南渡。金虜陸梁。明社

南絕。建姁。邇菴當此天地無陽之時。天女生此

三夫子。任其尊攘大義。是豈偶然。而然哉。雖然。孔

朱之其事較易。宋子之時其勢尤難。然則生

血氣而具靈性者。莫不身親宜無間。然而孔朱

則華聖也天下同尊宋子則東賢也我邦獨尊而
其中又分偏黨西人一邊尊之西人之中又尊事而
至於道學則又有為宋翁之副貳者此非細故也
蓋宋子之學禰乎沙漠而祖乎石潭盡得孔朱
博約兩至巧力俱備則其探天度天之見傾囊酌海之
量何足深賞哉其為福之大乃至院宇鞠草俎豆
盡壞為宋子之後者豈不弼天叫地而大慙於身
三子學不窮則宋子之學亦隨而
亂矣以故湖右

齊誠建毅間茅棟於本郡武夷山下寒泉溪上為其地名所同故也

虔揭朱宋西夫子真像朱宋則孔聖之尊自在其中春秋蘋藻兩聖

會集讀其書建其道將欲防禽獸之禍其勢之弱

如一葦抗海一勺救新究其義則正矣原其情則憾

矣而況出入此堂者皆是窮節腐土之人絕無淵源

大家之流謀始之賢宜料國終之至斯耶嗚呼人心之向

背世道之污隆之可以驗此也安患覆轍無謀奉享無

術相顧相問徒切慨歎天或憫其徠陽之將絕度其

賢侯不之他而遂於茲耶窈伏念閣下先世之學亦

出於華陽而達于考亭則不待生等之懇而尊

賢衛道之誠油然而生矣又況士論顛望之際烏可已

也捲茅茹瓦甍道田耕學則閣下可大可久之業

豈與一時御史臨民之治績同日而語哉古人有行之者

南軒重修靜江先生廟而晦翁記而贊之朱子

亦於南康先生之祠而崇之閣下盍以此二

事法之生等雖銓伏草野畧有一斑之覩豈以

無理之說
不勝祈懇
閣下三教竟焉

藍浦郡守閣下處分

甲辰十二月廿日掌議沈右澤居庇仁

有司白樂恒等單子居本郡

남전 군수(藍田郡守)에게 올리는 글

집성당(集成堂) 장의(掌議) 전 도사(前都事) 심우택(沈右澤) 등은 삼가 재계하고 목욕한 뒤 글을 지어 재배하고, 남전 군수(藍田郡守) 합하(閣下)의 정당(政堂)에 받들어 올립니다.

삼가 생각건대, 소생 등은 일찍이 듣건대 하서(河西) 김 선생(金先生)⁹¹⁾의 시에 “천지 사이에 두 분이 계시니, 공자는 원기요 주자는 진수일세.[天地中間有二人 仲尼元氣紫陽眞]”라고 하였으니, 이는 과연 동방(東邦)의 유자(儒者)가 처음 표출한 제일의 의론(議論)입니다. 주자의 뒤에 또 그 진수를 계승하여, 이분들의 반열에 참여하여 세 분이 되었으니,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황강(黃江) 권 선생(權先生)⁹²⁾이 또한 정론(定論)을 내었으니, “앞 시대 성인의 말씀을 모아 집대성한 분은 공자이고, 여러 현철들의 학설을 모아 집대성한 분은 주자이며, 여러 유현의 학설을 모아 집대성한 분은 송자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또한 하서(河西) 이후의 일대(一大) 의론(議論)입니다.

위의 두 가지 의론을 모아, 삼가 일찍이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자 이전에 요순(堯舜)과 문무(文武) 같은 대성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며, 주자 이전에 주자(周子)·정자(程子)·장자(張子)·소자(邵子) 같은 대현(大賢)이 없었던 것이 아니며, 송자 이전에 또한 정암(靜庵)·퇴계(退溪)·율곡(栗谷)·사계(沙溪) 같은 대유(大儒)가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하서(河西)가 유독 공자와 주자만 거론하고 수암(遂庵)이 단지 송자만을 거론한 것은 처한 시대 상황이 비슷하고 사업과 공적의 드러남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나라 왕조가 동쪽으로 옮기자 오랑캐가 횡행하고, 송나라 왕조가 남쪽으로 건너오자 금나라 오랑캐가 날뛰며,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 청나라 오랑캐가 도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천지에 양기가 없는 때를 당했을 때 하늘이 반드시 이 세 부자를 내셔서 중화를 존중하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대의(大義)를 맡기셨으니, 이 어찌 우연히 그런 것이겠습니까.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공자와 주자의 시대에는 그 사업이 비교적 쉬운 편이었거니와 송자의 시대는 형세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사정이 이렇고 보면 사람의 혈기를 받아 떳떳한 본성을 지닌 자로서 존중하고 친애하지 않은 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당 이견이 없지만, 공자와 주자는 중화의 성인이라 천하가 공동으로 존모하는데 비해 송자는 동방의 현인이라 우리나라

91) 하서(河西) 김 선생(金先生) : 장성 출신의 대학자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말한다. 본관은 울산(蔚山), 자는 후지(厚之). 호는 하서(河西)이다.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낙향하여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저서에 □□하서집(河西集)□□,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 등이 있다.

92) 황강(黃江) 권 선생(權先生) : 우암의 적전인 한수재(寒水齋) 권상하(權尙夏, 1641~1721)를 말한다. 본관은 안동, 자는 치도(致道)이다.

에서만 유독 존송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봉당이 나누어져 한 쪽 서인(西人)에서만 존송하고, 서인 가운데서도 송자의 사업과 공로만 존중하고 도학에 이르러서는 또 울곡(栗谷)의 아류(亞流)라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대개 송자의 학문은 사계(沙溪)를 부친으로 하고 석담(石潭, 울곡)을 조부로 삼아 공자와 주자의 정수를 극진히 얻어 박학(博學)과 약례(約禮)⁹³⁾가 양면으로 지극하고 지교(智巧)와 성력(聖力)⁹⁴⁾이 모두 온전하였습니다. 그런즉, 저 자[尺]를 들고 하늘을 재려는 소견과 술잔으로 바다를 뜨려는 국량을 가진 소인배들을 어찌 심히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그렇게 치부한 크나큰 화로 인해 서원(書院)은 잡초가 우거지고 제기(祭器)는 더러운 땅에 뒹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송자의 후학들이 어찌 하늘을 부르짖고 땅을 부르짖어 크게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송자의 학문이 밝지 않으면 주자의 도(道)가 전해지지 않고, 공자의 도(道)도 역시 그에 따라 멸절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호서(湖西)의 선비들로서 후덕한 자들은 송자의 덕을 존송하고 송자의 공에 보답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의견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본 군의 무이산(武夷山) 아래 한천계(寒泉溪) 위에[지명이 같기 때문에 이곳에 영당을 세웠다] 몇 칸의 영당을 건립한 다음, 공경히 주자와 송자 두 분의 영정을 게양하였습니다.[주자와 송자를 존송하면 공자를 존모하는 뜻은 절로 그 속에 있다.] 그리고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고 초하루보름으로 선비들이 모여 그분들의 책을 읽고 그분들의 도를 강론하여 장차 온 나라가 짐승이 되는 화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세가 조각배로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약하고 한 잔의 물로 큰 불을 끄는 것처럼 미약하니, 의리를 따져보자면 정대하거니와 사정을 따져보자면 슬픈 현실입니다. 더구나 이 영당에 출입하는 자들이 모두 궁벽하고 척박한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명문 별족의 대가 집 후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의를 시작할 때 끝이 이렇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 인심의 향배(向背)와 세도(世道)의 성쇠(盛衰)가 이것을 증험할 수 있습니다. 매년 초가 지붕을 새로 덮을 방법도 없고 제향을 올릴 재간도 없음을 근심하면서 서로서로 돌아보며 묻기만 하고 다만 절절히 개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혹 한줄기 양맥(陽脈)이 장차 끊어지려는 것을 가엽게 여겨 우리 어진 군수님을 다른 지방으로 보내지 않고 이 군에 임하게

93) 박학(博學)과 약례(約禮) : 유교의 정신을 표상하는 양대 골간이다. 공자께서 “군자가 글을 널리 배우고 예로서 요약한다면, 또한 도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子曰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不畔矣夫]”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논어(論語)□□「용야(雍也)」

94) 지교(智巧)와 성력(聖力) : 유교의 발전과 전승을 말한다. 맹자가 말하기를, “시조리(始條理)는 지(智)의 일이요, 종조리(終條理)는 성(聖)의 일이다. 지(智)는 교(巧)에 비유할 수 있고, 성(聖)은 힘[力]에 비할 수 있으니, 백 보(步) 밖에서 쏘는 데 화살이 도착하는 것은 힘이요, 바로 맞히는 것은 교(巧)이며 힘이 아니라.” 한 데서 온 말이다. □□맹자(孟子)□□「만장 하(萬章下)」

했던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합하(閣下)께서는 선대의 학문이 또한 화양(華陽, 송자)에서 출원하여 고정(考亭, 주자)에 도달했으니, 소생들의 간청을 기다리지 않고도 성현을 존중하고 유도를 보위하는 정성이 성하게 절로 생겨날 것입니다. 또 더구나 선비들의 여론이 크게 바라는 즈음에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초가지붕을 걷어버리고 기와를 엮은 것과 제전(祭田)을 마련하여 제향을 준비하게 한 것은 위대하고 영구한 합하의 업적이 될 터이니, 어찌 어사또가 백성들에게 임하여 이룬 일시의 치적과 똑같이 놓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인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한 분이 있었으니, 남헌(南軒)⁹⁵께서 정강(靜江)의 우제묘(虞帝廟)⁹⁶를 중수하자 회옹(晦翁, 주자)께서 기문(記文)을 지어 찬미하였고, 주자 역시 남강군(南康郡)에 고등사(高登祠)⁹⁷를 세워 존중하였습니다. 합하께서는 대개 이 두 가지 일을 모범으로 삼아주소서. 소생들이 아무리 초야에 앞드려 지내고 대략 일반지규(一斑之窺)⁹⁸의 좁은 식견만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찌 이치 없는 말로 합하의 귀를 더럽히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합하께서 재삼 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남포 군수 합하는 처분하소서.

갑진년(1904) 12월 일 장의(掌議) 심우택(沈右澤) 비인(庇仁) 거주.

유사(有司) 백락항(白樂恒) 등의 단자. 본군(本郡) 거주.

95) 남헌(南軒) : 남송의 학자 장식(張栻 : 1133~1180)이다. 남헌은 그의 호이고, 자는 경부(敬夫)·흠부(欽夫)·낙재(樂齋), 시호는 선(宣)이다. 호광(胡宏 : 1106~1161)에게 정자의 학문을 전수받았다. 저서에 □□논어해(論語解)□□, □□맹자해(孟子解)□□, □□남헌역설(南軒易說)□□ 등이 있다.

96) 우제묘(虞帝廟) : 순임금의 사당이다. 장식(張栻)이 계림군 태수(桂林郡太守)로 있을 때 우제묘를 건립하자 주자가 「정강부우제묘비(靜江府虞帝廟碑)」를 짓고 신을 맞아들이고 전송하는 가사 두 장을 지어 계림 지방 사람들에게 제사를 모실 때 부르게 하였다. □□주자대전(朱子大全)□□ 권1 「정강부우제묘비(靜江府虞帝廟碑)」 「우제묘영송신악가사(虞帝廟迎送神樂歌詞)」

97) 고등사(高登祠) : 송나라 직신 고등(高登)의 사당(祠堂)이다. 고등의 호는 동계(東溪)이고 자는 언선(彦先)인데, 송(宋)나라 때 장포인(漳浦人)이다. 금(金)나라 사람이 경사(京師)에 왔을 때 육적(六賊)을 목 베라는 상소를 올렸었다. 주자가 이 사람의 사당기(祠堂記)를 지은 서두(序頭)에 “성인은 백세의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다. □□주자대전(朱子大全)□□ 권79 「장주학동계선생고공사기(漳州州學東溪先生高公祠記)」

98) 일반지규(一斑之窺) : 식견이 좁음을 이르는 말이다. 대통 구멍으로 표범을 보면 표범 무늬의 전체를 볼 수 없고 다만 한 곳의 반점만을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식견이 넓지 못함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33

集成堂完文

子

竊伏惟念朱宋二天子孔孟嫡
傳道學事功之大非他賢比則
後學所以美牆江漢之誠又與
他賢自翔矣今此
集成堂歸然獨存不意如魯之
靈光處也殿雖然士林之力去並

艱乏每年茅茨覆蓋亦所不
贍嗚呼年前愚在鴻山地欽仰
之餘結之以憂歎而已今幸莅任
茲郡齋淺誠捐薄稅乃與士林
撻茅加尾且許以堂直一名有司
一名公納戶布與雜稅賭丁名一
遲穀

劫頃給此野謂有志者事竟成
耶後我而後茲郡者秉彙所同
慕賢之誠孰敢異也茲以成文以
為日後準考之事焉

永曆二百五十九年乙巳八月

本郡守李頤宰



집성당 완문 책자(集成堂完文冊子)

삼가 생각건대, 주자(朱子), 송자(宋子) 두 부자(夫子)는 공맹(孔孟)의 적전(嫡傳, 올바른 정통)으로서 그 도학과 공로의 위대함은 다른 현인과 비교할 바가 아닌즉, 후학들이 올리는 강한(江漢)⁹⁹과 갱장(羹牆)¹⁰⁰의 정성이 또 다른 현인들에 견주어도 절로 구별됩니다. 지금 이 집성당(集成堂)이 우뚝히 홀로 보존된 것이 노(魯)나라 영광전(靈光殿)¹⁰¹보다 더 찬란합니다.

비록 그러하지만 사림(士林)의 힘이 갈수록 더욱 궁핍하여 매년 초가지봉을 새로 덮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 연전에 제가 홍산(鴻山) 지방의 군수로 있을 때, 봉안하는 일을 흠양하던 나머지 근심스런 탄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이 고을에 부임하여 작은 성의를 갖고 보잘것없는 봉급이나마 출연(出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림(士林)들과 함께 초가지봉을 걷고 기와를 얹게 되었으니, 다음과 같이 세금 면제를 허락합니다.

당직(堂直) 1명, 유사(有司) 1명에게 공납(公納)[호포(戶布)와 환곡(還穀)]과 잡세(雜稅)[도정(賭丁)과 무명잡세[無名雜色]]를 일체 면탈(免脫)한다.

이것은 소위 ‘뜻이 있는 자가 하는 일은 끝내 성사된다.’ 라는 것이겠습니다. 저를 이어 이 고을에 군수로 부임하는 자도 떳떳한 본성을 똑같이 가진 분일 것이니 현자(賢者)를 존모하는 정성이 누군들 감히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공문을 작성하여 뒷날 기준이 되고 참고가 되도록 합니다.

영력(永曆) 259년 을사년(1905) 8월 일

본군(本郡) 군수(郡守) 이석재(李奭宰)

99) 강한(江漢) : 돌아가신 선생의 숭고한 덕을 비유한 말이다. 공자 사후에 증자(曾子)가 그 덕을 기려 “강한으로 씻고 추양으로 쬔었으니 밝디 밝아 더할 수 없도다.[江漢以濯之 秋陽以暴之 皜皜乎不可尚已]”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맹자(孟子)□□「등문공 상(滕文公章上)」

100) 갱장(羹牆) : 돌아가신 성인이나 현철을 사모한다는 말이다. 옛날 요(堯)임금이 별세하자 순(舜)임금이 요임금을 그리워하여 국그릇을 대하여도 국에 요임금의 모습이 어른거리고 담장을 대하여도 담벼락에 요임금의 모습이 어른거린 일을 가리키는바, 곧 선현인 주자와 송자를 사모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101) 영광전(靈光殿) : 한나라 경제(景帝)의 아들 공왕(恭王)이 세운 궁전으로 춘추 시대 노(魯)나라 땅이던 산둥성(山東省) 곡부현(曲阜縣)에 있었다. 옛 자취가 다 사라진 가운데 홀로 남은 문명을 표상한다.

③④ 集成堂保護楔序 戊戌

楔之名考於經史而無稽固非士君子所當講務也
蘭亭之會世稱勝事此不過一時文人暢叙而自來
俗尚已久自京華以至鄉曲閭里皆有楔名徒以殖
貨呼酒為事則尤不可尚也歲戌戌我希堂先生悶
斯道之將泯歎異學之橫馳與列邑同志士友舍謀
同力創建朱宋兩賢影堂于寒泉溪上以為後學羹
牆寓慕之所而事力不贍僅構數間茅屋草草訖役
其有功於斯文也大矣若其享祀儀物諸般守護之

節更乏餘力莫能為之所也何幸門人諸子謀所以
修補之方效誠鳩財為若干物矣以為春秋需用之
資而及期講信然則不得不名之曰稷會以每年十
月望日為定齊會爛議所不容已者也凡我僉尊各
自效力俾免闕享稍有頭緒則此亦草創修飾之義
也豈不美哉不佞亦猥叅同席故不嫌露拙畧叙于

卷首焉

(35)

張厚載(1879-1946)의 順菴事蹟 중에서

甲辰

二十
六歲

三月甲申에 希堂先生이 集成堂 創建發文을 專

送于 同門 金商綺 便故로 先生이 勸告 四方 多士 하야

效誠出力 하니 蓋 瓦則 本郡 守李奭宰 獻誠也 러라

乙亥에 先生이 携帶 多士 誠金 累百兩 하고 拜謁 希堂

先生 則 曰 時에 門下 諸人이 携帶 發文 하고 往來 四

方 호대 但 十兩 도 猶 不收 이든 而 獨 君은 累 百金 을 不

久而 收之 하니 扶鴻 兩郡 人心이 不死 耶아 君之 才能

이 過於 人 耶아 先生 對曰 小子 携帶 朱子 影堂 創建

發文 하고 到處에 言及 하니 다 가 如若 不應 하면 不出 二

三言에 則 出金也 러 이다 座中 聞者 一稱 歎矣 러라

集賢堂重修記

竊惟道之托於天下有三載焉上古道在於上而善治興焉自帝堯
 至周公是也中古道在於下而其儒任焉自孔子至朱子是也下代
 上下無道而道在於外國即我東宋宋子真人也其以靈水先生以為東
 君時而宋成者殆不與焉夫宋之為國也宋君儒而大成
 尤蒼宋先生是也此不但為一時之論而以為百世之師也
 尹先生之澤坡湖澤澤重有非筆墨所能形容也
 紳閭中^眾之^{善學}近^之者世眾最長以春秋與同志相思強此
 銀紋之鄉遂採^新步^道又^敬興^國校^事創^建校^園勞^棟於^而
 居武夷山下寒泉溪上度揭來宋而女子真像誰依溪畔釋

某後春秋讀漢書會集朱子欽定書後漢書
 成堂蓋取系大成之意也然而夫子為立壁而三奉朱宋何
 也夫子也也其為對也朱宋天淵地淵也其為對也朱宋天淵地淵也其為對也朱宋天淵地淵
 之時事之大序也相符且地也傷金悔為急所趨也中國言之也
 得孔子之博約而全巧力俱全者朱子一人而已我東言之也得朱
 子金禮大用之學者宋子一人而已以故希為但以此二子為尊事而他貴
 不與焉哉其精矣然然讀博種子為舉相之力覆漢薦毛難以為
 禮此所以深憂永歎矣何幸我係宋公趙寧以文獻大家之後下東

(37)

集成堂重修記

夫自三古以後華夏聖賢之道寥寥爲空言者上下千餘年矣至于有宋奎運大開周程張邵出而集群賢大成者朱子也天之正氣東行靜退栗沙出而集群儒大成者宋子也君子謂朱子後孔子一人也宋子後朱子一人也以事功而言之者也知尊朱宋則乃以尊先聖先賢而道之不墜也我東一區華脉綿綿不絕而不幸甲子毀撤院祠世級一降士習之所尚局於詞章而斯道遂廢不講矣所以三希堂尹先生營建數間茅屋虔揭兩夫子眞像爲後學講習之所而相與謀度者皆瘠土寒士也殘金綿力無以就緒三簋之享臨時取辦矣。李侯爽宰幸莅茲土易茨以瓦稍爲苟完矣及夫庚戌時事大變至於板蕩尚言哉繼以三希堂之棄後學也先進亦皆凋謝墨宰長夜人紀掃地平日往來章甫稍稍減竈春秋享祀堂宇修葺竊懼其有廢而無舉矣同志士人李應復爲是之懼在丁卯春倡議士友鳩財設契爲幾百金乃卜日始役陶瓦之滲漏墻垣之頹敗靡不修繕是役也樂與先後之者有任性淳金商道吳炳和金一貞李昌善李輔善尹永源諸員也又置若干位土享需支應庶可無虞而有光于前矣自此以往使衣冠之會有舉無廢則吾道不至泯滅而遠近陽類講學兩賢之道而明尊攘之義矣登斯堂者必有感慕而盍相勉於無窮也哉。

永曆二百八十三年己巳二月 日 後學全義李教憲 謹記

38

集成堂重修記

粵在丁酉之歲三希堂尹先生創建
集成堂奉安朱宋兩夫子尊影
者深慮後學寓慕美牆之所
也蓋道脉有宗尊門路有邪
正文公晦庵朱子集群賢而大
成孔聖後一人也文正公尤庵
宋夫子集群儒而大成朱子

後一人也後學之尊慕祖述
捨兩夫子而其誰從嗚呼時
運不齊天地翻覆成歎歎
充滿字內吾道幾乎息矣位士
之忽當分配字之幾全將傾享
祀之暫闕何可忍言哉噫群
陰之中亦有錄陽理之常也吾
儒前齊卽吳炳和重修於庚

儒前齋卽吳炳和重修於庚
辰况今無倫無義文亡道墜之
時終始勤勞堂事難可勝言
而誠敬愈久惟一積聚償還料
若干所生近年殖利乃於今秋一新
重修將為近百年完全之圖為
冰篤信聖人實踐學力決不貳

此惟願後來僉彥特效深誠
嗣而首身之庶可永存云爾

創建後再丁酉九月日

後學任性淳謹記

集成堂重修記

黃海之東花落山下有集成堂昔在

憲宗時三希堂尹先生定臯比於此鄉四方從學者多

矣崇慕紫陽朱夫子尤庵宋夫子教以兩夫子道學奉安其尊靈晝宵羹牆而春秋享蘋藻朔望升焚香退而讀其書講其義日久月深賴希堂先生風教能知斯道者多而外人稱之曰 庇藍士林之鄉云云嗚呼尹先生棄世後先進長德次第淪歿世態日變綱常斃敗人將化獸吾道已矣于斯時也重農金一貞先生與一二同志數十餘載僅僅保修而單亭猶難且祠宇已至傾欹門破牆壞不蔽風雨見者莫不咨嗟本土儒生錦石金壽烈中年遊嶺湖晚歸于鄉先以集成堂維支爲憂奮發勇起與其某某同志爛商鳩財要於地方人諸位及近邑士友亦求於本郡公帑釀合幾百金乃着工傾者起之破者修之壞者築之廢一護新有光于前貌噫顧今潮湖滿天風雨晦冥陽春一脉無地可明則錦石此舉實慨世憂道之意深矣感其誠慰其勞忘拙蕪辭以副請文

檀君後四千三百十七年甲子春

後學海州吳在燮謹記

40 集成堂重建記

藍浦華汀에 有 集成堂하니 集成意義는 自生民以來로 聖賢明儒가 系世 輩出에 孔夫子는 集群聖而大成이요 朱夫子는 集成賢而大成이요 宋夫子는 集成儒而大成이라 華汀은 朝鮮末葉 憲宗時에 三希堂尹錫鳳先生이 與門下諸生으로 講學之所而 塾舍之傍에 數間祠宇를 精立하고 朱夫子宋夫子兩位眞像을 虔奉하고 朝夕崇慕하며 朔望焚香하고 春秋享祀할새 四方從學者多而儒鄉을 能成하였다. 嗚呼라 尹先生이 下世하고 外寇侵掠으로 民生이 滔於塗炭하니 聖賢之書을 無地可讀이요 祠宇도 難保러니 光復後에 鄉內人士가 累次謀財補修이나 年久歲移에 去益頽敗로 憂慮不已러니 往年辛未春에 錦石金壽烈耄翁이 訪本郡金鶴顯郡守하여 奏達此況하여 憲受 二千萬金하여 祠宇一切를 掃舊更新하고 丹腹輪奐하고 位牌信奉이며 彝樽俎豆를 一新하니 觀瞻寓慕義之에 義庶幾無憾矣로다. 嘻라. 顧今天地翻覆하여 首足倒置하니 孔朱以來相傳之緒가 幾乎絕矣라. 當此之時하여 行此之舉는 信乎純坤之日에 陽無終盡之理라. 願僉章甫는 同心和協하여 衛正斥邪하고 講明夫子之道하여 使綱紀大行於世하여 終見中天之明則兩夫子之靈이 悅豫而安享矣리라. 祠宇重建에 同心協助者는 吳敏植尹承遠金鳳翼甫라. 朴東鎮友가 屬余記어늘 忘僭而樂爲之書하오니 兩夫子道學事文은 先進所述에 備矣요. 具在方冊者多矣니 更何贅焉고 是役에 特別 厚誼者는 尹友鍾福이라.

孔夫子誕降二千五百四十四年癸酉春

海州吳在燮 記 茂松尹世明書

④
通文

右通喻事稟孝子以民生於三事之如一記曰事師如事父
左若就養無方服勤至死此汝哲所以推人情極道理之
言而後學所當殫誠效則者也為人弟子者豈可一
度泛忽而少有取有向哉竊惟我三希堂尹先生以朱
宋心法連堤嫡傳講學于維揚之西山世曰活下道學
之屈傷時憫俗導海南為邁軸于藍田之花汀村敘
迹鑄彩遠近來學者益衆於是士子必欣欣向鄉紳
耆耆矜式及甚天柱折而地軸裂從而梁木摧而棟桷

散則可也。漢末一變而士無歸宿。于今又有三載矣。先生嗣如首邱之義。我奉祠北歸。則舊宅久沒。涑水之旁。耳墓道之無文。公之傍護。以人後生之齋。咨至此而左極矣。嗚呼。先生之德。存而未泯。展布於時。沒而未見。俎豆之享。豈爲後人之增歎。況及白親。名者乎。所以鄉著區區之義。思昔日受賜之大。而此敢以報其涓埃之萬一。塔數畝田。歲一參展。致酹。泐伐片碣。以表某先生之墓。則似可以略伸追慕之懷。而志無物不誠。豈二人以事經祀哉。鄉未不避。率越言。敢仰告仕歟。今賢無口力。綿者自歎。

誠以教此事則其於事一至於死之義我亦不悖而席無憾於
此明矣予萬照帝仰正之至

壬申十月

日 散文

李應復

尹錫健

李承鎬

任性淳

李輔善

尹永保

吳炳和

白弘均

金孝貞等

付忠南

再可送金忠南係客郡無可面

律所部律律律律律

城洞里任性淳方之

律律律

④2 答 賢遠堂通文

集成堂齋中前掌議李應復等敬答于

賢遠堂齋中 僉負天下以爲其先師求文而

揚幽光豎碑而表墓庭誠則可矣事則不可我東

盛際先賢名儒潛德懿光豈不揄揚未聞借手於

大明朝時人也當今之時不甚光鮮嗚呼 孔夫子春

秋大義最重者華夷大防現今中外存髮者無人何

西張白皇於萬里之邦哉若昧於此理則非吾 夫子之

道也烏其可乎且歲在壬申 門徒中諸負鳩財千

修金漫他山一片石刻以虛堂三希堂尹先生諱某

之墓且置若干堂送海年重九日享祀其儀不忒

不可為人王地無事此是邦人當底底首理也通文申
最所警勸勉希堂尹先生以勉庵先生送字於賢在
第一由三希堂尹先生以勉庵先生送字於賢在

堂云者是何之易之不正理之妄說耶假使有此論
遠近門徒驟聞知也先生易筆後寒之無聞何乃
辛若於此月手見今明徒之老成者皆已凋謝尚
有老成人者若而人皆知此論之易之不當之說也故一
言曰一種妄說自歸白論何必以中道生等不勝駭
惑不顧根越如是作去未知愈員深知為害
失師之微意也

丙子月廿八日

集賢堂前事錄

集賢堂前掌儀李應復

掌儀李昌善

有司金商道

齋負尹錫禧

金智貞

尹錫健

尹永源

尹錫禧

李昌善

金商道

尹錫禧

尹錫健

尹永源

尹永源

④ 與崔元植書

夙仰高風，承先儀懸誦，瞻仰非比。昔常竊有以仰，寧者猥先
敢瀆幸，執事細垂察焉。不意近者自汝城郡龜項面新谷里，
張厚載處，賢達陸齋中通文兩度來到，而一則曰：勉庵
崔先生神道碑，豎立通告文一則曰：三希堂陸尹先生墓碣，豎
立通告文也。竊想此文字先抵於慕德祠齋中，及執事處矣。
未知合賢之諒裁，而淫此初無片言半辭之相及，而忽遣
此文責誠金，以公磨。張生藉憑賢達陸齋，儒自
主自用，妄率投文者也。竊以此為師承文顯揚墓墓道
名目，雖美亦觀時義之如何耳。至若兩先生事，必收一國之公議。

能後乃可進退必俟百世下論定後有可以識先生之學者紀其
實焉定一二淺見陋可易一論哉此在吾國係我東諸賢未及
得中華人巨手筆能後抑揚也今何必張皇走人於萬里之外
以此當日急務也且其通文辭意於希堂事無以爲虛鑿空
眩人耳目使光明正大之德反歸於黝黠不覺驚駭深切痛
能自有公議不必逐條曉之也第一曰西稱勉庵崔先生神自
立通告文中云己酉春三希堂尹先生以勉庵從享先生賢達堂
教文而尚今不祀者事力不備之故也者是何爲不近理之妄
說乎門生子弟之取不閑遺稿中取不載彼以何心先生易集
後數十載潛口錄聞舍伺此門生中先進宿德者勉庵調
劑之日包發此無根據之狂說播諸文字自願爲實耶

謝之日忽發此無根核之狂說播諸文字自歎為妄耶
其心固有未可知也此以獨希翁之德而勉翁之不安也
豈意一狂氏之子稱石門人之列而使西先生精金美玉
之案至於後復與不瑕之瑕言之至痛而不勝憤恨而等
雖此書其機變無所成相亦秉其之衷者實賴西先生德
見此書文字明新而作不取不已而不許先告於左友故敢
微情中語許賜書裁後之賜後復為所不意後復為所
並望之好不究誰上

西先生

尹錫禧

金商道

李昆岳

金若貞

李應修

尹永源等并

尹錫佳

竊惟西而後書經也不而先書權也鄙等同居一省
雖無半日之雅風能光華為有耳之鐫久矣今
此區情願出於萬不得已而事閑先正死

所慎重不避僭濫先以尺書奉呈于座下以審
裁止存厚恕而垂察否耶曩在成成藍田故斯文
三希堂尹公錫鳳氏以儒門宿德慨吾道之壞亂倡
議遠近多士汪復子淵齋山丈建祠于其所居寒
泉溪上奉安朱夫子與文正先生兩位影本揭
額以集成春秋俎豆今為四十餘年所矣無年歲
月滋久文正先生真頓微有痕痕於面部城部

七分之肖仰瞻細審大家惶縮姑爲几奉遂閱數
次薦享多士之齋懃時當如何哉切欲招工改墓而如
或一疑不似便是別樣則亦恐貽戚於先生尊靈
故不敢生意矣後希稔聞先生舊廟壘奉真本
不止一再而想不必逐位設享則俾得移奉一本于此祠
以圖永久芬芳之享且仲儒林彙集牆之墓恐合事宜
而亦似無害於尊奉之道也故今秋間以此意付書于
先生家孫哲鎬氏矣而迄無所答彼時所傳者或
未免石頭水浮沉耶大是訝鬱又此奉煩于執

事未知尊意如何而如蒙印可鄙等即當進
拜門屏吐露衷曲矣仰乞深察而照亮即賜覆
教千萬申祝文拙辭詘胡草止此謹上

戊寅至月六日

集成堂掌議尹錫禧

吳炳和

齋末李昌善

尹錫健

李應復

金智貞等白

今北茂朱郡邑內

宋斯文曾憲氏完



④輪告保寧士友文

右通告事嗚呼今茲花汀剏建朱宋兩夫子影堂之議蓋亦衰世之意也中州之淪於腥羶已矣幸而吾東邦一隅偏壤克荷聖朝模擬虞夏之治亦賴先正祖述程朱之學上以闡箕子所設八條之遺教下以副孔聖欲居九夷之曠懷典章法度衣冠文物蔚然爲海外之小中華而無愧於天下萬世于今五百有餘歲矣奈之何斯文運否世道日敗怪鬼不逞之徒出沒秦西變幻胸肚崇信歐教諂事夷虜醞釀之禍至於毀形毀服而極矣噫朱宋二夫子之以尊攘爲己任承三聖距諛渚爲萬世開太平之義諦其將爲千古空言而止歟庠序之絃誦已絕院宇之俎豆已撤凡我衿紳之貿貿焉莫知所之者厥惟久矣所以邪說暴行之大作而率

獸食人人將相食之禍起於目下矣然則花汀今日之議雖若迂遠而不切於當今之務苟或有意於艱彼之術則舍是議奚以哉但窮海衣冠之族舉皆貧士簞夫也雖數間之屋一籩之享誰可以擔當得了當得也要必合謀并力前呼後應然後蟻戴之粒鶯含之錦庶可以相須而共資矣伏願僉君子存事面之謹嚴量己力之多寡各出財貨竣此公議也莫曰小事寔春秋之大義莫曰綿力顧吾誠之如何耳寓慕羹墻大放拳踢息邪說於旣陷興斯文於幾墜亶在於是矣晦翁之言曰吾道之不二特民之秉彝有不可得而滅絕者耳念此秉彝寧有古今彼此之殊也幸爛漫而同歸毋携貳於公議千萬幸甚

(46)

與趙青農

○戊戌八月十日

意禔兄君委來袖出崇書欣審新涼經軀衛健慰之
弟下山日久塵累復崩必是平日操存不固之致也
老慈氣力奄々中兒與婦俱病卧症亦非輕倍添惟
憂集成堂享祀凡事雖曰鹵莽與數三同志畧定
頭緒而至於向後節次無與可議者兄與四可來臨
然後可以定規模且祭官趙龍谷病頓則申栗堦沈
都事吾兄三人為主斂以下諸負齊會後分排亦可

而沈命夫金李兩少友三人偕來可以備數矣仰望
耳鄙稿華東吟何不指摘某句耶聞病速改尤好耳
舜禹爲一句或欠體制耶礪山以下數句恐不承道
統而然耶勵志敬庵諸人論其地位何敢望此等大
統也耶執大義恐非人微地卑而棄之也更思焉遂
塘兩翁影堂事畧聞先君所傳則事未成而先受其
禍姑爲中止以覘其動靜未晚也志令見鄙書倘不
有未滿之意耶同衆錄祭享後更寫而但借名而無
誠與物者盡援去計耳此亦合席後商定計也

④ 上淵齋宋祭酒

年月日坡平尹錫鳳謹齋沐齋書請納再拜之禮于
淵齋宋先生門下小生以寒門微族世居于維楊之
西山下高谷村矣狃滯之性不合於時遂行許氏焚
帙之事妄效龐公不入之義杜門求志切欲不負皇
天降衷之命不虧父母全生之體而竊念人非生知
者必固學而知之蓋學之義以己之不知不能教人

之已知己能者也然而世之其知其能者不爲不多矣門路不無正邪道脉亦有宗孽若舍正宗而橫入邪孽則反不如自守己見而終爲質義之善人也以故累年恭默忽聞重菴金先生省齋柳先生以華西傳鉢之學講道於嘉陵山中決意往從竊聽於講論之際以爲朱子孔聖後一人宋子朱子後一人又曰洋夷者夷狄之降而爲禽獸者憂道一念眷之於人獸之判小生愚迷之見忽然如大寐之得醒私自以爲門路之正道脉之宗於斯始得捫衣趨隅十餘年步亦步言亦言而姿性薄陋才藝短拙兩門緒餘万

不得其一二然而幸入其門獲聞朱宋之道則不害
爲聖人之徒主人之邊也又况先生以夫子雲仍緊
守家學與我兩先生道同志合並立一世小生請見
之誠尤有甚焉山川間隔南北懸絕灑掃之役尚屋
於門下矣忽自新來天喻愚衷擊磬入海之志幼安
客遼之舉偶然興念將母携子浮湖而南占居于藍
田武夷山下寒泉溪上此土縱不密通於先生講道
之邦既是同道則姑俟整頓琴書措置杞菊聊且粗
畧之暇懷刺立門欲遂平生之願嗚呼我兩先生啓
手足之報間年疊到山頽之痛不但哭吾私而已也

如此則先生之惠大矣多士之願畢矣千万伏祝之
至通草略呈一經崇覽則微忱可燭矣

④8 上宋淵齋

藍浦儒生等謹惶恐裁書奉獻于淵齋宋先生道座
生等痛斯文之墜地懼邪說之塞路思所以密扶線
陽之計不學吾道而徒斥彼說則與內修外攘之訓
逕庭故遂與數邑縉紳章甫會義曰尊周室攘夷狄
春秋之大權也閑先聖放淫邪孟子之大義也自是
以後學孔孟者孰不欲師法二聖最其較著者宋之
閔老我東巴翁其故何也耶值之時同也嗚呼三代

之下王降爲伯伯降爲夷之降爲獸之之取行人道
滅矣雖然一隅偏邦所謂聖人之徒主人之邊者甚
置星列於山谷海陬之間朝講暮習莫非朱宋之言
行事爲也至今不墜於狂瀾淫俗之中者實受二夫
子同極之恩奚啻如河汾子之於孔子也以故欲報
功德之心出於秉彝營建數間茅棟於武夷山下寒
泉溪上虔揭眞像期望會集春秋蘋藻小伸後學江
漢羹牆之誠恐不害於時義而近聞數處流傳則先
生以享祀爲大未安不審先生之意何據生等滋惑
之心甚於章句之徒敢此仰稟伏乞據義循理援古

證今以明其不然之端則生等雖曰愚昧敢不從理
到之言也伏惟先生大老肖孫士林頌袖位望俱尊
暨自鄉黨達于朝廷一言之出莫不趨走承順況以
儒自名者粗知尊畏前輩講明義理則大悖古禮不
合今俗者敢曰不知而不奉承乎謹以愚見冒昧伏
陳細垂察焉先生若以不告朝廷而無私祭之例云
爾則有大不然者昔鄉先生沒則祭於社豈以社中
小祭每乙告君乎西蜀之民祭昭王昌黎感以作詩
靜江之民祭虞舜朱子義而述記未聞其民之告君
也朱子釋菜於滄洲精舍亦未嘗告君而行之萬東

廟是何等大義而華陽夫子初未嘗告 君而營之
故遂菴先生與士流議建而私相祭之今俗之各處
院墟設壇祭之未聞上告朝廷而儒家諸論未嘗非
之此皆古今之援證者也先生且或以撤享之世不
敢祭之云爾則又有不然者甲子乙丑之舉雖曰大
變決非宸衷舉國所知 聖上睿知靜夜清閒必也
追悔而至今三十餘年縱不能未遑復設之大政豈
以此一間草堂無甚利害於公朝而既設小伸私情
者又從而禁之耶覆載生成之德日月照臨之明河
海包涵之量豈容如是先生深遠之慮無乃太過乎

先生又或以影堂無享祀之禮云爾則亦有不然者
古人用尸用塑又用木主紙榜又掛影像而皆祭之
古者稱廟程子則稱影堂至朱子家禮改號曰祠堂
蓋朱子之意門庭室堂體制不成古禮故也竊惟影
像七分儀形比木主紙榜則神明之所依憑不亦較
乎以此以彼皆有取據伏願先生以為如何既不承
先生面命則傳之者不察微意而傳會於其聞耶先
生慮遠非不審慎若專為禁俗而慮於事變則恐未
知其然也人心雖曰叵測世道雖曰險巇勢力可屈

義理不可屈當思義理之當否不計勢力之強弱也
生等百爾思惟敢此伏稟請賜可否之論以開蒙昧
則不勝感激惶恐再拜

④ 與李藍浦

爽宰

冬行春令大是咎徵坐分憂之地慮患來歲必倍常
人矣伏問此時政候萬相歲末簿帖想必旁午不至
惱神否臨民輸情御史正已恩威并著境內惜乎牛
刀大手試之於割鷄鸞鳳彩翽棲之於枳棘也雖然
爲明府則淮陽其薄而爲藍人則蜀郡何暮乎愚亦
爲化民中一物曲踴距踊奚啻三百里也集成堂劄
建始過五六年凡百尚今鹵莽而最所切急者加瓦
也環顧四境無與議此天眷茲土賢侯知州遠近士
論不謀而同辭曰李侯其人掌議前禁郎沈右澤吾

齊中翹楚主論稟呈迨此純陰極慘可見太陽餘證
伏望閣下細察狀辭勿讓於朱張南康靜江故事表
恭俟知罪

⑤0 與韋觀金直閣商惠

某謹復某跽伏西山下高谷村守拙食貧不敢出山
門一步地者非以本心過於忘世痛恨時運之不祥
盡棄舉業自效許衡焚軼之事妄擬龐公不入之義
矣忽自年來擊磬入海之思幼安客遼之舉偶然興
念扶老携幼盡室南下借居僻隅無異鷓鴣之一枝

翩翩顯揚者謂之不同道而不之問瘠土向義者雖
欲相愛力無所及隅之俵之如窮人無所歸者亦久
矣忽聞執事歛華就實讀書講義于川乃鄉塾心甚
嚮往切欲執御拱掃而年來賤疾侵尋耄老先衰誠
犯涖翁不學之戒亦懼聖師無聞不足觀之訓徒切
愧懼而已何幸執事不以卑鄙而又用古人不面先
書之禮於吾不無蓬蓽生輝而不爲執事無自辱焉
耶集成堂以茅茨數棟草略起立奉安眞像而來頭
守成茫無津涯執事誠念及此優助物費不但士林
增光縉紳之追聞此報而念不及此者能無其類有

此乎使人立促乘忙畧此伏希令體保重以慰多士
瞻仰之誠

⑤ 與金韋觀

某白初夏張生便獲拜下狀滿幅慰辭令人忘悲始
知仁人君子之言入人深如此其乎感也伏詢秋序
忽屈不審令公尊體爲世道保重爲斯文加愛耶遠
外區之馳仰何可勝任某賁服人大壺侍下送理則
憾連年疊生無以仰慰以自家言之四十年胖合之

體誼不自輕十五世本宗主婦闕位以古禮言之雖七十可以再聘而既有嬪嗣又生繼孫此亦不可行之禮也然則更無安身之策奈何所望者上有文王之德則先施之惠必及於此而其亦首窮人事何敢然也窮而已矣嗚呼此則私計不足憂也而五百年憲章三千里疆土一朝沒入於世雖島夷之手裔木世臣淵源大家愛戴羣民舉皆恬然坐視耶令公所謂直欲嘔血之死誠準備語也年前鄙書下答尚留中筭否雖曰陳曆正大之論不可泯滅此人回俯投如何集成堂薦享八月中丁其時下臨主塋仰望不

但爲令公慕賢之誠足以爲士林聳動之事依涑水
公一馬一童之行則何難之有乘大夫之車前後擁
率威儀可規而決非吾儒法門以此做事可也張君
貌拙學淺雖若不足觀志氣之堅見識之正鮮比其
倫開懷賜顧以勉將來之望

⑤2 與集成堂諸人 庚午

晨星世界友朋一合非偶然而況今春秋相會固非聖賢遺澤而此時罕有之盛舉也自顧衰頽迨此僅勝衣冠思所以自強無一或闕於追隨諸君子之下風而滯沈本分亦不得自由愧恨不已恭惟僉體安泰齋拔應時而無不備之歎耶區區獻念面面馳義憲心灰神散只餘空殼真土偶之被衣食粟更無可道者也此去三數年少出於好意而或有先經或有初行非有使之亦非可尼之也然皆昧禮者隨事指導如何

⑤3 集成堂通文

右通告事伏以中國之所以尊於外夷者人類之所以貴於禽獸者以其有禮義也禮義一失則中國淪於夷狄人類化為禽獸故得君師之位者教以治之最所急功於此而隨其人之樹立大小震揚而闡發之如或名聲不得上聞而幽鬱於下則士林尚其節慕其義立祠而祭之以報其功此皆天理人事之所當然而不可已者也故義士尊公奉事諱璠其弟奉事諱璠玠當丙丁之亂昆季 扈駕南渡相與周旋於清陰桐溪諸賢

之間力主斥和之論而不勝奮義乃與別將申公誠立李公元
吉等出城力戰竟被虜鋒上壯其節命公之弟代任奉事
之職公仰以憤君父之大恥俯以痛家兄之私讎盡心殫力
進則覘察賊情退則謀畫方略劒戟矢石不以爲懼冷暝飢渴
不以爲苦但地卑官微人不聽信爲恨公之伯兮不得收體於
原濕之際公亦終以低迴下僚嗚呼公之昆季樹立大節烈
光無愧當時諸公則其於表忠報功之義當有馳贈爵祿
設享俎豆而今數百年寥無聞抑亦後承微弱不能暴白而
然歟公議泯滅不能闡揚而然歟久近遲速各有其時而然歟
本縣新安面基洞卽公之昆季素梓之鄉杖屨之所也忠魂毅

魄必也陟降於茲土矣姑爲略設數尺之壇行一邊一豆之禮
以安洋、如在之靈則庶幾猶賢乎已故鄙等謹因公之後孫
觀言之實錄略掇數行文字敢告于同志君子伏願 僉執事
俯賜華啣俾成壇儀以起前人未遑之義千萬幸甚
永曆二百五十三年己亥二月十日發文齋末尹惇學

1897
年

尹錫祺
李教憲

右
搢紳

敬
章甫

通
僉執

于
座下

搢紳

前承旨金福漢

前應教趙重九

前都事趙文熙

前承旨李 僉

前教理黃會淵

前都事沈右澤

前承旨李載元

前教理俞鎮三

前叅判黃耆淵

前應教金炳軾

前叅判趙東燁

前都事金敷根

前承旨洪時衡

前叅奉黃奎琮

前承旨李貞植

前都事金炳琦

前說書李重五

前監察李棟弼

章甫

幼學尹錫鳳	幼學申桂朝	幼學申恭鎮	幼學李應珪
幼學朴元淳	幼學沈宜真	幼學崔永祿	進士金在喆
幼學白樂亨	幼學趙龜元	進士趙一元	幼學金華植
幼學尹堧	幼學柳浩根	幼學金光晃	幼學林晃周
幼學朴禮鎮	幼學申稷善	幼學沈宜俊	幼學李奎昌
幼學朴永夏	幼學申挾	幼學金弘善	幼學具赫祖
幼學趙靖淳	幼學宋秉濟	幼學黃宣熙	幼學趙亨元
幼學金寬濟	幼學尹光五	幼學宋祖憲	幼學尹澤善
幼學柳世利	幼學洪時翼	幼學趙秉斗	
幼學安亨遠	幼學沈膺澤	幼學金龍濟	

⑤4 朱宋兩夫子影韻奉安韻

晦尤二子降華東千載傳心一轍通
中國復明鄒魯學偏邦亦動洛陽風
愚夫能識切流大義世猶存議
後公虔揭遺真瞻仰止數間茅屋一邊同

⑤5 集威堂秋享後夜吟

曉漏洞開明正門享儀濟々復何論
回首神州千聖遠仰瞻茅棟兩賢尊
將得源泉深掘井欲求繁葉厚
培根裂壤天地衣冠會周禮分明魯獨存

(56)

集成堂講後感懷而作二詩
永和於同講諸士友
束帶垂紳袖潤圓此時以會理當此二三長老消餘
日數百冠童喜少年須戒深潭魚探餌况隨淫西蟻
尋羶華訂講樹清陰下絃誦洋洋萬口傳

坐則其方會則圓冠裳依舊尚欣然儒風昔自三千
里禮俗今餘五百年羣聖復生從義理吾人寧死避
腥羶兩賢真像堂中在敬讀遺篇永世傳

⑤7 九月十五日即晦翁夫子晬辰也行瞻拜之禮因請而夜吟

此時晦父降庚秋月照寒潭夜靜樓山高自立千尋
壁海濶能容萬斛舟會友以文真勝事有詩兼酒好
風流舉世流如水下孰爲沉者孰爲浮

⑤8 九月望日卽朱夫子生辰也集成堂講罷夜吟

講罷歸來詠暮秋感懷與月共登樓出門無適橫危壁處
世最難坐痛丹丹葉黃花時則好蒼顏白髮歲如流集成
堂下同心誓肯向俗人沉且浮

⑤⑨ 集成堂奉安韻

華陽夫子出吾東私淑考亭心法通洙泗的源開絕學
洛閩正氣斥邪風春回茅屋遺幘肅運復藍林至理公
從此西湖瞻景仰慕賢卓義孰能同

⑥⑩

集成堂奉安朱宋二先生影幘

數椽茅屋屹吾東爲是淵源共貫通二老巧當讐北虜千秋強恨
競南風環瀛縱被腥羶穢窮宙難消義理公障百敢言期隻手法
門歸死許君同

61

集成堂韻

寒華堂高月幾圓七分之貌正依然廟儀已創編茅
日官庀維新覆甌年千古玉山瞻氣象一方藍水洗
腥羶如今誰講春秋義時慕兩賢心法傳

62

謹述集成堂韻

華汀山色正蒼圓朱采影堂獨巋然遠宗洙泗三千載近紹洛
閩五百年先生氣像七分貌藍嶽精神一幅瓊左海扶持尊攘
義兩賢心法古今傳

⑥3 華汀朱宋兩夫子影幀奉安韻 戊戌

閩南以後復吾東千載傳心一轍同潮吞雷開真聖
學山高海濶尚餘風大道將泯邪說作線陽寄在士
論公一幅儼然瞻在座鏘鏘襟珮講磨同

⑥4 集成堂講會韻 乙巳五月

青襟濶袖會團圓滿座令儀孰使然二老冠裳咫尺
地先王禮樂半千年全湖必憚鱗爭舞何土不懲蟻
聚羶敏蒲惠風鳴講樹為鄰邑播相傳

⑥5 朱宋兩夫子影幀奉安前告由文。

維永曆二百五十二年歲次戊戌二月乙卯朔十日甲子後學朝鮮尹錫鳳敢昭告于有宋先師徽國文公晦菴朱夫子之像本朝先正左議政文正公元庵宋夫子之像小子竊伏惟念國令所迫兩夫子院宇在在毀破撤享已久洋洋靈英降臨無所小子不勝悶迫猥與鄉中士友謀建數間茅棟將欲敬奉遺像以爲寓慕羹牆之地今以移動後學申校家所奉者爲其私室狹陋極涉未安故也而見今堂役未訖奉日尚遠姑先陪留小子書室敢告

66

和集成堂講會韻

天道循環缺則圓扶陽一脉是當然冠裳復覩服堯日絃誦猶聞過魯年義理從來撐宇宙
山河判不入腥羶先師臨在冥冥地白鹿遺風永世傳

67

戊戌

先生
十九歲

三月往藍浦花丁參末末兩夫子真幃奉安禮
保藍士林立祠奉兩夫子真象名曰集成堂

九月行鄉飲禮于集成堂

①集成堂春秋享定式祝文

中興濂洛上接魯鄒德合天地萬世澤流時值仲秋

春秋

恭獻河酌睠茲東表佑我無斁

朱子位

洛閩全體春秋大用集羣儒成百世仰頌仲秋

春秋仲丁

敢薦一籩斯文在茲永垂億年

宋子位

①⁸⁹ 庚戌合邦後告集成堂文

維 永曆二百六十四年庚戌八月壬申朔十六日

干戈後學尹某病伏牀褥痛哭時事朝夕待盡而未
克瞻謁使白觀亨李教憲等替告于有宋先師徽國
文公晦菴朱夫子 本朝先正左議政文正公尤菴
宋夫子之像伏以北虜猾夏宋帝北狩天降朱子爲
嗣皇主討復以明不共戴天之義清胡僭閔 明社
南絕又生宋子爲 大君守藩蔽以明報再造土之
恩賴茲兩夫子應時而降大綱大法不墜而復存自
神州陸沉禮在于我東而兩夫子之道昭明如日中

天又是青邱一邦哲人亡而善政熄理隱氣橫剝盡
坤極讐夷乘釁而問政目廷臣假威而竊權蠹噬其內
虎食其外凶鋒毒九倍加於北狩之歲孤城殘兵不
惟於南絕之日人無討賊復讐之義世之傾否濟屯
之術援何恃於赴蟻勢難容於觸羝將欲歸西且無
享魚之周所以蹈東只願畫鳥之齊三千里生靈化
爲禽獸五百年宗社覆而邱墟端木存魯之長策豈
獨專用於前世矣子房報韓之孤忠或復見於今日
歟方當天地之翻覆梁切羹牆之慕欽舍寃奉告垂
察鑑臨

70

寒華亭序

講堂之號何爲而謂寒華也 兩夫子道德事業皆有遺
址舊號而兼取之義也蓋世運升降之會必生聖賢使大
綱大法不墜於古今吾道所以與天地相終始也是故周
末諸侯擅命孔子生斯時也作春秋而以嚴萬世臣子之
防宋末戎狄亂華朱子生斯時也主斥和而爲明不共戴
天之義明末天壤易處宋子生斯時也陳修攘而協贊聖
明克復之謨春秋大統之法亟正於天下後世而凡有血
氣性命之類莫不知天之尊地之卑斥和深離之說每切

於奏劄封事而凡有君臣父子之性莫不稱華之尊夷之醜修攘掃清之論累陳辭䟽經遙而嗜利無恥之輩亦莫不悟理之明心之正此豈非前聖後賢之一揆耶嗚呼遂菴先生曰集羣聖而大成者孔子也集羣賢而大成者朱子也集羣儒而大成者宋子也朱子孔聖後一人宋子朱子後一人曰聖曰賢曰儒雖不同而師道之傳則自孔聖以後有功於生民萬世者惟朱宋兩夫子而已薄海內外崇其道德而仰如泰山喬嶽大其功業而見諸經籍文集爲學者可不以朱宋兩門爲開正路乎況今東夷西酋接踵宋末金虜明末北虜而起皇京蕩覆天下無主殆三百

餘年以及我東山川而淪陷堂堂禮義之邦盡汚腥膻之
域陵踏正正冠帶之國混爲禽獸之類則抱經向道之士
將依何所而請明修身潔行之人將向何處而同歸耶嗚
呼希堂尹公於是乎奮發大義自任斯道特以陪兩夫子
影幘朝夕瞻依同僉章甫奉袂朔望講會之商確於門弟
周暨於士林親踈同志遠近一辭始建祠宇三間而奉安
遺像且營講堂數椽而誦法聖賢其書堯舜禹湯文武周
孔曾孟程朱栗尤相傳之法其學仁義禮智忠信誠敬復
初之性其教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常行之倫其道崇
正學闢異端尊中華攘夷狄明夫理正人心大用之體其

人圓冠方領碩德潔行獨善之身也講究於此遊誅於此
此建堂原意奚取於寒川之西華汀之上寒泉精舍卽晦
菴之講學遺墟也華陽 皇廟卽尤菴之朝宗太旨也寒
泉之寒華陽之華與寒川之寒華汀之華字相似地相符
故合舉其義名之曰寒華堂僉君子各有記焉余雖不文
特感高明大義妄自下手畧陳素蘊云爾

笏記

永曆三十五年戊戌三月廿八日抄

陳設具

祭卓二 豆二 香盒二

燭臺二 雙祝板二 茅沙二

爵六 并臺 黃燭二 雙尊一

籩二 香桮二 勺一

俎二 香爐二 幕一

燈籠二 祭席二

卓一 拜席八

箱二 行步席二

奉爵盃一 炬二

盥洗一

爵洗一

集成堂春秋享祀儀節

陳設笏記 增刪滄洲精舍釋菜儀

前期獻官以下皆盛服 有官者公服爵

弁無官者潔衣幅巾無則儒巾道袍 至門外掌議

帥執事者灑掃室堂門庭拭卓

布席設四燭于朱子宋子

位前卓上設祝板于兩位卓

前少右設香桮于兩位卓前

設香爐香盒于兩位香案上

金東 設茅沙于兩位香案前

設祭器于兩位卓上各左一

籩右一豆設尊一于堂上東南

隅加勺，罍設洗二於阼階之東。
盥東卓一於洗東，卓上箱二東。
置威中爵西盤一威爵，設獻官位於堂
下北面。諸生又次之，皆北面。
西上開，兩位前面，雙窓。

祭儀笏記

及期，獻官以下序立於東牆下。
西向北上，掌議帥執事升堂。
階實酒于尊，案脯果于籩，實棗
于豆。贊者一人引獻官升堂。
階點閱降就堂下，位諸生皆就
位。獻官以下在位者皆再拜，掌

議祝司尊皆升。
由西掌議立於
東序西向，祝立於阼階上，西向。
司尊立於尊南北向，贊二人引
獻官詣盥洗之南北向，立一人
奉水，一人奉巾，盥水，祝手升。
階詣朱子位前焚香，奉香，奉

香盒，奉爐，奉香爐，獻官三上香。
降復位，再拜，贊二人引獻官詣
盥洗之南北向，立一人奉水，一
人奉巾，盥水，祝手贊一人引獻
官詣爵洗，南北向，立取一爵洗。
之以授贊者，俱升。
獻官升阼階

詣尊所西向立贊者以爵授獻
官司尊舉罍酌酒獻官以爵授
贊者俱詣朱子位前獻官北
向跪贊者跪授爵獻官執爵以
授奉爵奉爵授奠爵奠爵奠于
籩豆之上奠爵降爵以授奉爵

奉爵以授獻官獻官執爵三祭
于茅沙以授奉爵奉爵授奠爵
奠爵奉而奠于故處獻官俛伏
興退立香案前復跪祝執版詣
獻官之左東向跪讀朱子位
祝文訖興復位獻官降復位再

拜次詣盥洗之南北向立一人
奉水一人奉巾盥水帨手升詣
宋子位前焚香奉香奉香盒奉
爐奉香爐獻官三上香降復位
再拜贊二人引獻官詣盥洗之
南北向立一人奉水一人奉巾

盥水帨手贊者一人引獻官詣
爵洗南北向立取一爵洗之以
授贊者俱升獻官升階詣尊
所西向立贊者以爵授獻官司
尊舉罍酌酒獻官以爵授贊者
俱詣宋子位前獻官北向跪

贊者跪授爵獻官執爵以授奉爵奉爵授奠爵奠爵奠于蓬豆之上奠爵降爵以授奉爵奉爵以授獻官獻官執爵三祭于茅沙以授奉爵奉爵授奠爵奠爵奉而奠于故處獻官俛伏興退

立香案前復跪祝執版詣獻官之左東向跪讀宋子位祝文訖興復位獻官降復位再拜贊二人引亞獻官詣盥洗之南北向立一人奉水一人奉巾盥水悅手詣爵洗南北向立取一爵

洗之以授贊者俱升獻官升階贊者升詣尊所西向立贊者以爵授獻官司尊舉冪酌酒獻官以爵授贊者俱詣朱子位前獻官北向跪贊者跪授爵獻官執爵以授奉爵奉爵授奠爵奠爵奠

位再

于初爵之左奠爵降爵以授奉爵奉爵以授獻官獻官執爵三祭于茅沙以授奉爵奉爵授奠爵奠爵奉而奠于故處獻官降復位再拜詣盥洗之南北向立一人奉水一人奉巾盥水悅手詣

爵洗南北向立取一爵洗之以

授贊者俱升

獻官升西階諸尊

所西向立贊者以爵授獻官司

尊舉冪酌酒獻官以爵授贊者

俱詣宋子位前獻官北向跪

贊者跪授爵獻官執爵以授奉

南北向立一人奉水一人奉巾

盥水祝手詣爵洗南北向立取

一爵洗之以授贊者俱升

獻官升西階

所西向立贊者以

爵授獻官司尊舉冪酌酒獻官

以爵授贊者俱詣朱子位前

爵奉爵授奠爵奠爵奠于初爵

之左奠爵降爵以授奉爵奉爵

以授獻官獻官執爵三祭于茅

沙以授奉爵奉爵授奠爵奠爵

奉而奠于故處獻官降復位再

拜贊二人引終獻官詣盥洗之

獻官北向跪贊者跪授爵獻官

執爵以授奉爵奉爵授奠爵奠

爵奠于再爵之左奠爵降爵以

授奉爵奉爵以授獻官獻官執

爵三祭于茅沙以授奉爵奉爵

授奠爵奠爵奉而奠于故處獻

官降復位再拜次詣盥洗之南
北向立一人奉水一人奉巾盥
水帨手詣爵洗南北向立取一
爵洗之以授贊者俱升獻官升
者升西階詣尊所西向立贊者以爵
授獻官司尊舉罍酌酒獻官以

爵授贊者俱詣 宋子位前獻
官北向跪贊者跪授爵獻官執
爵以授奉爵奉爵授奠爵奠爵
奠于再爵之左奠爵降爵以授
奉爵奉爵以授獻官獻官執爵
三祭于茅沙以授奉爵奉爵授

奠爵奠爵奉而奠于故處獻官
降復位再拜獻官以下在位者
皆再拜掌議帥執事者升徹陳
設乃退

祝文式
維

年號幾年歲次干支某月干支
朔幾日干支后學某官姓名
無官則但
補姓名 敢昭告于

有宋先師徽國文公晦菴朱夫
子之像伏以近承瀛洛遠紹
魯鄒尊攘辭闢用扶人紀世

值陽九景慕采薦謹因仲秋

敬奠清酌尚饗

頭辭上同

本朝先正左議政文正公尤菴

宋夫子之像伏以洛閩全體春秋大用所遭愈艱功實有

光允我東表罔不受恩是用

涓穀敬供茲芬尚饗

書集成堂享祀笏記後

夫祭之為言察也察者察其威儀之盛節文之詳之謂也若於祭之時威儀不足觀節文不能

備則誠意鮮敬禮之本末俱廢焉得謂之祭也如此則雖曰物備而官具神不享之矣小祭如此況其大祭乎今此集成堂朱宋兩夫子妥靈之所也祭之日儼然肅然奚啻如凡人家祭

先之誠而已耶竊念祭儀雖載禮經詳略不同古今亦異謹依滄洲故事敢以管見補入其間而細瑣節目煩不敢盡錄故又此條列如左祭官之齊宿者入齊之夕不吸

草不飲酒潔身盛服及期行禮
兩手拱立全體竦直敬聽唱笏
恭隨贊引拜立興跪徐緩不迫
諸執事以下叅班者非行禮節
目相告之事不敢出私相一語
恭默正立班列肅然躋、蹕、
則降陟尊靈豈不亮爾乎禁察
之任掌議主之而故犯喧譁失
禮者罷享後掌議稟于堂長論
罰懲後恐合事體故謹書于笏
記之後使來者識之

⑦ 華江諸規序

戊戌坤月上澣

嗚呼治亂之運雖差係於天其實則在於人其故何也禮存則治禮亡則亂夫禮者天理之節文而人事之儀則也莫非日用常行則此所謂道也其存其亡在乎人之行不行則謂之天可乎失其理而棄其事故致此亂也然而其亂也亦非一端而舉其甚者則夷狄之猾夏也邪說之害正也夷狄之患則為將帥者可以兵威制之邪說之害非士之正論不可治也雖然今日之患降於夷狄而為禽獸者其說之害正

尤甚於古之異端則其防之嚴攻之力百倍古人亦
可知也故我華西重菴省齋三先生當歐天氣穢之
時舍性命而出氣力苦心血戰其術不過閤塾講規
也其業則五書五經與夫華東先正性理之書循環
熟讀講而明之其工則克己復禮遏欲存理其義則
衛正斥邪尊華攘夷而其言則又惓惓於人獸之判
其切之大近世諸儒孰與之侔并哉若無此三先生
身不出則言不出之守身常法為一世之決案終不
知嫂溺手援之權矣空言之施足以上配平成此豈

非常亂而任一治之責者耶吾友趙龜元錫一柳浩
根善直典志山學士金元五憤西焰之燔穹痛東俗
之水下思所以強此艱彼之術而會之以文講而明
之恐其繩約之或解要余以摭採壁山講規以為準
的之地嗚呼其意不亦善乎遂取華西餘規參互長
潭遺儀敢忘僭越刪其煩補其略亦以管見涸側於
其間幸以此為定式輪行於保藍兩邑則雖若田單
之妻妾編於七里之即墨安知不為全齊七十餘城
之基復也耶罔曰人寡罔曰時運一心胥助則可以

挽回矣且念士之爲學雖曰莫如讀書只信已見而
守株則其病奚止爲固陋寡聞而已往々有認賊爲
子喚銀作鐵之患非徒錯了一身乃至誤天下蒼生
伏屍百萬可不懼哉故學貴講明道貴就正此後吾
之所學是非邪正辨然可知也聖師千謨萬訓何莫
非至理而編書者以學習朋來爲開卷第一義則其
意深有以也凡我同講之人今日所學何事所講何
義又所遭者何時立井々之旗設堂々之陣心存主
一之法腦抱往千之勇百尺竿頭更進一步萬丈懸

崖能撒獲手則豈不為吾道之光乎立脚如此則不
惟吾力自強彼所謂禽獸之徒知所懼而歛跡矣以
亂回治豈非關於人力乎嗚呼是豈易與俗人道哉

(73)

石谷書社講規

立議八條

一 在日下書姓名表總貫居序處事

進則不物

一 設契本意與學勸導事

一 溝負中別擇司貨人任財殖利事

一 財錢以春秋兩本推八事

一 奉錢不滿二百兩勿為折用事

一 契負中別擇保他人勿許用錢事

一 契錢若有怨納長眾負勿力督持事

一 承允包以相守勿替事

跋

之書也我三希堂先生之所著也先生以重菴省齋西
門高第目見世路多岐惑橫馳憂悶斯道之將泯以
勸進後學爲己任每遇子弟少輩則必告之以孝悌等
語嘗以爲言之不若行之其在西山也創設句講使童幼新
進日就規矩稍成氣像此乃明德新民之切也重翁常語人
曰郊關之內庶幾可恃者希堂一人予信斯言之非誣也嗚
呼時運不祥西炤漸熾先生有邇世之志乃歲庚寅春抱書南
爲移定臯比于湖西鹿仁石谷村每歎德無其隣一日明庵申
丈與隱峴金丈聯袂而來討論古今爲人治己之方仍曰近日

吾儕保全性命繼傳家聲只在教誨後嗣遂與同志出力設
講乃會于先生僑居之室此亦先生之志而吾家君之所願也其
規模儀節一遵華西問塾遺規先生既序其卷并嗚呼當
此狂瀾滔漲之時士大夫間擔當此事者絕無而僅有今此而
丈特立不惧警起士類昌黎所謂舉天下非之信道篤而自
知明者非耶衆陰之底可見一陽之來復也歟因此而觀感者
衆而傳布者廣則雖百東坡不可以打破程子一敬字也謹
承記跋之命敢以贅說以云尾附之意焉

求曆二百四十六年壬辰六月六日門人錫祺謹跋

講親立議十條

一講日以四十月初十日的定事

一講貧勿拘地閭名目有志許入事

一講書一邑紫陽讀書治第事

一講親步酌石潭寒泉遺親事

一講儀常用華西閱塾已終事

一講冊先置海所不必人扶立事

一講會無故不希出還點不事

一講蒙教廿能正施其賞典事

一講以終華終治淡泊不而鋪吸事

一實心做以勿為虛套事

座目

尹光五

字德秀
辛卯生

坡平人居庇仁溪洞

申泰鎮

字建中
壬辰生

平山人居舒川今山

尹建五

字聖極
乙未生

坡平人居庇仁石谷

趙晃鎬

字希文
己亥生

平壤人居庇仁玄巖

尹堦

字文沃
己亥生

坡平人居藍浦松林

金炳穆

字清若
壬寅生

安東人居藍浦隱現

尹錫鳳

字雲瑞
壬寅生

坡平人居庇仁石谷

趙東俊

字聖賓
癸卯生

豐壤人居舒川文章

申挾

字聖淡
丙午生

平山人居庇仁考亭

白樂亨

景景道
丙午生

水原人居藍浦石隅

金成喜

丁字命宰
未生

慶州人居藍浦篁城

金炳天

戊字公一
申生

安東人居鴻山土洞

趙晃九

庚字順汝
戌生

豐壤人居舒川文章

閔泳完

辛字德卿
亥生

驪興人居庇仁玄巖

趙東益

辛字朋三
亥生

豐壤人居舒川文章

金在喆

壬字聖則
戌生

光山人居舒川金浦

尹暖儀

甲字舜明
戌生

坡平人居舒川玉山

金鶴年

辛字應五
丑生

金海人居庇仁月湖

제 3 부

1. 사우록(師友錄) / 272

윤석봉의 사우록

2. 동참록(同參錄) / 291

집성당 건립과 취지에 동참한 유생명단

3. 제관록(祭官錄) / 310

매년 2월과 8월에 거행된 집성당 향사에 참여한 유생명단
처음 시작한 연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최초 제향행사부터 1937년
(丁丑年)까지 기록되었다.

4. 집성당속수재성록

(集成堂續修齋誠錄) 丙寅(1926) 八月 / 394

집성당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한 계(契)조직과 관련
한 문서, 향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제답(祭畓)의 추수기

1
사우록(師友錄)

師友錄

姓名生年表德
居仁別號

三

金先生

字重章

已卯生貫清風居永平雲潭

柳先生

字省齋

壬辰生貫高興居春川柯亭

柳重植

字景武

貫高興居架

洪在龜

字思伯

貫南陽居江陵

柳麟錫

字汝聲

貫高興居春川

柳重岳

字伯賢

貫高興居架

金春吾

字仁仲

貫清風居永平

柳毅錫

字遠汝

貫高興居春川

柳重龍 字子雲

貫高興 居加平

大科 柳元錫 字伯春

貫高興 居加平

柳旼 字潤和

貫高興 居加平

金益櫓 字公武

貫清風 居連川

柳基一 字性存

貫文化 居永平

判參 崔益鉉 字贊謙

癸巳生貫慶州居抱川

主事不就 柳協用 字謹菴

貫文化 居京

皇亮不傳達任 徐相烈 字景殷

貫大邱 居清風

慶賢秀 字希伯

貫清州 居積城

趙漢彪 字景文

尹教息 字重其

任成鎬 字周三

慶文秀 字士明

任運鎬 字景五

白樂善 字子性

具鴻書 字穉達

徐相圭 字復卿

尹錫祺 字壽卿

貫臨川 居連川

貫坡平 居長湍

貫豐川 居楊州

貫清州 居積城

貫豐川 居楊州

貫水原 居楊州

貫綾城 居白川

貫大邱 居抱川

貫坡平 居庇仁

李承旭 字重九

貫全州居永同

鳳錫 字汝齊

貫高興居春川

道煥 字明菴

貫新安居長湍

鎮

貫安東居抱川

李璣烈

貫固城居抱川

蔡範錫 字寔五

貫平康居積城

洪時春 字仁伯

貫南陽居楊州

申斗熙

貫平山居平山

朴九鉉

居永平

安益杰

貫竹山居永平

沈能純

貫青松居永平

李龍珪

字子雲

貫韓山居豐德

蔡相說

貫仁川居平山

禹鍾夏

貫丹陽居平山

高錫圭

字能善

貫濟州居海州

李根元

號錦溪

貫全嶺居砥平

李玄戎

字圭甫

貫全州居砥平

金永祿 字士綬

李承臯

監役 李鳳煥 字汝剛

柳基洙

洪淳吉 字聖佑

韓禹錫 字稭範

李喬永 字世卿

尹錫永 字士類

白樂 字一

貫光山居楊根

居楊根

貫全州居丹陽

貫文化居楊州

貫南陽居京

貫清州居高陽

貫全州居楊州

貫坡平居楊州

貫水原居楊州

金相文 字其玉

貫水原居楊州

李載勳 字景春

貫全州居楊州

姜彙益 字穉謙

貫晉州居長湍

奇教行

貫孝州居靈光

監役趙鎮鶴 字聖阜

戊戌生貫楊州居藍浦

申 檣 字聖芳

丁酉生貫平山居庇仁

申 枋 字聖淡

丙午生貫平山居庇仁

趙琮淳 字聖宗

貫楊州居保寧

申泰鎮 字建中

貫平山居舒川

趙龜元字錫一

貫漢陽居保寧

李涇植字清汝

貫韓山居韓山

申陽均字景一

辛卯生貫平山居庇仁

安亨遠字希元

貫廣州居藍浦

白用鎮字觀賓

貫水原居藍浦

沈宜德字潤汝

貫青松居保寧

黃載顯字鳳一

貫長水居藍浦

柳浩然字善直

貫全州居保寧

金炳琦字剛

貫安東居藍浦

申海永字潤生

進士金思說字殷卿

俞致慶

監役金炳穆字清若

朴元淳字善長

承旨李秀洪字景行

校理黃章淵字晚堂

師傅徐相鳳字鳳卿

進士黃龍淵字穉堂

貫平山居利川

貫延安居交河

貫杞溪居平山

貫安東居監浦

貫咸陽居監浦

貫全州居京

貫昌原居報恩

貫大邱居京

貫昌原居京

合陵徐相鶴字景聞

都事成孝選字景賢

役並黃兢淵字景瑞

金漢純字文伯

都事黃學周字景說

黃萬周字用禮

役並李珪永字景晦

都事洪佑奭字景名

役監金淮煥字相五

賈大印居京

賈昌寧居楊州

賈昌原居高陽

賈安東居坡州

賈長水居坡州

賈長水居坡州

賈德水居坡州

賈豐山居高陽

賈水原居楊州

監生 金基惠 字健汝

奉 金基洪 字光瑞

！ 安爾遠 字汝任

塾 具陽書 字景晦

教 梁在淳 字真山

壘 沈鍾舜 字薰五

具鳳書 字致岡

進士 金世鎮

都事 沈右澤 字永老

貫水原居楊州

貫水原居京

貫廣州居楊州

貫綾城居白川

居開城

貫青松居長湍

貫綾城居白川

貫安東居抱川

貫青松居庇仁

趙東益字朋三

貫豐壤居舒川

洪在鶴字間叔

貫南陽居春川

韓用弼字公舉

貫清州居庇仁

金鶴年字應五

貫金海居庇仁

姜永稷字磐山

貫晉州居水原

金贊濟字九襄戊申生

貫慶州居茂朱

尹明善字汝新

貫海平居京

李永字輔卿

貫全州居京

李思訥字殷卿

壬申貫延安居交河

達先

申海永字潤一乙丑貫平山居利川德

金閏植字道卿丙寅貫安東居保寧習

具赫祖字永元癸酉貫綾城居保寧溪

尹台炳字益三丁丑貫坡平居鴻山望

尹重弼字星右戊寅貫坡平居鴻山望

趙亨元字德哉庚午貫漢陽居保寧洞

崔濬明字舜文丁丑貫陽川居保寧楓

李憲世教字汝章貫全義居藍浦

柳世利字舜七貫文化居藍浦

俞龍濟 与雲從

賈祀溪居庇仁

韓箕東 字聖範

丁卯生賈清州居廣津

朴濟鏞 字洪一

庚午生賈陰城居慶津

李錫九

賈廣州居庇仁

任弘宰

賈豐川居並浦

韓彩永

賈清州居臨川

李錫珪

賈韓山居韓山

縣 李教秀 字仁卦

賈金義居溫陽

崔永高 字景道

慶州

尹玢儀

字信汝

丙戌生貫坡平居舒川

玉山

朴浩鎮

字治愚

丁酉生貫咸陽居牙山

院村

任弼鎬

字景倫

丙子生貫豐川居藍浦

洞栗

任肯模

字起叔

辛亥生貫豐川居藍浦

館世

白觀鎮

字景國

辛酉生貫藍浦居藍浦

洞城

任義一

字道卿

丁丑生貫豐川居藍浦

洞城

金周喜

字文叔

戊寅生貫慶州居藍浦

洞城

金商栢

字承汝

甲戌生貫慶州居藍浦

洞城

吳炳殷

字士成

丙子生貫寶城居藍浦

洞城

李鍾崙

貫星州居洪州亭松

盧正燮號蓮谷己酉生貫交河居牙山

權鍾夔字成佐癸酉生貫安東居藍浦隱峴

李萬珪字敬年丙子生貫韓山居扶餘東洞

林始鎮字景初戊寅生貫醴泉居扶餘帟岩

林秘洙字聖春己卯生貫醴泉居扶餘帟岩

高濟殷甲戌生貫濟州居牙山竹谷

俞鎮河字千一號汶陽貫杞溪居牙山

黃佑顯字敬輔辛巳生貫長水居藍浦

黃寅秀字錫範甲戌生貫昌原居結城

宋淳一字道貫戊子生貫鎮所居新

李文相字昌穆甲戌生貫安城居晚安

盧漢哲字方淑丙寅生貫光山居長興

盧漢厚字彰奎甲戌生漢哲之弟

金履俊字宅三辛亥生貫商山居茂朱

進吳信根字誠卿海州人月良谷面

鄭仁樺字孝先晉州人月岳面

吳國東字乙亥生高敞人月龜石村

朴東鎮

趙秉哲

洪致善

字聖極
已生

黃在三

字孟達
號琴泉

李承祖

字景饒
士成生

尹衡學

字士行
孝多生

密陽人居保寧

平山人居臨陂

南陽人居洪原

來源村

貫長水居尚州

貫碧珍居洪川

哲亭

貫泰原居恩津

2 동참록(同參錄)

同參錄

同社

幼學尹錫鳳 壬寅生 坡平人	監役趙鎮鶴 丙申生 楊州人	幼學申 樓 戊戌生 平山人	幼學朴元淳 甲午生 咸陽人	幼學李憲世 壬戌生 全義人	幼學白觀鎮 辛酉生 藍浦人	幼學金瑞圭 乙亥生 安東人	幼學李生鉉 丙戌生 慶州人	幼學安壽 壬戌生 慶州人
---------------------	---------------------	------------------------	---------------------	---------------------	---------------------	---------------------	---------------------	--------------------

幼學吳炳殷 丙子生 寶城人	幼學黃寅秀 甲戌生 昌原人	幼學李鍾益 戊寅生 慶州人	幼學金商栢 甲戌生 慶州人	幼學任義一 丁丑生 豐川人	幼學金周喜 戊寅生 慶州人	幼學李涇植 丙寅生 韓山人	幼學金東煥 壬午生 慶州人	幼學任益鎬 辛巳生 豐川人	幼學吳東杓 辛巳生 寶城人
---------------------	---------------------	---------------------	---------------------	---------------------	---------------------	---------------------	---------------------	---------------------	---------------------

幼學李秉濟 壬子生 完山人

幼學黃 鎮 庚申生 長水人

幼學白南翼 戊辰生 監浦人

生負權鍾振 壬子生 安東人

幼學權鍾奭 癸酉生 安東人

幼學金東哲 癸酉生 慶州人

幼學黃 種 甲寅生 長水人

幼學黃 稷 丙辰生 長水人

幼學任百賢 乙丑生 豐川人

幼學白樂殷 己巳生 監浦人

幼學柳世利 丙寅生 文化人

幼學金鶴季 辛丑生 金寧人

幼學趙泰九 庚辰生 豐壤人

幼學李龍善 壬午生 原州人

幼學姜大羽 甲申生 晉州人

幼學任弘模 豐川人

幼學任憲德 豐川人

幼學任憲邦 豐川人

憲敬 豐川人

幼學任能宰 豐川人

昌宰 豐川人

幼學任逸模 豐川人

幼學任熙逸 長興人

幼學任台奎

長興人

同郡

都正趙章熙

丁亥生

楊州人

說書李重五

丙寅生

完山人

應教趙重九

庚戌生

楊州人

生貢趙重達

乙巳生

楊州人

幼學朱洛春

戊午生

陵城人

幼學尹惇學

己酉生

漆原人

幼學尹奎學

丁巳生

漆原人

幼學白南弼

丁巳生

永原人

幼學白樂亨

丙午生

永原人

幼學白樂文

丙辰生

水原人

幼學尹惟善

丁巳生

海平人

郡守蔡奎璿

辛丑生

平康人

前節廳李鼎憲

戊午生

咸平人

都監李敏翼

戊子生

咸平人

幼學朴元相

己巳生

密陽人

幼學朴永憲

戊戌生

密陽人

幼學金台喜

己巳生

慶州人

幼學金駿喜

壬戌生

慶州人

幼學李重國

壬戌生

完山人

出身朴鳴和

壬戌生

密陽人

幼學李敏謙

乙酉生

咸平人

幼學朴應暉

甲戌生

密陽人

幼學申錫箕

己巳生

平山人

幼學朴永益

己酉生

密陽人

幼學朴台杞

己卯生

密陽人

幼學白永洙

己酉生

藍浦人

幼學白樂詰

辛酉生

藍浦人

幼學金弼嘉

乙卯生

慶州人

幼學白樂斗

乙卯生

藍浦人

幼學白樂相

戊午生

藍浦人

幼學金敏求

戊申生

安東人

幼學金鳳求

丙寅生

安東人

幼學金商達

戊午生

慶州人

幼學金龜喜

乙卯生

慶州人

幼學白樂憲

丙子生

藍浦人

幼學白樂顯

癸酉生

藍浦人

幼學李雲性

乙卯生

青海人

幼學李璣性

戊午生

青海人

幼學崔万集

戊午生

江陵人

幼學崔成集庚申生江陵人

幼學尹秉水甲辰生茂松人

幼學李圭喆丙寅生慶州人

幼學金商洪丙午生慶州人

幼學金商啟辛未生慶州人

幼學金允濟壬午生慶州人

幼學金商懋辛未生慶州人

幼學金洛濟壬午生慶州人

幼學孟圭述甲申生新昌人

幼學李洙喆丙午生星州人

幼學李龜錫戊戌生青海人

幼學白學洙庚戌生監浦人

幼學白南益乙卯生監浦人

幼學洪時郁己酉生唐城人

幼學金東翰庚午生慶州人

幼學任秉模甲辰生豐川人

幼學任衡宰己巳生豐川人

幼學任弘宰己卯生豐川人

前營將任恭斗庚寅生豐川人

幼學李鍾九己未生慶州人

幼學 白旺洙 <small>辛亥生</small> 藍浦人	幼學 白斗鎮 <small>己卯生</small> 藍浦人	幼學 白宇願 <small>丙申生</small> 藍浦人	幼學 金碩奎 <small>丁卯生</small> 安東人	司果 任鶴準 <small>癸丑生</small> 豐州人	監察 任魯奎 <small>癸亥生</small> 長興人	幼學 任元根 <small>壬戌生</small> 長興人	幼學 任璿奎 <small>辛巳生</small> 長興人	幼學 任熙遠 <small>壬戌生</small> 長興人	幼學 任熙益 <small>丙寅生</small> 長興人
--	--	--	--	--	--	--	--	--	--

幼學 金寬濟 <small>癸亥生</small> 慶州人	幼學 黃寬秀 <small>甲寅生</small> 昌原人	幼學 白興洙 <small>壬子生</small> 藍浦人	幼學 具然德 <small>戊午生</small> 綾城人	幼學 黃鍾聲 <small>己丑生</small> 昌原人	幼學 白南九 <small>乙丑生</small> 水原人	幼學 白樂奎 <small>丁酉生</small> 水原人	幼學 趙光熙 <small>己卯生</small> 楊州人	幼學 朴永夏 <small>壬辰生</small> 密陽人	幼學 尹鳳龍 <small>己卯生</small> 海平人
--	--	--	--	--	--	--	--	--	--

幼學金東夏 戊寅生 慶州人

幼學黃穩 己未生 長水人

幼學朴昌鎮 甲午生 咸陽人

幼學李朝冕 壬戌生 全州人

幼學李應福 庚辰生 全州人

幼學李鏡湖 甲辰生 清州人

幼學任仁白 丙午生 豐川人

幼學羅商燁 丁巳生 羅州人

幼學金明喜 庚申生 慶州人

幼學李炳赫 己酉生 慶州人

幼學崔象奎 己酉生 江陵人

幼學崔義集 甲辰生 江陵人

幼學尹墩 戊申生 坡平人

幼學尹堧 庚子生 坡平人

幼學朴永在 甲寅生 慶州人

幼學金秀穆 癸卯生 慶州人

幼學任百昌 己巳生 豐川人

幼學金義重 丙寅生 金海人

幼學金商億 甲戌生 慶州人

幼學金晶炫 辛巳生 光山人

童蒙金東憲甲申生慶州人

童蒙金台結甲申生慶州人

幼學朴性貞己巳生密陽人

縉紳錄

藍血浦

都正趙章熙丁亥生楊州人

說書李重五丙寅生完山人

應教趙重九庚戌生楊州人

都正李敏翼戊子生咸平人

保寧

承旨洪時衡戊子生唐城人

司書申應善甲午生平山人

承旨金福漢庚申生安東人

都事金永基己酉生延安人

庇仁

叅判趙東協辛亥生豐壤人

都事沈右澤戊戌生青松人

府使閔泳完辛亥生驪興人

舒川

注書趙南轍戊辰生豐壤人

監役尹澄癸丑生坡平人

都正趙明夏丙戌生豐壤人

都事趙相夏辛卯生豐壤人

鴻山

注書李五應戊午生金州人

叅奉金永善己酉生光山人

都事金敷根辛卯生安東人

青陽

前贊成李容元壬辰生完山人

進士李吉錫戊辰生完山人

保寧

幼學沈宜憲

乙巳生

青松人

幼學沈膺澤

庚戌生

青松人

幼學金光晃

丙午生

光山人

幼學申學均

戊申生

穿山人

幼學申稷善

癸丑生

穿山人

幼學趙龜元

辛亥生

漢陽人

幼學金光澈

癸亥生

光山人

幼學金光祐

癸亥生

光山人

承旨洪時衡

戊子生

光山人

幼學趙瑋淳

癸巳生

楊州人

幼學琮淳

己酉生

光山人

幼學吳鶴祖

壬寅生

綾城人

幼學柳浩根

癸丑生

密州人

進士朴永學

甲寅生

密陽人

幼學金龍濟

丙辰生

慶州人

幼學元聲義

壬子生

原州人

幼學金永琬

戊辰生

光山人

幼學申鶴善

辛酉生

平山人

幼學李義奎

壬寅生

韓山人

幼學李承詰

己未生

韓山人

幼學洪鍾哲

壬戌生

南陽人

幼學李援老

癸亥生

全州人

幼學趙亨元

庚午生

漢陽人

司書申應善

甲午生

平山人

幼學金光翼

癸丑生

光山人

禁都金永基

己酉生

近安人

幼學李尚珪

壬子生

韓山人

幼學沈宜翼

戊辰生

青松人

幼學申亨澈

辛巳生

平山人

幼學沈龜澤

癸未生

青松人

幼學洪時翼

壬辰生

唐城人

幼學李衡珪

甲戌生

韓山人

幼學金惠基

戊午生

光山人

幼學金璟秀

壬戌生

光山人

幼學金亨基

壬申生

光山人

幼學金昌基

乙亥生

光山人

幼學金弘基

己卯生

光山人

幼學李孟浩

水原人

幼學金光泰

光山人

幼學沈能凍

青松人

幼學金永瑞

青松人

鴻山

前參奉金永善

乙酉生 光山人

幼學金靖奎

丁巳生 安東人

大圭

乙丑生 安東人

幼學金箕周

卯生 光山人

幼學孫致中

丙午生 安東人

幼學金箕元

壬子生 光山人

前都事金殷根

辛卯生 安東人

幼學金炳直

庚申生 安東人

幼學鄭大述

戊子生 慶州人

幼學金顯弼

庚午生 金海人

幼學金永瑞

甲寅生 光山人

幼學曹秉學

辛卯生 昌寧人

幼學白東殷

辛酉生 藍浦人

幼學白京鎮

庚辰生 藍浦人

前注書李五應

戊午生 金州人

幼學金五圭

庚午生 安東人

進士李奭宰

壬戌生 近安人

幼學李低

辛酉生 近安人

幼學李晃九

戊申生 驪州人

幼學申復求 戊申生 高靈人

幼學李鍾宰 癸卯生 近安人

幼學李儼 壬子生 近安人

幼學金仁煥 壬申生 慶州人

幼學金東孝 辛酉生 慶州人

幼學金文培 癸丑生 金海人

幼學金在兢 甲寅生 光山人

幼學金在穆 壬戌生 光山人

幼學金善經 庚申生 慶州人

前參奉李慶在 丁酉生 韓山人

幼學金在九 壬子生 光山人

進士趙玄植 己亥生 林川人

幼學金光洙 己巳生 光山人

幼學金奉圭 戊寅生 安東人

幼學金亮鉉 甲午生 光山人

前都事金斗南 壬午生 光山人

前監役權復佳 壬子生 安東人

幼學崔海潤 辛亥生 江陵人

幼學李爾洙 壬戌生 光山人

幼學尹滋敬 丙午生 坡平人

幼學任憲斗癸酉生豐川人

幼學金在範己巳生光山人

幼學金箕瀾戊午生光山人

幼學金杭甲子生光山人

幼學尹重弼戊寅生坡平人

林川

幼學俞鳳在戊戌生川寧人

定山

監察李棟弼

洪州

判書金聲根

乙未生

安東人

叅判趙同熙

丙辰生

楊州人

叅判黃耆淵

昌原人

判書金炳翊

丁酉生

安東人

承旨金商憲

壬子生

慶州人

說書趙英熙

乙卯生

楊州人

校理黃會淵

癸丑生

昌原人

校使金寓根

癸未生

安東人

郡守趙誠熙

戊申生

楊州人

都事金炳轍

丁未生

安東人

結城

承旨李僎

庚戌生

延安人

教官金炳日

戊午生

安東人

都事李僊

戊午生

延安人

幼學韓善覺

丁巳生

清州人

庇仁

幼學俞鎮嵩 辛亥生 杞溪人

幼學具殷書 辛未生 綾城人

幼學安舜遠 乙亥生 廣州人

幼學安昌遠 壬申生 廣州人

前禁都沈右澤 戊戌生 青松人

幼學尹恭昇 甲子生 坡平人

幼學俞成濬 丁卯生 杞溪人

幼學宋炳箕 丙辰生 鎮川人

幼學李秉斗 甲子生 延安人

幼學李永善 丙子生 全州人

幼學尹錫祺 庚申生 坡平人

幼學李存常 己卯生 全州人

幼學申經均 辛亥生 平山人

幼學申泰登 己酉生 平山人

幼學申彥哲 庚戌生 平山人

幼學申昶均 壬戌生 平山人

幼學申泰煥 己未生 平山人

前府使閔泳完 辛亥生 驪興人

幼學安楨 壬寅生 竹山人

幼學趙謨顯 丙辰生平壤人

幼學俞宗穆 丙申生豐壤人

前叅判趙東協 甲子生豐壤人

幼學趙東賢 乙酉生豐壤人

幼學李商神 乙酉生洪州人

幼學申泰暉 乙酉生平山人

幼學安文善 戊午生平山人

幼學安弼璫 辛亥生密陽人

幼學李鶴禧 戊戌生平山人

舒川

幼學趙東哲 丁巳生豐壤人

東化 辛酉生

幼學權鍾斗 丁巳生安東人

幼學柳亨杓 戊申生文化人

幼學李在憲 壬寅生原州人

幼學申龍均 戊午生平山人

幼學朴永燮 辛亥生密陽人

幼學羅秉彥 戊戌生羅州人

幼學張馨德 乙卯生禮山人

幼學柳重源 己酉生文化人

幼學權文洙

戊寅生

安東人

幼學姜魯纘

乙巳生

晉州人

幼學申肅

乙巳生

平山人

幼學趙暲九

庚戌生

豐壤人

前汪書趙南轍

戊辰生

豐壤人

幼學安明遠

己未生

廣濟人

幼學趙定九

甲子生

豐壤人

幼學宋明植

丁未生

鎮川人

幼學黃大顯

甲子生

長水人

幼學趙東秀

庚戌生

豐壤人

幼學趙觀夏

己巳生

豐壤人

幼學趙東穆

己未生

豐壤人

幼學趙東琳

癸卯生

豐壤人

前監役尹

滢

癸丑生 坡平人

幼學趙東弼

丁酉生

豐壤人

幼學趙東旭

壬申生

豐壤人

幼學趙容九

戊辰生

豐壤人

幼學趙東鮮

壬申生

豐壤人

幼學權鍾平

庚戌生

安東人

前都正趙明夏

丙戌生

豐壤人

前監役趙東赫

丁酉生

豐壤人

幼學李龍在

丁未生

韓山人

幼學趙文奎

咸安人

韓山

幼學李壽永

德水

3 제관록(祭官錄)

獻官

執禮

贊

藍浦

幼學尹錫鳳

幼學李涇福

幼學柳世利

幼學權鍾範

幼學白觀鎮

幼學李鍾監

幼學朴元淳

幼學吳炳殷

監察尹舜五

幼學任義一

幼學金周喜

幼學朴鍾晚

幼學崔象圭

幼學任益鎬

幼學金商栢

幼學吳東杓

幼學任恭龜

幼學金寶濟

幼學金東夏

學習進到

幼學金東純

幼學金榮鉉

幼學黃積

幼學黃輔顯

幼學白樂亨

幼學任百賢

幼學任衡宰

幼學任弘宰

幼學尹商憲

幼學李晟炳

幼學李國炳

幼學金商燁

幼學趙台亭

幼學朴元和

進士鄭載性

幼學趙興行

監役趙鎮鶴

參奉鄭莫煥

五衛將金炳道

幼學安亨遠

幼學白南秀

幼學白南樓

幼學尹瑛

幼學尹墩

八月十六日享祀時到記

初獻官都事沈右澤

亞獻幼學申棟

終獻幼學趙龜元

掌議幼學沈永澤

執禮幼學李憲世

大祝幼學李應珪

奉酌幼學白觀鎮

奠酌幼學權鍾範

奉香幼學李燁

奉爐幼學尹錫健

司尊幼學金商栢

陳設幼學任衡宰

贊幼學任公一

幼學尹敦學

幼學柳益根

幼學白用鎮

幼學李應奎

幼學李鍾益

幼學崔泰奎

幼學白衡世

幼學柳世利

幼學李應福

幼學申鉉奎

幼學金周喜

幼學申頤均

幼學金東翰

東楫

幼學任鳳宰

幼學金寅協

幼學池丙錫

童蒙崔錫哲

幼學尹滋日

幼學沈宜惠

幼學金鼎鉉

幼學金商達

幼學金益禮居連川

前都事金炳琦居扶餘

幼學宋祖憲居扶餘

幼學宋秉濟居沃川

幼學朴尚欣居黃洞

幼學全寬濟居沃川

幼學宋周憲居扶餘

幼學劉洪居清風

幼學柳重龍居高山

幼學柳重道居高山

幼學崔承煥

幼學金商殷

幼學朴瓊和居連山

幼學金商皓

幼學金說濟

幼學金承烈

幼學徐相平居安民

幼學徐炳元居安民

幼學慎台範居坡州

幼學子任熙益

幼學柳收居高山

幼學洪致善居洪原

幼學洪信裕居洪原

幼學洪信裕居洪原

庇仁

掌議 幼學尹錫祺

司尊 幼學白用鎮

幼學申人模

幼學尹成儀

幼學申仁校

幼學申彦奎

學到

都事沈右澤

幼學尹錫禧

幼學金鶴年

幼學尹錫熙

幼學尹錫健

幼學閔泳均

幼學李奎昌

幼學安舜遠

幼學李象澤

幼學李承哲

幼學白南鳴

幼學具慶書

幼學池雨錫

幼學韓英教

幼學任德鎬

保寧

幼學趙龜元

承旨金福漢

幼學沈永澤

幼學趙亨元

幼學具赫祖

幼學李應珪

幼學俞鍾祥

幼學具然承

幼學沈龜澤

幼學沈宜祿

幼學趙奭元

幼學趙翰熙

幼學金弘基

幼學趙秉斗

幼學申命均

幼學申明均

進士趙一元

進士趙一元

大祝

奉爐

奠酌

以下退列

幼學金光晃

幼學趙琮淳

幼學金德基

幼學金龜基

幼學金勉濟

幼學沈膺澤

幼學沈相允

幼學沈宜俊

幼學金漢龍

幼學趙秉日

幼學李穆魯

幼學李龜九

幼學金奎植

幼學金奎植

幼學金奎植

幼學金奎植

幼學金奎植

幼學金奎植

幼學金奎植

定山

幼學宋衷援

高山

幼學柳聖錫

定山

前叅判崔光弼

咸平

幼學鄭仁樺

海州

進士吳信根

幼學吳國東

大幸

大幸

大幸

大幸

大幸

大幸

大幸

舒川

幼學申恭鎮

學重到
幼學具範燮

幼學具在珪

幼學趙南奎

幼學趙樂植

幼學趙文奎

幼學具弘燮

幼學趙禧九

幼學具元淳

幼學梁在鴻

幼學趙秉哲

幼學趙泰儀

幼學趙文奎

幼學趙南奎

幼學趙在珪

幼學趙樂植

幼學趙文奎

舒川

扶餘

幼學閔容植

幼學宋周憲

清州

幼學金統淵

幼學金統淵

懷仁

幼學金顯穆

幼學金顯穆

幼學金顯穆

幼學金顯穆

鴻山

幼學李憲世

前郡守韓憲教

幼學李鍾宰

幼學曹秉學

幼學尹重協

幼學金敬濟

洪州

幼學朴東鎮

前承旨李貞植

青陽

進士李吉鎬

丙午二月二十日

集成堂享祀

初獻官尹錫祺

亞獻官金商達

終獻官白觀亨

大祝白洙五

執禮尹永源

贊金商春

司尊金智貞

奉酌尹錫祖

奠酌金仁復

奉香

鄭憲

奉爐

閔載赫

陳設

焚香有宋秉濟

焚香有司金智貞

丁未二月十六日 集成堂享祀祭官

初獻官前叅奉李翕

亞獻官幼學李南植

三獻官幼學白觀亨

大祝幼學黃烈周

執禮幼學李應福

贊幼學尹錫祖

司尊前叅奉朴龍圭

奉酌幼學李承鎬

奉爐

幼學黃鳳周

奉香

幼學任弼宰

陳設

幼學尹用源

掌議

幼學宋秉濟

焚香有司幼學金奎元

丁未八月十八日

集成堂享祀祭官

初獻幼學尹錫鳳

亞獻

李教憲

終獻

李涇植

大祝

金喜洙

執禮

白弘均

贊

任性淳

贊

司尊

尹錫允

奉酌

尹用源

奠酌

奉爐

尹恭源

奉香

閔炯植

陳設

焚香有司尹永源

戊申二月廿一日

集成堂享祀祭官

初獻幼學申挾

亞獻趙秉斗

終獻白南弼

大祝金商達

執禮金商綺

司尊白洪均

贊張潤載

贊金智貞

奉酌

張厚載

戊申八月十四日

奠酌

尹學重

初獻官幼學尹悖學

奉爐

尹柱洛

亞獻官幼學李教憲

奉香

李康福

三獻官幼學李涇植

陳設

白弘均

大祝 尹錫禧

掌議

金寬濟

執禮 白觀亨

焚香有司

白觀亨

奉酌

金商綺

童蒙

李聖學

奠酌

尹錫健

鄭聖業

贊引

金智貞

兼任

奉酌

張厚載

奠酌

尹學重

奉爐

尹柱洛

奉香

李康福

陳設

白弘均

掌議

金寬濟

焚香有司

白弘均

童蒙

李聖學

鄭聖業

戊申八月十四日

初獻官幼學尹悖學

亞獻官幼學李教憲

三獻官幼學李涇植

大祝 尹錫禧

執禮 白觀亨

司鐸 金商達

奉酌 金商綺

奠酌 尹錫健

贊引 金智貞

兼任

奉爐
奉香
掌議

金智貞
任樂淳
金寬濟

己酉二月十七日
初獻官幼學趙秉斗
亞獻官金寬濟
終獻官崔象圭
大祝金商達
執禮尹錫健
司尊金容正
奉酌金智貞
奠酌
贊

八月十一日 享祀

初獻官 幼學宋秉濟

亞獻官 白觀亨

終獻官 金寬濟

大祝 金商綺

執禮 金商綺

司尊 李安承

奉爵 黃鳳周

奠爵 黃鳳周

奉爐

奉香

陳設

掌議前祭奉李應烈

任樂淳

趙重協

庚戌八月十六日

初獻 幼學申 張

亞獻

李教憲

終獻 前叅奉李應烈

大祝

李應福

執禮

白觀亭

司尊

申鉉定

奉爵

池憲夏

奠爵

金憲洙

贊

金智吳

贊

奉爐

奉香

陳設

掌議

李承敦

趙善元

金寬濟

金商達

辛亥二月十八日

初獻

幼學柳濬根

亞獻

黃宣熙

終獻

趙炳薰

大祝

黃列燭

執禮

金憲澤

司尊

白樂有

奉爵

田容允

奠爵

朴基用

贊

金丙烈

贊

奉爐

奉香

陳設

掌議

焚香有司

金永珠

金鍾元

金秉春

金智貞

柳濬根

崔鍾萬

尹圭源

贊司

辛亥八月十三日

初獻前叅奉金樂鎮

亞獻衆幼學樂秉濟

終獻金憲洙

大祝壬子二月李教憲

執禮白觀亨

奠酌白南郁

奉酌金信淑

奉香金東暉

奉爐白樂有

贊金憲洙

司尊

掌議

焚香有司

陳設

壬子二月十四日

初獻

亞獻

終獻

金憲烈

柳禧報

崔鍾芳

呂南郁

金商達

黃宣熙

趙秉斗

李應福

大祝 執禮 司尊 奠爵 奉爵 奉香 奉爐 贊爵 贊爵 陳設

尹昌源 白榮樞 白纘基 金存叔 金興烈 白樂署 金聖烈 金齋貞 金秉烈 金秉暉

初獻 亞獻 終獻 大祝 執禮 司尊 奠爵 奉爵 奉香

壬子八月十八日 宋秉濟 任憲文 申百均 黃烈周 白觀序 金容正 自纘基 李秉權 金仁淑

奉爐

贊引

陳設

金容正

金智貞

李漢衡

金芝淵

癸丑二月二十日

初獻

宋秉濟

亞獻

李教憲

終獻

任憲文

大祝

金智貞

執禮

白弘均

司尊

黃顯周

奠爵

金仁淑

奉爵

白樂有

奉香

金弘均

奉爐

贊引

贊引

陳設

癸丑八月十三日

初獻

亞獻

終獻

太祝

執禮

尹柱華

金東翰

申棟

朴永哲

池憲夏

金商達

金商綺

司尊

奉爵

奠爵

奉爐

奉香

贊引

贊引

陳設

掌議

叅班

金憲洙

尹柱華

金曙堪

白樂有

金東翰

奉爵奠爵兼任

柳濬根

金樂鎮

任憲文

宋秉濟

李教憲

百觀亨

尹命五

甲寅二月十六日

初獻

申台鼎

亞獻

尹錫祺

終獻

崔象奎

大祝

金陶靖

執禮

尹錫健

司尊

申鉉奎

奉酌

金容璣

奠酌

尹錫祖

奉爐

金東翰

奉香

尹柱河

贊引

金智興

陳設

金憲洙

掌議

柳濬根

叅班

金商達

白觀亨

甲寅八月十九日

初獻

尹錫烈

亞獻

李昊植

終獻

李應福

大祝

金商達

執禮

金商綺

司尊

林建和

奉酌

趙善亮

奠酌

金龜奉

奉爐

金智貞

奉香

金容璣

贊司

趙善亮兼任
金智貞

陳設

金聖恩洙

掌議

李方教憲

叅班

乙卯二月十二日

初獻

申台熙

亞獻

金商達

終獻 大祝 執禮 司尊 奉酌 奠酌 奉爐 奉香 贊引 陳設

尹錫禧 權運稿 白觀亨 金商成 金性 金鑿異 白樂有 金東翰 李承敦 金智貞 金一浩

掌議 叅班 乙卯八月十五日 初獻 亞獻 終獻 大祝 執禮 司尊 奉酌

李教憲 李奎昌 金兢濟 黃程 尹炳月 尹柱河 金塔基 金一浩

奠酌

奉爐

奉香

贊引

陳設

掌議

叅班

金東憲

金吉源

金良南

金智貞

金南義

李教憲

尹命五

白觀亨

金商達

童蒙金載弘

丙辰二月十八日

初獻

柳濬根

亞獻

尹錫禧

李教憲代行

終獻

柳世利

大祝

白觀亨

魏禮代行

執禮

池憲夏

大祝代行

司尊

金鍾軾

奉酌

崔秉元

奠酌

白樂有

奉爐

金東翰

奉香

贊引

陳設

掌議

叅班

李勉鎬

金智貞

張厚載

李奎昌

趙秉斗

尹命五

金兢濟

李根雨

金商訖

金商達 金嘉洙 尹錫祺 金龜奔 金東憲 申彥奎 金容璣 金商成 嚴筆燮 金鍾轍

童蒙 秋東燁 金春元 金德喆 李且錫 金商根 尹行源 白繼善 尹自源 尹桂天

丙辰八月二十日

初獻

李教憲

亞獻

任亨宰

終獻

金商達

大祝

尹炳日

執禮

尹永源

司尊

金詰濟

奉酌

金性冀

奠酌

金仁詰

奉爐

趙善元

奉香

李英鎬

贊引

金春元

陳設

金曙基

掌議

李奎昌

叅班

白觀亨

金兢濟

尹錫禧

李範善

金永元

童蒙

秋東燁

吳錫吉

金商勤

任殷春

任英掌

白繼善

任戊甲

尹柱天

尹亨源

丁巳二月十三日

初獻

亞獻

終獻

大祝

執禮

司尊

奉酌

奠酌

奉爐

奉香

朴龜和

黃穩

具秉滉

李承徹

尹永源

具在聲

朴昌和

申鉉奎

俞福永

李舜九

贊引

陳設

掌議

衆班

林錫榮

姜信亮

朴勝惠

李奎昌

尹命五

尹錫祺

金商諱

李教憲

白觀亨

柳濬根

金商達

任亨宰

池憲夏

金憲洙

金競濟

申台熙

李秀惇

李應復

尹錫禧

金啓璣

金智貞 金興烈 李英鎬 白南義 姜信奎 金喆濟 金商根 金仁喆 金春元 金性冀

童蒙

金永元 金麟元 李永善 李輔善 秋東璉 朴萬和 朴化成

俞萬永 金癸龍 朴永萬 朴春植 白繼善 任戊甲 尹柱天 俞達永 韓鳳錫 崔錫允

李大儀

享祀

後

設講學

講長

設虛位

司講

原應復

誦歐陽誠意章

司禮

金智貴

誦朱夫子畫像贊

聽講

任亨宰

誦朱夫子行狀畧

尹錫祺

誦華西先生論學

白觀亨

誦朱宋兩夫子畫像贊

李教憲

池憲

誦朱宋兩夫子畫像自贊

金兢濟

誦朱子敬齋箴

講生

李承徹

誦朱子敬齋箴

李承徹

誦宋孝子墓表

金永元

誦書傳序

李舜九

誦論語子貢方人章

金興烈

誦中庸篇題

林錫榮

誦周南鵲木篇

俞福永

誦論語四子言志章

金春元

誦小學題辭

金麟元

誦小學御制序

金東翰

誦大學經一章

尹錫祖

誦小學詩四章批戎子書

姜信

誦韓文公重刊行

金商根

誦小學詩五附首節

金喆

誦朱子與魏應仲書

李英鎬

誦小學詩四附首節

金仁喆

誦小學詩二附首節并註

姜信

誦小學詩御制衣序畧

童蒙秋東燁

誦小學詩講戒

朴化成

誦華陽書捨謁示

俞萬永

誦通史五冊蘇武持節條

金癸龍

誦孟子一冊王立於沼上章

朴永萬

誦九容九思 尹百源

誦通史一冊王孫賈並王條

李大儀

誦白鹿洞講規

俞達永

誦通史五冊復見漢官儀條

朴春植

誦朱夫子勸學文

韓鳳錫

誦中庸對衆公問末段

白繼善

誦遠東伯碑文末段

崔錫允

誦華舊習章

任戊甲

誦學四冊胡文定與子書

尹桂天

誦白鹿洞講規

白繼善

誦華汀講戒

丁巳八月十七日
初獻 柳濬根
亞獻 金良喜
終獻 任百賢
大祝 崔元植
執禮 姜台聲
司尊 具漢禹
奉爵 朴性德

奠爵 奉爐 奉香 贊引
陳設 掌議 參班

李祖董 朴鍾和 李秉植 朴成和 李承敦 李應復
李教憲 白觀亨 金商達 尹命五

金商說 任亨寧 柳世利 金商綺 池憲夏 金憲洙 具英燮 李泳徹 具在聲 李際九 具在昌

金仁詰

姜信元

金寬喜

李勉鎬

金龜年

白南義

許逸

金永元

秋東燁

金仁男

童蒙

金泰元

金錫元

金昌元

金興濟

白繼善

尹乙龍

任成聚

吳桂英

尹百源

崔甲順

白甲得

戊午二月十九日

初獻

亞獻

終獻

大祝

執禮

司尊

奉爵

奠爵

尹錫祺

具漢瑞

金商綺

尹柱河

白南義

金瓊璫

李英鎬

李輔善

奉爐

奉香

贊引

陳設

掌議

叅班

任宗彬

白鎔學

具在甘泉

明濟天

金東翰

具在甘泉

李奎昌

尹命五

金商遠

李教憲

白觀亭

具英燮

李根雨

具哲燮

具漢崗

李應復

具夏植

崔泰寬

李宇春

具在夏

具在奎

李鍾鈺

童蒙朴福男

朴永万

尹柱天

尹百源

金泰元

金錫元

金興濟

八月十二日祭官錄

初獻

幼學洪淳玟

亞獻

金賢達鎬

終獻

金永采泰憲

執禮

金其鶴

大祝

金其趙東溜

司尊

金其南義

奉爵

金其命性

奠爵

金其七

奉爐

金其宗彬

金其泰生

奉香

贊引

陳設

掌議

參班

金喆濟

金秉翰

金智貞

金龜年

權重萬

金性冀

任亨宰

申昌熙

進士 金漢瑞

幼學 金商達

金兢濟

白觀亨

崔象圭

李 良

具漢秀

金瑬璣

白鎔學

李秉直

明濟天

宋欽俊

童蒙任戊甲

權泰龍

己未八月十九日祭官錄

初獻

亞獻

終獻

執禮

大祝

司尊

奉爵

尹秉源

趙漢熙

李應福

金商綺

李輔善

尹錫九

金智貞

蔡班	掌議	陳設	贊引	奉爐	奉香	奠爵
尹命五	任亨宰	李昌性	李命性	金容璫	明濟天	具漢島
					具辰植	

焚香	有司	尹錫九	明昌順	尹甲慶	尹百源	任戊甲	童蒙尹柱天	東梁李根兩	金統濟	具東燮
----	----	-----	-----	-----	-----	-----	-------	-------	-----	-----

庚申二月十一日祭軍錄

初獻官 具台錫

亞獻官 黃 符

終獻官 趙漢熙

執禮 金智貞

大祝 柳世利

司尊 黃秉熙

奉爵 黃碩周

奠爵 崔鎮明

奉香 任景鎬

奉爐

贊引

陳設

掌議

參班幼學 李奎昌

金兢濟

任百賢

李教憲

李應復

吳哲賢

李命性

李英鎬

吳弘燾

初獻 亞獻 終獻 大祝 執禮

庚申八月十五日祭官錄

李教憲

申台熙

金寬濟

李雁復

尹錫健

崔東善

朴正熙

童蒙李厚松

金信龍

司尊

奉酌

奠酌

奉爐

奉香

贊引

陳設

序議

有司

崔鍾萬

金東翰

朴正熙

黃厚顯

金兢濟

辛酉二月十六日

初獻

崔象玉

亞獻

李鍾鶴

終獻

申鉉定

大祝

李勉鎬

執禮

李輔善

奉酌

金商振

奠酌

申鉉禹

奉爐

李漢性

奉香

明濟天

英香

司尊

金鳳賢

贊引

崔秉元

陳設

金容璣

掌議

申召熙

有司

尹錫社

恭班幼學李奎昌

郡守尹命五

幼學金智真

金東翰

李昌隆

李承教

李相學

金性翼

童蒙趙重極

李厚俊

崔元熙

辛酉八月二十日

初獻 趙載恒 趙載恒

亞獻 權鍾雲 權鍾雲

終獻

大祝

執禮

奉酌

奠酌

奉爐

奉香

司尊

贊引

吳憲泳

姜斗馨

具在七

申鉉朋

朴昌和

李元圭

李相學

李寧錫

崔鎮明

陳設

金智貞

掌議

申益熙

焚香

有司

沈宜秀

任真宰

金兢濟

尹命五

張厚載

張景載

金容璫

申鉉完

柳世利

申定均

金商絳

金商振

李新權

崔成熙

任真賢

趙秉弼

崔象圭

李輔善

童蒙

白甲得

吳聖男

吳公顯

尹百源

尹桓天

趙重樞

金續基

金世修

壬戌三月十二日

初獻 趙秉斗

亞獻 崔象玉

終獻 李永善

大祝 李應復

執禮 尹錫健

奉酌 吳敏植

奠酌 金孝元

奉爐 李龍鏞

奉香 黃晚熙

司尊 沈宜秀

贊引 趙勉行

陳設 尹秉源

掌議 吳海林

有司 金東翰

叅班 尹命五

尹昌五

廉東夏

李慶沃

崔鎮明

林炳國

童趙重極

林東淳

朴順圭

林泰東

田鶴善

鄭昌雲

壬戌八月十五日

初獻 金寅求

亞獻 任昌宰

終獻

趙恒熙

掌議

申台熙

奉酌

吳敏植

大祝

李英鎬

有司

金東翰

奠酌

任泰瑾

執禮

金智貞

參班

李昌善

奉爐

姜鳳熙

奉酌

崔鎮明

李英鎬

奉香

趙心行

奠酌

朴奎魯

癸亥二月十九日

司尊

李永善

奉爐

李承敦

初獻

權丙軾

替引

柳盛香

奉香

朴正熙

亞獻

柳仁錫

尹柱天

司尊

朴奎熙

終獻

任治鎬

陳設

金智貞

贊引

林炳國

大祝

任弼寧

掌議

申台熙

陳設

趙載恒

執禮

李應復

有司

朴奎熙

參班

尹命五

崔象圭

崔象圭

尹錫祺

尹錫祺

尹錫九

尹錫九

伍德鎬

伍德鎬

趙載恒

趙載恒

權重善

權重善

李輔善

李輔善

任泰珪

任泰珪

趙善元

趙善元

趙勉行

尹百源

尹梓河

李昌善

癸亥八月十一日

初獻

尹錫祺

亞獻

崔象圭

終獻

趙漢賢

大祝

尹錫健

執禮

金智貞

奉酌 趙勉行

奠酌 權泰元

奉爐 李周寧

奉香 金孝元

司尊 朴正熙

贊引 尹百源

金鳳元

陳設 申台熙

掌議 權淑載

有司 朴奎熙

蔡班 尹命五

金兢濟

李昌善

李輔善

廉東夏

尹昌五

尹柱天

李承武

金

崔錫淳

李榮周

甲子二月十四日

初獻 申台熙

亞獻 白觀亨

終獻 吳憲泳

大祝 金

執禮 李應復

奉酌 朴奎熙

奠酌 黃義敬

奉爐 白鎔學

奉香 白聖洙

司尊 李承敦

贊引 朴正熙

吳敏植

陳設 尹錫祺

掌議 權丙軾

有司 金孝元

吳敏植

參班 尹命五

金兢濟

柳仁錫

金芝淵

具潤燮

尹昌五

鄭舜教

李英兩

李龍鎬

童蒙任明亭

金壽烈

李承烈

幼學

童蒙

吳炳萬

李永善

李輔善

李應復

金智貞

尹秉源

甲子八月十七日

初獻

亞獻

終獻

尹錫祺

具憲泳

趙恒熙

大祝

朴奎熙

執禮

任鍾贊

奉酌

尹昌源

奠酌

尹吉源

奉爐

金仁達

奉香

金保繁

司尊

年一

贊引

白鎔學

掌議

權柄植

有司

真敏植

贊

白聖學

參班

尹命一

奉香

崔象禁

奉爐

尹昌五

奠

金芝淵

童蒙

張哲祿

乙丑二月二十日

首獻

李敦憲

亞獻

尹秉和

終獻

趙恒熙

執禮

尹永源

大祝

黃顯周

奠爵

尹錫祉

奉爵

李輔善

奉爐

尹錫祉
兼代

奉香

李輔善
兼代

司尊

贊

陳設

掌議

有司

參班

尹昌五

朴奎熙

尹柱國

金兢濟

任鍾贊

尹命五

白觀亨

尹錫禧

崔象圭

童蒙

金扛鉉

奠爵

任正宰

申台熙

任哲洙

奉爵

尹柱天

尹昌五

李承武

奉爐

金東翰

尹錫祺

乙丑八月十三日

首獻

鄭詰基

奉杓

尹柱國

李應復

亞獻

任泰奭

司尊

金智貞

金仁榮

終獻

吳憲泳

贊引

金東翰

魚代

尹百源

執禮

朴奎熙

陳設

李輔善

大祝

李英鎬

掌議

有司

朴奎熙

參班

趙東斗

尹命五

司尊 奉酌 奠爵 奉爐 奉香 贊引 陳設 掌議

任鍾贊 李聖春 尹錫九 金扛鉉 金仁榮 李聖春 蔡正默 李昌善

初獻 亞獻 終獻 大祝 執禮

丙寅二月十六日

童蒙

白長鉉 白樂星 吳南臺 李奎昌 尹錫祺 白觀亨 趙心行 李英鎬

有司
恭班

童蒙

朴奎熙

尹命五

崔象圭

尹昌五

尹錫健

金容錫

李應履

金壽烈

吳舜奎

初獻

丙寅八月十九日

吳玟奎

白樂星

吳東圭

尹絳原

吳在鳳

吳東圭

李承宇

白昌基

尹錫禧

亞獻 終獻 執禮 大祝 司尊 奉酌 奠酌 奉爐 奉香

柳仁錫 李永善 金智貞 李英鎬 任德鎬 柳盛秀 白南義 金仁榮 尹繼天

贊引 陳設 掌議 有司 參班

尹吉源 白觀亨 尹命五 尹錫健

丁卯二月十一日享祀時

初獻幼學李教憲

亞獻幼學尹昌五

終獻幼學李永善

大祝幼學具敦會

執禮幼學任性淳

司尊

奉酌幼學李景春

奠酌幼學李堉春

奉爐幼學李周寧

奉香幼學金仁榮

贊引幼學金東翰
任壽彬

陳設幼學李永善

掌議

有司幼學朴奎熙

參班前郡守尹命五

幼學尹錫祺

李昌善

奉爐幼學李周寧

奉香幼學金仁榮

贊引幼學金東翰
任壽彬

陳設幼學李永善

掌議

有司幼學朴奎熙

參班前郡守尹命五

幼學尹錫祺

李昌善

李應復

李輔善

尹錫健

金一貞

童蒙吳在鳳

尹亮源

吳學後

吳東圭

吳南圭

幼學金智貞

丁卯八月十五日享祀時

初獻李應奎應奎

亞獻幼學任性淳

終獻幼學李昌憲

大祝幼學尹錫健

執禮幼學金一貞

司尊幼學李詰善

奉酌幼學金養元

奠酌幼學金智貞

奉香 奉酌 奠任

奉爐 奠酌 奠任

贊引幼學金壽烈

陳設前祭奉吳炳和

掌議幼學李應復

有司幼學尹桂天

幼學任宗彬

祭班幼學尹錫九

童蒙金仁燦

戊辰二月十七日享祀時

初獻幼學白觀亨

亞獻幼學尹秉源

終獻幼學柳寅曦

大祝幼學李時春

執禮幼學尹錫健

司尊幼學吳寬泳

奉酌幼學李鍾振

奠酌幼學李龍鎬

奉香幼學金簡道

奉爐幼學崔仁圭

贊引幼學金仁榮

攬引幼學任亨淳

陳設幼學吳炳和

掌議幼學李應復

有司幼學尹柱天

幼學任宗彬

叅班

幼學任性淳

幼學李英鎬

幼學金一貞

幼學柳濟弘

幼學金智真

童蒙吳南奎

戊辰八月十一日享祀時

初獻金華植華植

亞獻白觀亨觀亨

終獻幼學李鎮圭

大祝幼學李輔善

執禮幼學金一貞

司尊幼學李健永

奉酌幼學李時春

奠酌幼學吳炳微

奉香幼學李成春

奉爐幼學李承祖

贊引幼學李承武

幼學金壽烈
 陳設幼學尹錫健
 有司幼學李鍾振
 掌議幼學李應復
 參班幼學李諒善
 幼學金智貞
 幼學金仁榮
 童蒙吳炳淳
 吳東圭

吳南圭
 尹亮源
 幼學金商道
 已巳二月十三日壽祀時
 初獻 幼學李時雨
 亞獻 幼學李輔善
 終獻 幼學尹錫九
 大祝 幼學金一貞
 執禮 幼學金智貞

司尊	奉酌	奠酌	奉香	奉爐	贊引	陳設	有司	掌議
幼學金滴道	幼學金仁榮	幼學金壽烈	幼學吳炳淳	幼學吳東圭	幼學吳南圭	執禮兼	幼學吳炳徽	幼學李應復

叅班前叅奉吳炳和	幼學尹柱華	童蒙尹亮源	任明宰	已巳八月十七日享祀時	初獻	亞獻	終獻	執禮
					幼學李應復	幼學金珣濟	幼學吳炳和	幼學金一貞

陳設	贊引	贊引	奠酌	奉酌	奉爐	奉香	司尊	太祝
幼學尹錫九	幼學金德聚	幼學金壽顯	幼學李時春	幼學任弘宰	幼學尹柱華	幼學金商道	幼學吳炳微	幼學尹錫九

司尊	大祝	執禮	終獻	亞獻	初獻	庚午二月十九日享祀時	掌議	有司
幼學朴奎熙	幼學張厚載	幼學尹永源	幼學李應奎	幼學尹錫禧	幼學鄭行復		幼學李應復	幼學吳炳微

奉香

幼學趙禧衍

奉爐

幼學朴燧鎮

奉酌

幼學金箕擇

奠酌

幼學李承敦

贊引

幼學金壽烈

贊引

幼學朴在惇

陳設

幼學金一貞

有司

幼學金商道

掌議

幼學李應復

叅班前郡守尹命五

幼學李教憲

幼學柳仁錫

幼學李時雨

幼學李昌善

幼學李鎮圭

幼學尹錫健

前叅奉吳炳和

幼學李輔善

幼學李時春

幼學尹錫旭

幼學吳炳淳

幼學吳南圭

童蒙程明宰

幼學李聖春

幼學金珀濟

幼學李在惇

幼學金壽烈

庚午八月廿三日享祀時

初獻

幼學申台熙

亞獻

幼學柳仁錫

終獻

幼學任性淳

大祝

幼學金珀濟

執禮

幼學李英鎬

司尊

幼學吳炳徽

奉酌

幼學朴在惇

奠爵

幼學金壽烈

奉香

幼學姜信王

奉爐

幼學柳應奎

贊引

幼學李承武

小司

幼學吳炳淳

陳設

幼學尹永源

有司

幼學金商道

掌議

幼學李應復

叅班

幼學申台鼎

童子

幼學李應奎

幼學金膺濟

幼學尹錫健

幼學金一貞

幼學李聖春

幼學李昌善

辛未二月十五日享祀時

初獻

幼學李教憲

亞獻

幼學尹衡儀

終獻

幼學李應奎

大祝 執禮 司尊 奉酌 奠酌 奉香 奉爐 贊引

幼學李昌雲
幼學趙心行
幼學任鍾贊
幼學尹錫九
衆奉吳炳和
幼學趙禧衡
幼學金壽烈
幼學吳在燮
幼學朴在惇

陳設 有司 掌議 叅班

幼學金珀濟
幼學金商道
幼學李應復
幼學朴奎熙
幼學吳南奎
幼學吳敏植
幼學李承武
童蒙吳南植

辛未八月十八日享祀時

初獻

幼學金德鉉

亞獻

幼學李永善

終獻

幼學沈相景

大祝

幼學崔時麟

執禮

幼學李英鎬

司尊

幼學朴在驥

奉爵

幼學趙禧衍

奠爵

幼學蘇鎮萬

奉香

幼學吳在燮

奉爐

幼學李鍾七

贊引

幼學金壽烈

陳設

幼學朴在惇

有司

幼學任弘宰

掌議

幼學金商道

茶班

幼學李應複

茶班

幼學李應奎

幼學任性濤
幼學金珀濟
幼學李昌善
幼學金膺濟
幼學吳寬泳
幼學尹錫健
幼學金一貞
參奉吳炳和
幼學尹永源

幼學李時春
幼學金箕擇
幼學李聖春
幼學吳炳九
童蒙吳南植
蘇鎮英
壬申二月十日享祀時
初獻幼學李應復
亞獻幼學尹錫健

終獻幼學金膺濟
大祝幼學金智貞
執禮幼學李時春
司尊幼學金珀濟
奉酌幼學尹桂廷
奠酌幼學尹錫九
奉爐幼學李成春
奉香幼學李周寧
贊引幼學金壽烈

陳設幼學金一貞
有司幼學金滴道
掌議幼學李應龍
參班幼學李昌雋
幼學李咏雋
幼學尹桂華
童蒙金仁元
壬申八月十三日享祀時
初獻幼學李應奎

亞獻參奉任泰珍
終獻幼學尹永源
大祝幼學崔炳夏
執禮幼學李英鎬
司尊幼學金智貞
奉爵幼學金壽烈
奠爵幼學朴燦鎮
奉爐幼學盧義鎬
奉香幼學尹浩源

贊引幼學柳應奎
幼學吳南泰
陳設幼學金鉉濟
掌議幼學李應復
有司幼學金商道
叅班參奉吳炳和
幼學尹錫健
幼學李時春
幼學吳炳徽

幼學柳義錫

幼學吳炳九

幼學任性淳

幼學尹狂華

童蒙金修元

癸酉二月十七日享祀時

初獻幼學尹成儀

亞獻幼學李恒植

三獻幼學李南圭

大祝幼學尹錫九

執禮幼學李時春

司尊幼學李時雨

奉酌幼學尹錫祉

奠酌奉吳炳和

奉爐幼學柳應奎

奉香幼學尹仁熙

贊引幼學金壽烈

幼學朴在植

陳設幼學李昌善

掌議幼學李應復

有司幼學金商道

叅班幼學李應奎

幼學李建永

幼學李圭宣

幼學李桂華

幼學金智貞

幼學金智貞

癸酉八月十九日享祀時

初獻幼學李昌善

亞獻幼學任性淳

終獻幼學金在天

大祝幼學吳寬泳

執禮幼學張厚載

司尊幼學金珀濟

奉酌幼學尹永源

奠酌幼學李時春

奉香幼學金智貞

奉爐幼學李丙玉

贊引幼學金壽烈

幼學吳南圭

陳設幼學金一貞

掌議幼學李應復

有司幼學金商道

祭班幼學李應奎

幼學柳義錫

祭奉吳炳和

幼學尹錫健

幼學李建永

幼學李喆善

童蒙李泰範

李命薰

甲戌二月十三日享祀時

初獻幼學尹錫禧

亞獻幼學趙載德

終獻幼學任恭珍
大祝幼學尹仁熙
執禮幼學趙善元
司尊幼學金珀濟
奉酌幼學吳在燮
奠酌幼學朴在惇
奉爐幼學李承德
贊引幼學朴在植
奉香幼學金孝元

幼學朴滢鎮
陳設參奉吳炳和
掌議幼學尹錫健
有司幼學金商道
參班幼學李應復
幼學李鎮圭
幼學李承敦
童蒙李承億
童蒙李甲秀

甲戌八月十五日享祀

初獻幼學李應復

亞獻幼學李輔善

終獻幼學任泰珍

大祝幼學李昌善

執禮幼學尹永源

司尊左祝兼任善

奉酌幼學李英鎬

奠爵幼學李鍾振

奉香 奉酌兼任

奉爐 奠爵兼任

贊引

陳設 執禮兼任

有司幼學金商道

掌議幼學尹錫健

乙亥二月十八日享祀

初獻幼學李時雨

亞獻幼學金德鉉

終獻幼學 李鎮圭
大祝幼學 吳寬泳
執禮幼學 李輔善
司尊幼學 任恭珍
奉爵幼學 趙善元
奠爵幼學 金智真
奉香幼學 李英錫
奉爐幼學 李鍾振
贊引幼學 金孝元

陳設幼學 李昌善
有司幼學 金商道
掌議幼學 尹錫健
衆班幼學 趙燉熙
幼學 李詰善
幼學 李應復
童蒙 李詰浩
乙亥八月十一日享祀
初獻幼學 李應復

亞獻幼學尹永源

終獻幼學李詰善

大祝幼學尹錫祖

執禮趙學趙善元

司尊幼學金商道

奉爵幼學金智貞

奠爵幼學金孝元

奉香 奉爵兼任

奉爐 奠爵兼任

贊引

陳設 執禮兼任

有司幼學金商道

掌議幼學李昌善

叅班幼學尹錫健

丙子二月十三日享祀

初獻幼學尹錫禧

亞獻 身黃一周

終獻幼學李建永

大祝幼學李應復
執禮幼學尹錫健
司尊幼學任泰珍
奉爵幼學李丙薰
奠爵幼學李昌善
奉香幼學金智貞
奉爐幼學金商道
贊引
奉香兼任
奉爐兼任

陳設
執禮兼任
有司幼學金商道
掌議幼學李昌善
丙子八月十七日享祀
初獻幼學崔象奎
亞獻幼學尹錫禧
終獻幼學李應復
大祝幼學吳寬泳
執禮幼學尹錫健

司尊幼學李建永

奉爵幼學李結善

奠爵幼學任泰珍

奉爐幼學奉爵兼任

奉香幼學李應坤

贊引幼學金商道

陳設幼學執禮兼任

有司幼學金商道

掌議幼學李昌善

丁丑二月十九日享祀

初獻幼學尹錫禧

亞獻幼學李昌善

終獻幼學李應復

大祝幼學趙南碩

執禮幼學尹錫健

司尊幼學李建永

奉爵幼學任泰珍

奠爵幼學金智貞
奉爐幼學李丙薰
奉香幼學尹錫祖
贊引 奠爵兼任

奉香兼任

陳設幼學李鎮圭

有司

掌議幼學李昌善

叅班

先達黃一周

童蒙尹孝源

4
집성당속수재성록(集成堂續修齋誠錄)

丙寅八月 日

集成堂續修齊誠錄

集成堂續修齊誠錄序

夫慕聖尊賢秉彝之同情而寤寐所到至於堦墻况復七分之像儼然臨止孰不景仰哉竊念華汀之集成堂卽晦允兩夫子真頓妥享之所而昔年我三希堂尹先生之所創建也先生以重省高弟自維楊歸籃田而寓

焉慨世教之陵弛篤賢聖之景慕與湖鄉多士詢謀經始建此二間精舍摹真奉安春秋薦享之時率鄉弟子習禮講學遠近咸集矜式鄉邦彬彬有至魯之漸矣世道益下先生易簣以來二十年間無復昔日之規模可勝歎哉棟宇門墻頽敗滲漏而

無修補之力牲幣醴齊殘缺淺薄而乏供奠之誠於是乎士風之頽墮凜然寒心而絃誦寥寂君子之澤若是其斬乎抑無乃天不悔禍而吾道之慘日益酷焉使先聖先師之教一切掃地而然歟是未可知也蓋之有此堂卽曾之靈光而保守無人此在冠儒之所共齎鬱而况蓋土人士乎此不容不思所以全安之策而無物不成何哉顧此蔑

學後生若爾人雖誠淺力乏其在尊慕之地與其顛宇而廢豆謂猶勝於晏然瘠視不避僭越發謀求捐畧所以重新永為維持計大廈之傾寸木難支殘金瑣銅奚以補萬一然血性所同齊誠彈力則豈無克終之理又豈無後來之君子奮力成就者哉凡我同志各相勉旃

丙寅八月 日後學李應復序

立儀

一爲集成堂維持續修立楔事

一楔買同志中自願者入叅事

一楔金隨力出捐事

一楔金出納委任掌財事

一利殖堯園年割參拾錢式爲

定事

一掌財楔員僉議選定事

一楔金享祀及重修諸般事補

用事

一講信二八月初十日爲定事

一掌財所掌金講信日并本利

納八事

一講信日費楔金中折用事

一追後願叅人次第許八事

座目

李昌善 李永善 任性淳 李應復 尹錫健 白弘均 吳炳和

任泰珍 金智貞 金一貞 吳寬泳 尹錫祉 尹永源 沈宜秀 吳亨植

權重高 李鍾振 白南羲 任百賢 李英鎬 趙善元 池憲夏 金東信

任鍾贊 金商道 金珀濟 明濟天 申泰鳳 李圭宣 李應奎 金華植

柳應奎 朴滢鎮 朴在惇 趙禧衍 吳在燮 盧義鎬 尹仁熙 吳泰植 尹浩

李鎮圭 金鳳奎 金璇濟 李教極

齊誠錄

李永善

金五園內四元上

任性淳

金五園上

李昌善

金五園上

李應復

金五園上

尹錫健

金五園內貳元上

白弘均

金五園上

吳炳和

金七園上

任泰珍

金五園上

金智貞

金五園上

金一貞

金五園上

吳寬泳

金五園上

吳炳九 金叁園上

以上收合文五拾六園八月二十

七日委任于掌財吳炳和

尹永源 金五園十月三十日上

尹錫祉 金五園十月二日上

尊華稷錢拾園付八十月三十日

沈宜秀 金五園十月二日上

權重島 金五園十月八日上

以上收合文叁拾園十一月初十日

委任于掌財吳炳和

吳亨植 金叁園十月十六日上

李鍾振 金叁園十月二十日上

白南義

金壹圓

十月十三日上

任百賢

金五圓

十月十六日上

李英鎬

金五圓

十月十五日上

趙善元

金叁圓

十月二十五日上

池憲夏

金叁圓

十二月二十三日上

又尊華楔錢条式圓八

同日

金東信

金壹圓

十二月二十九日上

以上收合文式拾五圓內影堂番分割

及証明費拾四六拾八錢下在拾四圓叁拾貳錢

任鍾贊

金五圓

丁卯二月集上

金商道

金壹圓五拾錢

丁卯二月十日上

金珀濟

金叁圓

丁卯二月十日上

明濟天

金五圓

丁卯二月十日上

申泰鳳

金貳圓

丁卯二月十日上

以上收合文拾六圓五拾錢

丁卯二月初十日講信捧上記

吳炳和

八月二十七日五拾六圓

四朔利育主金

十一月十日參拾圓二朔利一圓八錢上
追後二次收捧式拾五圓八錢無利子

任鍾贊五圓上

以上合文壹百貳拾五圓叁拾四錢

當日分給記

吳炳和壹百貳拾元叁拾四錢

連帶人金一貞

任性淳

丑園 留在于文書

以上都合文壹百貳拾五元叁拾四文四
土地改良費五元七拾貳文除影堂重修
費并諸般合四拾四元六拾叁文除
實在七拾五元。壹貳

連帶人任性淳

金一貞

口更三証明費壹百六十六文除
又三土地稅不足条補用
實餘文八拾四元五拾七文

造

李應奎 金貳園 戊辰八月十一日上

追

李圭宣 金叁園 丁卯十月二十四日上
影堂當地稅補用

丁卯八月十日講信捧上記

吳炳和 七拾五元。壹貳拾壹元貳拾五文上

戊辰二月初十日講信捧上記

吳炳和 八拾四元五拾七文有拾貳元六拾八文上

前稜殘金貳拾四元上

花江
前稜一斗落放賣金壹百拾四八拾文上

當日出給記

本利合八拾六元貳拾六文

秋享時與成泰時文壹圓上

掌財吳炳和八拾六元貳拾六文

以上合文或百參指參內々五戈四

享祀費九月四十九支下

堂直行下或因庫下

實存文或百或指虎因五指六戈

當日分信記

崇財吳炳和或百或指虎因五指交

利子下五厘

連軍人金一貞

（印）

全 吳寬泳

秋收記

花汀坪二斗落租十斗

沙川坪壹斗五升落租十五斗

影堂後步踏二斗

合一石七斗四

十斗春享時作米用之
十七斗留又直于李輔善

前系米一斗留又直于李輔善
（印）

戊辰八月初十日講信捧上記

吳炳和式百貳拾壹元五拾貳元

李應奎式貳元

合貳百五拾壹元貳拾五元九角拾五元

享祀費除下式用雇直行下除冬六拾

五元當日酒傷除家財式貳百貳拾九元

止租十七斗作米六斗七斗四叁斗

又雇直留系一斗

當日分給記

掌財吳炳和貳百叁拾九元四拾五元

連帶人金一員

吳寬泳

白米叁斗叁升留貳于雇直朴有信

追

申台熙 金壹元 戊辰十月十一日

己巳二月初十日講信捧上記

吳炳和式百叁拾九元四拾五元

申台熙式壹元

合貳百五拾壹元貳拾五元九角拾五元

又享祀費及雜用除下家財式貳百五

拾八元五拾壹元

白米叁斗叁升雇直留貳五系

又六斗沙川坪出以衣所八系

九斗叁升四叁斗叁升飯米除味

在六斗由又留米五升家財五斗五升

掌財金一員貳百貳拾叁元

連帶人吳炳徽

掌財吳炳和壹百貳拾叁兩

連帶人任性淳

璫金拾貳元五拾貳分伍釐予掌議

芦川里崗七斗五升落又大川里山兩件証明費及崗土兩項費合拾貳兩八拾貳中八兩

五斗五升

白米廿肆任丑子存直朴有信

己巳八月十日講信捧上記

掌財金一員壹百貳拾叁兩 有拾五兩叁拾貳

掌財吳炳和壹百貳拾叁兩 有拾五兩叁拾貳

以上合貳百七拾六兩七拾六錢也拾叁兩六拾

九錢 享祀費及雜用係下寶錄文

貳百六拾叁兩七錢

白米五斗五升四飯米貳斗五升係

寶錄三斗

當日今給記

金一員壹百貳拾叁兩

連帶人吳炳徽

吳炳和壹百叁拾八兩

連帶人任性淳

璫金貳兩七錢任丑子掌議

白米叁斗任丑子存直朴有信

庚午二月十九日講信捧上記

掌財金一員壹百貳拾叁兩 有拾五兩叁拾貳

掌財吳炳和壹百叁拾八兩 有拾五兩叁拾貳

掌議僅置武月七錢上

以上合文貳百九拾五兩七拾錫內

享祀費及雜費拾貳兩四拾五錫下

宋在文武百八拾貳兩貳拾五錫

留在白米參斗工銀米八兩

共川苗賭租拾斗

穀米四兩五升內苗莊米參斗除下兩虎
斗五升不足故買用代金

當今檢記

金一貞 壹百貳拾兩也

連帶人 吳炳徽

吳炳和 壹百五拾兩也

連帶人 任性淳

崔直朴有信 五兩也

殘金唐目貳拾五兩任置手掌議

敬追入

柳應奎 一兩 辛未二月十五日

朴澄鎮 一兩 辛未二月十五日

朴在悖 子錢 辛未二月十五日

姜信玉 一兩 辛未二月十五日
趙禧衍 庚午八月十三日請信濟上記

金一貞 壹百貳拾兩 利六升參錢

吳炳和 壹百五拾兩 利拾兩七錢

崔直朴有信 五兩 利六升參錢

任置泰唐目貳拾五兩

崔晚基 壹兩八錢 已地稅茶人

以上合文參百拾兩捌錢

享祀費及雜費拾貳兩五拾六錢下

現在金參百員拾貳錢

租拾手作米四斗二升餘米八

又七十錢用下

現在金參百員拾貳錢也

當日捧出文式四甲五錢掌議任丑

實錢百員拾貳錢

當日決議書

一未收額九月十五日收捧事

一拋買入決定事

一場町集成寺在直家

九月十五日捧上此

金一員 壹百貳拾六員四拾八員上

吳炳和 壹百六拾八員五拾五員上

朴有信 五員上

封留文式四拾貳錢

當日捧上金參百員拾貳錢

當日費用式四下 又長拾五下

同社額中五拾四員付

八拾四員拾貳錢是當日金額

名義主附金

土月二十日并利十月八

十日三員計

拾貳員七拾貳員八

以上捧上却令文參百員

沙川坪五員出買收金八拾

四下活明費九員拾五員下

沙川坪四五員田記明費四員五員下

沙川坪式六五員地稅陸員六員下

十日五員集成寺金費五員下

用金九員拾四員七員上

實錢貳百貳拾六員四拾八員上

金珀濟 壹百九拾五員四員上

拾貳員八拾貳員封留于掌儀

大川田兩得稅貳拾貳員上

沙川田兩得稅陸員五員上

實錢貳百貳拾六員四拾八員上

辛未二月十五日傳信持上此

金珀濟 壹百九拾五員 廿九員并利

沙川田兩得稅貳拾貳員上

封留文式四拾貳錢

追入多角多十支

以上合式百拾參月拾四支四
旁事祀費拾貳月七拾八支下

家得貳貳百拾月參拾六支

追入

吳在變一月上

合貳百拾貳月參拾六支四

是月多十支難用下

旁事貳貳百九拾月拾六支四

金珀濟貳百九拾月拾六支四

四拾月三月王曾少原親里祠

傷金射路費折用

八月七月七日沙川坪貳六五番出改

築費六兩四拾貳支影重曝晒所用

費折用四兩貳拾貳支在

實本額壹百九拾貳月八拾六支

辛未八月十八日溝信

首四兩參貳月支

金珀濟貳百九拾貳月八拾六支

兩次折用支參貳月貳支

以上合貳百拾六月九拾九支內

旁祀費拾參月拾八支下

察在文貳百參月八拾四支

坪里坪參貳支參貳月參貳支金

是百貳拾月伍拾貳及西得稅拾貳

內五拾支伍拾內崇手議重難用

次留五金珀濟一以崇手金額

案坪文六拾貳月參拾貳支

又十月十九日坪里租包代金拾八

參拾支

以上兩後合文七拾九月六拾貳支

崇手議崇手參拾月四

坪地稅參貳月參貳月四拾四支崇手議崇手

五式當式因五式當金銀七式
 式六五當走月五式 當金銀五式
 用金九月參拾八式住實留在六拾二式
 士月末日式六五當租代五因七拾式
 五二當租代拾四九拾六式西合
 式拾四月六拾六式

壬申二月十一日講信

金地濟夕六拾走因參拾走式
 又拾八因參拾走式三朝右走因拾走式

租代式拾四月六拾六式 一朝利六拾拾式
 留在夕六拾六式 式拾四月六拾六式

崔晚基 賄租代殘棄式自七拾中
 早五斤 拾代

朴春三七三斤 上 四式拾參斤可上

以上合又壹百貳拾五因四拾五式

享祀費拾貳因八拾五式用下

實家父百八拾五式

同日分結記

金珀濟夕七拾五因九拾五式
 又又拾五因七拾五式
 吳炳和夕四因

崔晚基夕貳因七拾五式
 金今年賄租中

朴春三夕參因貳拾三式

掌議 留在夕五因

盧義鎬 貳因 內壹因上壹因在也
 壬申八月十三日講信

金珀濟夕九拾參因五十五式
 拾參因四

吳炳和夕四因 利五斤上
 拾參因五十五式

崔晚基夕貳因七拾五式
 壬申八月

朴春三夕參因貳拾三式
 利五斤上

掌儀任五參五因內拾因上

盧義鎬夕貳因內壹因上

以上合文造百貳拾貳元四十九分

享祀費及運米費用（此項） 糧食存倉

賈在女店百貳元九分

同日夕餘記

金珀濟九拾貳元六十八分（九月十二日）

吳炳紅々四角

盧義鏞々壹角（九月十七日）

朴春三々壹角

掌議任實々四角

九月十二日金珀濟以掌事鋪四拾四

折八次川里八番代八個斗地稅或四

五拾鋪出信于金明先全坐地五十坪

伍并分割費六圓五拾鋪出信于金

寅權鋪款壹圓九月十五日會費保

十一月初八日坪里坪稅收三石及崔晚堇

瑞石三十斤并放交或拾七元或拾壹元

四一期地稅五元九拾五元或拾四保

越于金珀濟鋪款壹圓或拾壹元或壹

雲西二月十二日蘆川坪西雲樓收放

文參拾壹圓拾八分地稅或四拾壹元

陳恩板中割費六元七拾鋪信下

寅或拾或元參拾七元并書或拾款

壹圓或拾壹元或拾參元五十八分

雲西二月十七日講信

金珀濟八拾貳元六拾八分利拾元（二拾）

吳炳和四元利五拾元（九拾貳元九拾貳元）

盧義鏞壹元上（拾貳元四角五分）

朴春三叁元利叁拾元（八拾七元）

掌議任實々四元（拾貳元）

金珀濟貳拾元利叁元五拾元（拾貳元）

租免放交錢金貳拾叁元五拾元（拾貳元）

以上合計壹百五拾元八拾九分

享祀易及雜用拾四月七拾九文

係下安存文卷石參拾六日按受

當日分給記

金珀濟文拾貳日

初五日七月十香上

金商道拾貳日五拾文

吳炳和拾日

李輔善參日

朴春三參日

尹仁熙拾八日拾貳文封留于香手添四

三月音影聖壇及修築指背八拾文上香并

尹仁熙拾日

又七月十五日壇垣改築及塗

壁及久又傷中燈籠表造

費六日下掌財庫出

經商八月十九日修修按上記

金珀濟文八拾有月利八日拾貳文

金商道文拾貳日利拾貳日

吳炳和文拾日利拾日

李輔善文參月利三十文

朴善三參月利三十文

初五日七月十香上

尹仁熙文拾日

計百餘拾月七拾九文拾貳日

享祀費下

庚辰金百十月十五

同日分給記

金珀濟文七拾參日

又參日

金商道文拾貳日

吳炳和文拾日

李輔善文參月利三十文

尹仁熙文拾日

朴善三參月

李應復留于九月分參

九月十參焚香時用下三十文

堂後住金

甲戌二月十三日講信指上記

金泊濟 七拾二月 廿七兩半

金商道 拾貳月參少 廿五兩半

吳炳和 拾月 廿五兩上

李輔善 參月 廿參兩

尹仁熙 拾月 上

朴春三 拾月 廿九兩

李應復 拾月 廿九兩半

正租四百斤 實文拾貳兩

正租五百拾斤 實文拾貳兩

租一百四拾斤 廿七兩半

租伍拾斤 貳拾貳兩

以上各庄百半貳兩四十三兩

癸酉地稅八兩五錢

身祀費拾兩半 下又正用半

在直行下 廿五兩半 下

實在各庄百半貳兩四十三兩

當日分給

掌財 金泊濟 七拾九月 廿八兩

廿拾兩

金商道 貳拾四兩

吳炳和 貳拾四兩

李輔善 參月 參拾貳兩

尹錫健 拾參兩

李應復 拾月上 掌財去月日

朴春三 貳兩

甲戌八月十四日捧上記

金商道 貳拾四兩 貳兩半

吳炳和 貳拾四兩 貳兩半

李輔善 參月 參拾貳兩

尹錫健 拾參兩 貳兩半

朴春三 貳兩 貳兩半

掌財 金泊濟 八拾九月 參拾貳兩

參拾貳兩

二月補修修理費拾月二十才持末
三月前衣次學備拾月持末
四月硯石伍二十才持末

元金
毛金
元金
毛金

坪里出修修費拾月二十才持末

育臘酒目用拾月持末

沙川當穿煙費拾月二十才持末

以上用拾月二十才持末

掌財實用之拾月之錢 利合今之

上元利實文拾百四十四月三十五才

享祀時拾參月二十四才下

例下 拾月五十五才下

實在文壹百貳拾九四三十五才

同日分份記

金商道貳拾之月四才

吳炳和貳拾月七十五才

李輔善參月之十五才

尹錫健拾四才

朴春三或四

掌財金伯濟之拾或四五十八才

十月十日秋收放文記

尹錫健初代參拾參月十五才

崔晚基初代拾四十五才

有信初代三十才四十五才

以上合初之九月四十五才內地稅七四四才下

實在文之月九十五才

坪里坪番三斗落代金壹百參拾五才買入中

右初代之十膏九十五才八用

吳炳和二十四才二初代十三才五上

金伯濟參拾月折用拾才青入 實在三十兩才

尹錫健五才 並三初代二十才上 實在九才

債用金貳拾月每初四厘過

合計壹百參拾四才十五才內 為伍元參十五才下

証明費五才則不足金壹拾月三才 則次金

字權許位置並是更用

乙亥二月十日捧上记

金商道貳拾兩四錢 貳兩六錢

李輔善參同六十三錢 貳兩三錢四十五錢上

尹錫健 九月 貳九錢

朴春三貳兩 貳兩三錢上

掌對金珀濟參拾兩五錢 參兩五錢

初月三兩拾月今

此元銀金八拾兩七錢四

身龍費拾五兩二錢半下

此五兩二兩下

兩得稅五十二錢下

寅在文之十四兩九錢七錢四

有向金商道由東洲移費九月四錢除

掌對金珀濟由東洲移品片衣次何五兩五錢

掌對衣次片何五兩七錢下

呼里西屬由修錄費十四兩三錢下

寅在文之參拾兩五錢上

分給記

金商道貳拾兩

李輔善參同四兩九錢

朴春三貳兩

掌對金珀濟五兩三錢

乙亥八月十日捧上记

金商道貳拾兩

貳兩

李輔善參同四兩九錢 貳兩五錢

朴春三貳兩 貳兩三錢上

金珀濟五兩三錢上 貳兩五錢上

此元銀金八拾兩七錢四 當持上女 五兩七錢

身龍費拾五兩二錢半下

曝酒時建日三錢用

此五兩二兩下

以上用金參拾兩八錢四錢上 持上女五兩七錢 三錢用下 寅在文之

持上女五兩 掌對先給

金高生 壽松八月人 甲戌十二月分 壽松八月人 甲戌十二月分

朴有侯 初四日 乙酉 初四日 乙酉

李時泰 初一日 乙酉 初一日 乙酉

尹錫健 初四日 乙酉 初四日 乙酉

崔晚基 初四日 乙酉 初四日 乙酉

崔晚基 五月 乙酉 初八日

以上持文 五拾八日 乙酉 初五日

朴有侯 初四日 乙酉 初四日 乙酉

地後八月 乙酉 初八日

李時泰 初四日 乙酉 初四日 乙酉

崔晚基 初四日 乙酉 初四日 乙酉

有到金 初四日 乙酉 初四日 乙酉

文書 吳炳和 初四日 乙酉 初四日 乙酉

宗在文 初四日 乙酉 初四日 乙酉

丙子二月十日 百講院

李時泰 金相濟 初四日 乙酉 初四日 乙酉

尹錫健 初七日 乙酉 初七日 乙酉

崔晚基 初七日 乙酉 初七日 乙酉

李時泰 初七日 乙酉 初七日 乙酉

朴有侯 三月 乙酉 初八日

以上持文 拾九日 乙酉 初九日

朴有侯 初四日 乙酉 初四日 乙酉

崔晚基 初四日 乙酉 初四日 乙酉

宗在文 初四日 乙酉 初四日 乙酉

同日 乙酉 初八日

李時泰 金相濟 初七日 乙酉 初七日 乙酉

尹錫健 初七日 乙酉 初七日 乙酉

朴有侯 三月 乙酉 初八日

李時泰 初七日 乙酉 初七日 乙酉

以上持文 金相濟 初七日 乙酉 初七日 乙酉

丙子八月十七日講信

掌財金珀濟月拾五兩七錢四分五厘

尹錫健於七兩六錢四分五厘

朴春三式日 初三十上

掌議李昌善書面二兩內一兩上

以上合文四拾兩參拾五錢

身祀費拾八兩八錢

曝晒時費百

堂直例下一兩五錢下

以上用下二十兩九十八錢除

案查又於九月參於七錢

同日分給

尹錫健於六兩參於七錢

朴有信二兩

掌議書面百

丁丑二月十九日講信

尹錫健拾有參於七錢 右百兩參於七錢

朴有信二兩 初三十上

掌議書面一百上

堂直例下兩四錢四分五厘

崔晚基々 百兩參於七錢

李聖春々 二兩參於七錢

以上勿係在別並二兩四錢七分三厘

正租稅費他金四兩參於七錢

地稅有參於七錢

金氏費一兩

由來諸費五兩三錢

身祀費拾有參於七錢

有司金商道購儀奉日

堂直例下一兩五錢下

以上諸取用下參於奉四兩三錢

寅在參於四月午

同日多給

尹錫健 於四月午

補有信二百

吳炳和 於四月午

以正租四百午代他三厘計於之月令
而合計五拾四參於午

白米五拾五升 估銀手當五

吳炳和 封銀五拾四參於午

前掌儀李昌善衣次而後而用下
家禮禮餅一狀何於用下而用下而用下
坪里前坪而用下而用下而用下

以上用下於五月午

吳炳和 於四月午

掌儀尹錫禧 於四月午

朱書百 選三冊 於二月午

寅在封銀於九月午

丁丑八月十日誦信

尹錫健 於八月五十三日 第一日午

補有信二百

又白米五拾五升 內可五升 曝晒時用

掌儀尹錫禧 於日

吳多核

吳炳和 於九月十四日 於九月十四日

但參與七十九 櫃藥時用
左於二月午

以上合又五拾四參於午

同日多給

尹錫健 於九月十四日

吳炳和 於九月十四日 堂直聘儀

李昌善 於日

補有信二百

又白米四斗

掌儀尹錫禧 於九月十四日

戊寅二月十五日誦信

尹錫健 於九月十四日 第二日午

吳炳和 於九月十四日 第三日午

李昌善 於九月十四日 第四日午

又白米四斗

秋收租一千叁百叁拾九斤放代一百拾二兩零二錢

地稅角三分下實一百四十五文

當用土南梅
地移今九月立也

以上廣文一石字八十九字旁同當用下首條
傍並文一石字八十九字旁十

掌儀衣次四梁下

箭司衣以甲冑下

文書永名四冊下

寶傳存又書為子留九全

國家館

目今又照依一厘五毫處置

李昌善先生

吳炳和士百内

伊錫佳 推內四十五

族有子子戈李應龍任武備

膏曝晒时前後費或月叁次

スリ予価セカト

戊寅十一月二十九日講

捧上記

李昌善 庚戌秋月

吳炳和蓋百因

尹錫健
松田

任正泰六月辛丑年二月李應得上

秋收租壹千二百斤
又百斤外代九兩三錢分入

上合文正百生二月廿四

閏七月日曝酒時用二斗升於坎下

地坑

白氈一束四十斤

郵票
十元
下

當日烟毒六四下

定用計於四孟

實文文卷百六拾四九十五
六月八十三才

司日

尹錫健
松月
又二月五十七

李昌善 四拾四

得財吳炳和壹百拾月十三日

積置祖九百五十畝
代金月七千五百

己卯年用下記
七月日曝曬費二月十元
九月日大田生米費拾兩

郵票三十元

地稅二百七十元

合計拾四兩四十七元除

代祖實任七拾參兩二十七元也

己卯十一月十五日捧上記

尹錫健貳拾兩五十七元

利參兩八元

李昌善四拾兩

利六兩三十元

掌財吳炳和貳百拾六兩于六元

利十七兩四元

同祖代餘在七拾參兩二十七元八

以上合文貳百七拾六兩五元

秋收記

堂直租三百七十五元

尹義源租三百三十九元

代估四十六兩五十七元

以上都合文參百五十元參拾五元

當日烟每八兩四元下

堂直家堂多則次費用二月吳日奉去

掌財謝禮品代金五兩除
白紙吉東 四兩四元除

實任在文參百參拾七兩五元

同日夕後

尹錫健貳拾兩

李昌善貳拾兩

掌財吳炳和貳百九拾參兩

掌財用合計參百拾七兩五拾貳元

本年四月五日曝曬費五元貳拾元

減費五兩四元下林野總會費貳拾元

李承憲參拾五兩貳元

實任在文貳百七拾九兩七拾元也

庚辰七月十日曝曬費貳元貳拾元

集威堂重修費貳拾兩四元下

南澗祠修米費參拾兩七元下

庚辰十一月十五日捧上記

李承憲參拾五兩

貳拾兩

尹錫健貳拾兩

貳拾兩

掌財吳炳和貳百八兩六元參拾五元

以上並本利壹百八拾八兩七錢

秋收記

尹義源

五百拾斤

參百六拾斤代自土上
在庚辰年六月十四日
計日需計

李聖春

二百五十五斤代貳拾七兩貳錢上

崔晚基

一百六十斤代貳拾六兩

堂直

四百斤代四拾兩貳拾有零錢上
在庚辰年六月十四日
計日需計

祖代先人交六拾五兩九錢

地稅指日四拾參錢上

堤堰費貳月九拾貳錢上

租代實修交五拾貳月五拾九錢

以上兩合計貳百四拾四兩七拾六錢

當日用費 五兩下

掌議本代 五兩下

掌財吳炳和重修者役拾五兩下

前有司尹錫健前落看役拾四兩下

以上在文貳百五兩七拾六錢

當日分結記

李承憲 參拾五兩

尹錫健 拾四兩 庚辰年六月十四日

掌財吳炳和壹百六拾元七拾六錢

又庚辰年六月十四日 尹錫健參八

拾貳兩尹義源參八

又辛巳三月二十日 堂直參八

辛巳三月二十日 捧上記

李承憲 參拾五兩 書三兩計港用辛巳

吳炳和 壹百六拾元七拾六錢 前書七兩貳拾錢

又 四拾八兩四拾錢

以上合文貳百五拾貳元六拾參錢

享祀費貳拾六元十七錢下

堂直行下貳日 又雇佃老日

實在文貳百貳拾參元四十六錢

當日分結記

李承憲 參拾六元五拾七錢

掌財吳炳和 壹百六拾元八拾九錢

未收系周直初代指奉月不升茂和享祀與盛饒次

崔晚基初代指八丹六月日解抄主册上

追入吳泰植志因掌財任置道

六月一日堂直系拾叁日掌財任置道

掌財出當令文貳百月八指九支四

四月四指五支廿月坪堤坊費下
貳月八指支曝涵費下

貳指五月五指支丹便下

宋志百六指八月十四支

辛巳十一月十五日溝信棒上记

掌財吳炳和支志百六指八月十四支

計七期右指七月五指支

崔晚基支指八月計五期右指八月五支

李承憲支參指六月五指支

計七期右參月八指支

堂直初代貳指四月

李光春初代四指四月參指支志上

李聖泰初代指參月上

崔晚基初代志百四十个留置手堂直

上棒合參支貳指六指七支內

堂耳地稅指月四指支下

堂日用費六指下

宋志支參百指月貳指六支也

常日分給記

李承憲支四指月參指七支

掌吳炳和貳百六指九月八指九支內

支千四指分坪里坪斗落改築

費參指八月千支下

又二月分希聖位土改築費八月

七指支代付

壬午三月初十日享祀時

當日享祀費參指五目五指四下

堂直行下貳月下

又 堂月五指支下 合用參指六目

掌議 衣次代七月下

有司 衣次代七月下

掌財 衣次代七月下

以上用下合計壹百六元九指零

堂直米代指壹元九指七支

壬午十一月十五日 謹信捧上 記

掌財吳炳和 參指六指四指五支

又堂直米代指壹元九指七支

李承憲 四指四目參指七支 書百五支

希堂位土改築時貸付參八月七指支上

秋收桑茶坪二斗落米指貳斗代貳指六目四支

坪里坪三斗落 止租參百六指介內

沙洲二斗落及坪里

坪二斗落全裁

九指介當盈于掌財

貳百七指介代貳指七月八

指四支

尹浩進入夕或月上

以上合計參百七目八指四支四

地稅及薪炭費參七月九十八支下

堂日用下指貳月六指支下

堂月貳百八指七月貳指六支

堂月分信記

掌財吳炳和 貳百四指四指四支

李承憲 四指六目四指貳支

進入李鎮圭 堂月參月三月廿五

祭末三月十五日享祀時

堂日用合參指七月五指五支下

留租九十斤飯米及堂直行下下

掌財堂用參貳百四目貳指九支四

六月日曝晒費參月四目

祭末十一月十五日 謹信捧上 記

掌財吳炳和貳百。壹月貳拾九

書參指月指參入

李承憲。四拾參月四拾貳

書六拾九拾六

書五拾參月五拾八

李光春。拾貳月五拾貳拾商四

堂直。拾貳月四拾貳拾月于

又白米參斗留

堂合文。參百五拾六月貳拾五

堂年地稅。七拾九又下

堂。用下拾貳月五拾貳下

堂手儀。未及代

堂財

堂參指月下

用合。五拾月四拾九

堂。時存。參百。五拾七拾六

堂。口。分。指。記

自今。高。近。庫。出

堂財吳炳和。貳百七拾五拾七拾

李應復。參指月

甲申四月一日享祀時

當日費用。壹百。六拾九拾四又下

堂直。行下參。在下

前有司。吳寬。承。死之時。贈儀金

堂。用。令。文。港。百。拾月九拾四

堂。財。所。掌。金。中。用。多。白。銀。參。入

進金鳳奎參內上

留手。掌。財。所。掌。金。中。用。多。白。銀。參。入

甲申十一月十五日講信捧上記

掌財吳炳和。貳百四拾貳月八拾貳上

書。指。四。月。貳。拾。八。又上

李應復。參指月。書參月上

又參月上金鳳奎進入參

社。收。租。崔。晚。基。港。百。四。拾。月。代。指。角。金。五。拾

李昌鎔 四百斤 內參五斤 代參指

自參五斤 羅子參在

李東薰 四成指 代參指 壹斤

李聖春 三成指 代參指 九五

堂粘膠金合壹指 貳指 四指 六指
內當年地稅指 八指 參指 六指 係
安參壹百六十四式指 四式也

望都令文貳百九指 九月參指 貳式內

參日用下指 貳月係
有司 後代指 五月下

掌財 舊代指 五月下

安修文貳百五指 背參指 貳式

參日參指

掌財 吳炳和貳百七指 參指 貳式

李應復 五指 月

乙酉三月初七日 享祀時

常費費用 壹百五十四 月食入

參日 飯米以留存 移四斤 係用

119705

右實乃身支使參日五內 掌財所

掌財 文申折用 曝晒時 旋內 係下安在 文
九指 參指 貳式

金璇濟 貳月 封留掌財

李教極 參月 封留掌財

乙酉十一月二十日 講信 移上 記

掌財 吳炳和九指 七月參指 貳式 背參指 貳式

李應復 五指 月 封參月 上

又秋收代

崔晚基 壹百四斤 代貳百八指 月 上
內參指 在

李昌鎔 貳百五指 五月上

金商俊 貳百五斤 五月上

李聖春 九斤 本人留參 貳指 參月 上
酒樓集 八指

以上 按上參 貳百九指 七月 五式
鼎興參 參指 月 上

參日費用 參指 月 下

有司 後代參指 月 下

都令文 壹千壹百參指 七月 貳式

掌財吳炳和 志千。八拾五有五分

李應復 五拾月

丙戌二月十一日享祀時

當日費用叁佰七拾五有五分

地稅貳拾貳元貳角

合計叁百九拾八元四角貳分用下

丙戌四月二十日影堂由改修築費叁拾元

恒墻修築費拾月

曝晒費拾月

掌財吳炳和 志千。六拾五有五分

掌財吳炳和 志千。六拾五有五分

留在又五百四拾元。五拾叁分

丙戌十一月二十日講信持記

掌財吳炳和 志千。四拾月。五拾叁分

右五拾四圓五

李應復 五拾月 利五月

上合六百四拾九月五拾貳分

有司麻鞋代志百月除下

當日費用志百月除下

實余又四百四拾九月五拾貳分

當日分給記

掌財吳炳和 志千。九拾五有五分

又秋收記

崔晚基 正祖志百拾月 丁亥四月分會

李昌德 志千。五拾月 丁亥四月分會

八月分會

金商俊 正祖 志千。八拾月 丁亥四月分會

李聖春 九拾月 丁亥四月分會

丁亥二月十七日享祀時捧上

文留在又四百四拾九有五分

金商俊秋收志千。分會也

合文貳千貳百四拾九有五分

當日與成文志千。分會也

堂立行下 志百月

地稅貳百貳拾肆月下

張稅貳拾貳月下

案余文五十九於貳月八於金

四月於五計

崔晚基 秋收案貳千肆入

李聖春 秋收案貳千六入

以上合文並留在文五十九於貳月八於金

四十志九於貳月八於金掌財担任

八月分李昌鎔 未收案貳千肆入

影堂垣牆修築費并曝曬日午競

代文四萬赤陰下案文志千六萬赤掌財担任

丁亥拾志月拾五日講信

捧上祀

掌財 吳炳和 四月分任置

四十志九於貳月八於金 貳百五

案於我

八月分志千六入 三朝利

合文六千七於六月四於案收

當年地稅貳百於九月下

有司麻鞋代貳百於下

當日費 叁百於下

案余文五千叁百五於八月四於金掌財担任

秋收記

李昌鎔 正租貳貳供出代金志千叁拾入

崔晚基 正租壹入

金商俊 貳以七拾斤

李聖春 壹入

戊子二月十三日享祀時捧上文

李昌鎔 正租代金壹千貳百拾月

崔晚基 正租壹入酒飯米豆除用

金商俊 正租貳以七拾斤 俾米拾壹牛代金

李聖春 正租壹入以作米四牛代貳千月

以上合文千七百拾月也當日

祭享費貳千七拾貳月用下

六月洪水时坪里斗落小唐堤坊被淹个

冬万用下

七月曝晒午修代聖武祐四下

八月分影壹牆垣修築費壹千五百四下

享壽參千四百有九

戊子十一月二十日講信捧上記

掌財吳炳和五千零五拾七兩四拾錢

五月七拾五

留在文冬四百指田

以上都合九千餘石會冬田指支也

當年地稅九百九十九

實錄又一千零五拾叁四拾五也

与杨记

五千參百指參百指戈掌財吳炳和
參千日李(聖春)

秋收记

李日用 處石

霍晚基 庚七十斤

金商俊
三十八年

李聖春 一八

己丑二月二十日享祀時捧上祀

掌財帛炳和五子叁百指叁元指戈内

李聖春女參予月

内式千部九
用八用安在
参巴搖又在

李昌鑑正租壹石伍米八斗

崔晚基 七十斤 汪伯米用

金商優
三
佐米四斗貳式四多用水破

李西華
卷之四
出改築夢用下

常用下參千八百九拾兩

掌財帛者用之庶無訛誤

三月二十日李昌銘白米六斗代四千貳百丹收份

壹千內李昌春用參千貳百丹當財用

壹千內可當合正萬參千四百

(補稅中錢)

李廣春

太川里四五番田四貳坪

其川里貳番田四貳坪

坪貳番田四貳坪

右土地八千分

檢紀四八五年二月示六補償金七萬五千四百丹領收

九月拾

參拾參千五百丹領收

此兩合參拾七萬五千四百丹

前殘在金八千分拾參丹指交

以上都與參拾八千貳百拾參丹指交

參拾參萬丹正租壹石代金結

集成堂修繕費五萬七千四百八拾貳千

八分月 實收貳百八拾月計

實已十一月二十日講信

正租壹石作米拾斗倍利給 右拾斗

甲午十一月二十九日講信

白米貳拾斗正月分以五割給 右拾斗

正月十五日補償金五千丹言徵收

昨昨前不足額貳百丹復田證明費四百貳

拾丹垣墻修築費五百丹三合共貳千貳百

丹言保下計實餘額貳千八百丹也計

五分書吳承建用 年書是壹千九百丹

十一月十八日報償額四千參百拾五丹

言徵收計日前後兩合共貳萬貳拾五丹

掌財吳炳和留置

當日分信記

吳炳直白米拾五斗

秋光錫白米拾五斗 內壹拾斗徵收餘日書用

李亞春白米五斗 秋收条

乙未七月二十九日曝曬費壹百圓整用下

乙未十一月末日講信

吳炳直 白米 拾五斗 利七斗五升 二二五
 吳日圭 拾叁斗 六斗五升 一九五
 李聖春 五斗 貳斗五升 七五
 李聖春 秋收 初六斗 作米貳斗五升 二五
 吳承珪 文 志萬園整 利五升園也
 十月十七日 報償額九升叁百拾六園是微
 收計卅九百園是野金計宗八升四百拾
 六園兩合貳萬叁升四升六園以用曝曬
 費志萬園陰下實餘額貳萬叁升叁百拾
 六園也

當日分給記

吳炳直 白米 貳拾貳斗
 吳日圭 拾九斗
 李聖春 拾斗
 吳承珪 文 貳萬叁升園也
 掌財留置 文 叁百拾六園也
 丙申五月二十九日 報償額微收系
 吳承珪 文 志萬四升園整

當日分給記

吳炳直 白米 叁拾叁斗
 吳日圭 貳拾八斗 丁酉四月三日
 李聖春 拾八斗 貳拾斗金永拾拾
 吳承珪 文 五萬園整 四月十四日入
 掌財留置 文 叁百拾六園

丙申年十一月末日講信

吳承珪 文 貳萬叁升園 利志萬四升園
 吳承珪 文 志萬四升園 貳拾園
 李聖春 秋收 初九斗 作米 叁斗

吳炳直 白米 貳拾貳斗 利拾壹斗
 吳日圭 拾九斗 九斗五升
 李聖春 拾斗 五斗

集成堂所有財產目錄

霍直宗三間空地五十坪

六里

拾四畝林野壹町壹畝

大里

名義人李昌善吳炳和金一頁

尹錫九李時春

四拾五畝田叁百四拾貳坪 一三六八

大里

名義人李應福金一頁

任性淳金珣濟

貳百六拾五畝田四百三拾坪

芦川里

名義人李昌善任性淳尹錫健

吳寬泳金智貞

貳式畝田六百叁拾五坪

六〇三二

芦川里

名義人李應福尹錫健金一頁

任性淳金商道

叁貳式畝八百叁拾八坪 一五九〇

坪里

名義人任性淳尹錫健金珣濟

李昌善金一頁吳炳和

同社稷所有

壹貳六畝貳百七拾六坪 三三二二

城洞

名義人任性淳李應福

尹錫健

苗土元定賭祖記

苗二五畝田四百三坪 元定賭壹百零斤

作崔晚基

名義人李應福

五二畝田 六三三坪 全 四百斤

作朴有信

大前四五畝田 叁四二坪

元賭

作朴有信

坪里叁畝田叁人叁坪

西谷案五畝拾斤

作尹在源

參參畝田三四五坪

作李光春

與成記

鵝二首

吳子春

乾多魚四尾上

大老一斤

吳有

乾柿二串

吳有

清魚二整式

吳有

湯魚二斤

吳有

李慈

又

堂上終下按白

편저자 소개

황의천(黃義千)

1960년 충남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화망 출생

웅천초·웅천중·주산농고·공주사대 역사교육과 동 교육대학원 졸업

장항공고·웅천고·주산산고·대천여고·충남해양과학고·대천여고(현) 교사

보령문화연구회원, 국사편찬위원회지방사료조사위원

〈논문〉

「樛負商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연구」(1993)

「藍浦縣 治所의 이동에 관한 연구」(1998)

「보령지역의 石塔과 浮屠에 대하여(Ⅰ,Ⅱ)」(1999)

「白江·周留城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2001)

「土津串 목장성 연구」(공저)(2000)

「황재현 백낙관의 위정척사운동」(2000)

「조선시대 보령지역 거주 司馬試 급제자와 양반사회」(2001)

「三希堂 尹錫鳳 선생의 洪京日記」(2002)

「의병장 柳麟錫의 글씨에 대하여」(2002)

「四可 柳浩根 선생과 四可集」(2003)

「다시보는 천하명승 永保亭」(2003)

「보령 남심리 胎室에 대하여」(2004)

「임진왜란 칠천량 해전과 충청수사 崔湖」(2004)

「병오홍주의병과 崔相集의사」(2005)

「보령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黃奭顯 선생」(2005)

〈편저〉

「보령의 登科儒生」(2001) 「丙午홍주의병과 洪京日記」(2004)

오현규(吳顯圭)

1930년 충남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내성) 출생

돈암 李應複 선생에게 한학 수학

보령문화연구회 명예회원, 대천문화원이사,

보성오씨 족보 연구·편찬위원

〈논문〉

「보령의 마지막 유학자 敦庵 李應複 선생」(2001)

「藍鄉 五老會」(2003)

「老隱 任學準 선생과 上臺庵」(2005)

〈편저〉

「보성오씨족보」 「敦庵李先生文集」

集成堂誌

인쇄일 / 2007년 12월 일
발행처 / 대천문화원
발행일 / 2007년 12월 일
발행인 / 대천문화원장 임 기 석
편저자 / 황의천 오현규
번 역 / 노승석
인쇄처 / 명문당 인쇄소(935-2850)

비매품

